

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집
인천교육-2022-0098



함께 풀어가는 교실 속 민주시민교육 이야기

함께 풀어가는 교실 속 민주시민교육 이야기

발간사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우리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터전인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을 바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이자 공적 영역에서 결정의 주체로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며 연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는 삶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바로 위와 같은 인식에서 시작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비판적 사고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성인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의 조화를 통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실천과 참여 중심의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실천과 참여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공론의 장에 모여 각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하는 속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속의 과정에서 논쟁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논쟁성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어떤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하고 안전하게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민주시민교육의 기초가 됩니다.

공론의 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의 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활동은 주로 학생자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학생자치는 단순한 행사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인 학생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인 학교와 마을, 사회, 그리고 세계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학생자치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주체성(주도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삶의 힘이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교육청은 교육과정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초등학교 성취기준을 맵핑한 ‘수업, 민주시민교육을 펼치다’, 2021년 중학교 인정도서 ‘시민과 사회 정의’, ‘시민과 사회 참여’, 2022년 고등학교 인정도서 ‘학생자치와 사회참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변혁적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료집은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이해하고 미래교육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개인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눠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등
학교

■ 천천히, 조금씩 함께 티우는 민주주의 새싹! 학생자치	인천새말초등학교(인천남동초등학교2022)	강수연	07
■ 이상이 일상이 되는 헌법과 인권교육	인천부내초등학교	구소희	11
■ 질문으로 돌아보는 '민주학교' 3년의 기록	인천예송초등학교	김세왕	16
■ 우리가 마을지킴이!	인천석정초등학교(인천주원초등학교2022)	박원석	21
■ 커뮤니티 맵핑을 활용한 학교 문제 해결하기	인천도화초등학교	서정래	26
■ 학교자치로 열어가는 우리 학교로 어서오시거!	인천양도초등학교(대월초등학교2022)	장형진	30
■ '스스로 학급'으로 열어가는 우리 교실 프로젝트	인천소래초등학교	정고은	34
■ 인권의 눈으로 기후생태위기 들여다보기	인천부내초등학교	정영은	38
■ 보이텔스바흐 토론수업을 통한 동아시아 국제교류	인천송원초등학교	최찬혁	42

중
학교

■ 학생 주권자가 만들어 가는 '학교 플랜트 존'	인천가현중학교	김미영	49
■ '역사 바로 알기'로 여는 평화 교육	강화중학교	김위선	52
■ 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서부 학생자치네트워크 '다우리'	인천안남중학교	김일중	57
■ 민주로드로 민주시민교육하기	제물포여자중학교	김현아	62
■ '시민과 사회 정의' 교과서와 함께 떠나는 '정의 여행'	명현중학교	남궁선	66
■ 하루를 여는 '아침 15분 학급회의'	선학중학교	도현정	71
■ 미안마의 민주화운동과 연대하는 사회참여활동	북인천중학교	안민영	76
■ 성실, 정의, 책임, 배려로 만드는 '민주학교'	북인천여자중학교(인천이음중학교2022)	이주관	80
■ 학생자치 동아리(MSG)와 함께한 학생자치 담당교사 이야기	만수중학교(인천남동중학교2022)	이주식	84
■ 마을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학생 시민 이야기	동암중학교	장서정	88
■ Scientific 사회참여, 교과교사의 사회참여 도전기	인천공항중학교(강화고등학교2022)	장윤환	93
■ 서로 바라보고, 귀 기울이는 '교육공동체 회의' 운영 방법	강화중학교	조우영	96

고등
학교

■ 노동 현장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문제 톺아보기	인천신현고등학교	김성준	105
■ '민주학교', 더디더라도 함께 고민하며 한 걸음 나아가기	부광고등학교	김향연	110
■ 학교를 바꾸는 즐거운 상상, 사회참여활동	강화여자고등학교	김혜연	115
■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나명은	119
■ 미안마 난민 어린이를 위한 '희망 프로젝트'	강화여자고등학교	박문숙	125
■ 나의 노동인권교육 일지	문학정보고등학교	박삼남	129
■ 시민교육의 세가지 키워드 , 자율(자치), 공감과 배려, 책임	인천영종고등학교	임지혜	133
■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의 '사람' 찾기	인천만수고등학교	현경희	136
■ 학교의 잃어버린 주인을 찾는 '교육공동체 회의'	인천영종고등학교	홍경아	141

01 초등학교

인천새말초등학교(인천남동초등학교2022)	07
인천부내초등학교	11
인천예송초등학교	16
인천석정초등학교(인천주원초등학교2022)	21
인천도화초등학교	26
인천양도초등학교(대월초등학교2022)	30
인천소래초등학교	34
인천부내초등학교	38
인천송원초등학교	42

01

인천새말 초등학교

인천남동초등학교(2022)

● 강수연

천천히, 조금씩 함께 티우는 민주주의 새싹! 학생자치

♥ 학교에서 시작하는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

민주시민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받는 대상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이 비슷하겠지만 학생들이 자기 삶과 관련 없는 문제에 관심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권, 평화, 생태환경 교육 등 공동체 문제를 학생의 삶과 연결 짓고, 해결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참여하며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선 학생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학교와 연결 짓는 것이 가장 수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시작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부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학생자치는 자기 자신, 자기 학급, 자기 학교, 학교 주변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이며, 대부분의 활동 곳곳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생자치 업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면서 의미 있었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학생자치활동으로 민주시민 역량 키우기

올해는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참 바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은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는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계속 의문을 갖고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렇게 학생들과 한 해를 보내고 돌아켜 보니, 민주시민교육의 답이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생님의 민주시민교육의 과정을 살펴보는 시도가 민주시민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 사례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학생자치활동과 관련지어 실천할 때 학생의 참여가



| 고운 말 사용 홍보를 위한 학급 방문



| 학생자치법교육 프로그램

요구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활동 중간중간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에 대해 배우기 전에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은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그 활동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할 활동을 정합니다. 이렇게 함께 결정한 활동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학생과 교사 모두 지치고, 때때로 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함께 결정한 활동이기 때문에 정말 해결하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지금 하는 활동에 대해 두 팔 들고 못 하겠다고 항복하는 일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조금씩 천천히 책임감, 협력 등 민주시민 역량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 학생자치활동을 해나가면서 만난 가장 큰 장애물은 교사의 욕심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교육적 의미를 덧붙이고 싶은 교사의 욕심은 그 행사의 목적인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조금 덜 즐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욕심을 줄이고, 학생들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고운 말을 사용하자는 주제로 학급에 방문해서 홍보할 때, 직접 홍보 발표 자료도 만들고, 발표 연습도 스스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학생들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학급 규칙 및 교육 처분 만들기 활동을 좀 더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선생님께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인데 학급 자치 규약(학급 약속) 정하기와 교육 처분 제정 절차 등 이론을 배우고 실습까지 강사님이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교육 과정은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저는 학생자치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학급 특색에 맞게 진행이 가능하며, 특히 고학년 학급에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년 새 학년이 시작될 때 신청을 받으니 관심 있는 선생님께선 직접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 학생 참여형 학생자치실 구축하기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많은 활동을 했지만, 제 생각에 가장 민주시민 역량이 길러졌다고 생각되는 활동은 바로 학생자치실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공모의 시작부터 학생자치실이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그 과정에 느낀 점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육청 사업 중에 학생자치 강화를 위해 학생자치실 구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모 사업이 그렇듯 제가 하고 싶다고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담당 교사였던 저는 이 공모 사업 내용을 접하고 여느 교실과 다름없었던 기존의 학생자치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 학교가 선정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과 지속해서 회의를 해나가야 했기 때문에 사업 공모 초반부터 학생들의 의

견을 수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학생자치실 공간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가 학생자치실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처음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존의 학생자치실은 사용하지 않는 사무용 가구들이 가득해 일반 교실보다 삭막한 분위기의 이미지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공간은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곳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공간 혁신에 대해서 그저 유행 교실을 공사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저는 학생자치실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공간이 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공간 혁신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주변 선생님께 자문도 구하고, 관련 연수도 들으면서 학생자치실 공간 혁신에 대해 작지만 소중한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공모 사업이 확정된 이후는 회의의 연속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을 그려나가는 것이 한 번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기존의 공간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고,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생각하는 학생자치실의 이미지에 대해 의견을 얘기했고, 그 결과 ‘자신들이 기획한 행사 준비를 할 때 활동하기 편하면서 따뜻한 느낌의 힐링 공간’으로 최종 공간의 목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각자 생각하고 다음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때 ‘인사이드 투어’의 필요성을 느꼈고, TF팀을 꾸려 다른 학교의 학생자치실이나 공간을 보고 함께 공유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 4~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든 후 인사이드 투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교사만 인사이드 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이때 학생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인사이드 투어 때 찍은 사진은 TF팀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처음에 회의했던 공간의 이미지를 조금 더 구체화해보고, 그다음 회의 때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TF팀 학생들만 참여하게 했고, 각자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여기서 학생자치실에 있으면 좋을 인테리어 소품이나 책상, 분위기 등을 정리하고 전체 회의에서 다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TF팀이 정리한 자료를 공유하고, 나머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할 공간이라 더욱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최종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앉아서 편하게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 좌식 공간(평상)
- 방과 후 회의나 활동할 때 기분 좋은 공간 → 따뜻한 조명, 식물
- 서로 바라보면서 편하게 회의할 수 있는 공간 → 둥근 모양 테이블, 편한 의자



| 학생자치실 공간 구축 전



| 학생자치실 공간 구축 후

위와 같이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이후에 TF팀 회의에서 또다시 구체화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좌식 공간은 교실의 어느 정도 크기로 하면 좋을지, 좌식 공간에서 사용할 탁자의 모양, 색깔, 사이즈, 개수 등등 각자 조사해서 의견을 나눈 뒤 몇 가지 안을 결정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은 다시 전체 회의에서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갔습니다. 이런 수많은 회의의 결과, 아래와 같은 공간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들이 자기 삶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수록 관심이 높아지며, 몰입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의 시작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부터가 아닐까요?

♥ 더 많은 선생님과 함께 배움을 위해

학생자치회와 함께 학교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학급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학급 단위 진행이 더 수월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 따로 정기 회의와 활동 준비, 실천까지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수업과 관련지어서 학급에서 진행된다면 따로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고, 한 번에 많은 걸 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그 시작이 의미 있는 것이며, 비교 대상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박수받을 만한 일이니까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 사례를 공유하는 이유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거창하게 생각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희망을 드리고, 용기를 내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우리 함께 민주주의의 새싹을 틔어 봅시다!

02

인천부내 초등학교

● 구소희

이상이 일상이 되는 헌법과 인권교육

♥ 학생 시민이 성장하는 공간, 학교

‘학생’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저마다의 경험을 기준으로 ‘교복, 교실, 학교, 수업, 시험, 입시, 학원, 친구, 떡볶이, 운동장’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학생을 ‘아직 어린, 미성숙, 수동적, 교육의 대상자’라는 의미를 저도 모르게 더하여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인 교사나 부모는 완전히 성숙한 존재인가?’, ‘미성숙한 학생들은 교육의 대상자로만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필자는 40대 중반의 22년 차 교사입니다. 완벽한 성숙은커녕 여전히 부족하며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호흡하고 대화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수업 과정에서 교사도 학생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일상입니다. 학생들이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다고 해도 그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발달 단계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이 다르기에 교사가 계단을 만들어주고 학생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미성숙을 생각하며 동시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장 가능성과 능력,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학생은 이미 온전한 인격체이며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우리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키워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가 지향했던 민주시민으로서의 상(像)이 개인적으로 인성이 훌륭하거나 법을 잘 지키는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러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시민교육’을 말하며 ‘공중(The Public)으로서의 시민 상’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삶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동의 결과가 갖는 의미를 알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모습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어린 세대들에게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규칙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인성과 준법정신도 시민성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성과 준법만 강조할 때 사회적인 환경이나 구조를 탐구하고 비판 정신을 갖고 행동하는 시민성이 아니라 순응하는 모습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이희성 외(2020). 민주학교란 무엇인가?. 교
육과 실천)

민주시민이란 자신과 공동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시민은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토론하여 해결해 나갑니다. 즉, 민주시민이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타인을 존중하
며 공동체의 일을 함께 모여 토론하고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와 만나는 민주시민교육

사회과는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과’입니다. 바(Barr, 1977)는 사회과가 ‘시민성 전달, 사회
과학, 반성적 탐구’ 유형으로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 ‘반성적 탐구로서의 사회과’의 접
근이 능동적인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가장 근접하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과 수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역량은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입니다.

5학년 1학기 사회과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단원을 재구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이다.

인성교육, 순응과 준법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넘어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는 학생들의 실제적 참여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5학년 1학기 2단원
‘인권과 정의로운 사회’의 수업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학기 초 학급 세우기 활동과 사회과 수업의 연계를 위해 2단원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인권
을 존중하는 삶’과 ‘법의 의미와 역할’은 3월과 4월에 수업을 진행하였고, ‘헌법과 인권보장’
부분은 학기 말인 6월 말부터 7월까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면 관계상 학기 말에 실시했
던 ‘헌법과 인권보장’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표 1]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2-(3) 헌법과 인권보장’ 단위 재구성 사례

차시	학습 주제		재구성한 수업 내용 및 자료	비고
	재구성 전	재구성 후		
1~2	.	인권 단위 정리, 헌법 단위 도입	-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탐색 -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에 필요한 것 - 발표 및 토의 활동	차시 투입
3	헌법의 의미	헌법의 의미 알아보기	- ‘이오덕, 우리 헌법’ 읽고 이야기 나누기 - 각국의 헌법 1조 비교하고 추구하는 가치 탐색	
4~5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 5·18동화 ‘이름 도둑’ 읽고 이야기 나누기 - 5·18과 미안마의 민주화 운동의 공통점 찾기 - 5·18과 미안마에서 인권이 손상된 부분 찾기 -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역할 토의하기	
6~7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 국민의 기본권 알아보기 - 국민의 권리 알아보기 -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다지기 활동	
8	바람직한 권리와 의무의 관계	공중(The Public)으로서 의 시민 개념	- 민주주의의 가치, 국민의 권리와 의무 탐색 - 공중으로서의 시민상 알아보기 -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의 의미 알아보기	
9~10	단원정리	사회참여활동 계획 수립	- 미안마의 민주주의 참여 활동 계획 수립 - 인권, 평화, 생태 관련 활동 계획 수립	

| 차시별 수업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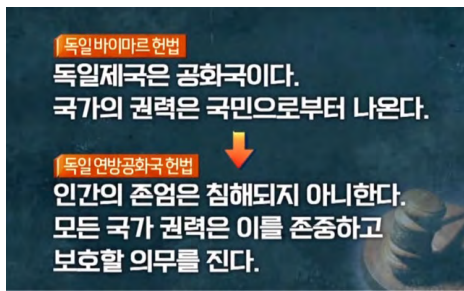
가. (인권 단위 정리 및 헌법 단위 도입)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EBS 미래교육 플러스에 소개되었던 서울사대부설초 교사 이서영의 수업아이디어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넉네임 ‘암것도몰라도당당하게건기’님의 그림 자료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배를 타고 태평양의 섬나라를 향해 떠납니다. 학생들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모둠별로 회의를 통해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둠 활
동으로 학생들은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깊이 있게 탐색하였습니다. 이를 발표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이 실현되는 조건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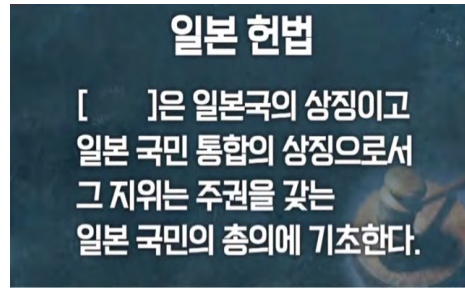
3월에 인권을 공부하고 이후 다양한 학급 활동으로 인권을 생활에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6월에 다시
정리하며 학생들의 응답에 큰 차이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3월에는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인권
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 등으로 교과서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에 비해 6월에는 ‘인권이란 필통이다. 왜냐하면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게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인권이
란 색깔이다. 한 가지만 있는 것보다 다양하게 있는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이다.’, ‘인권이란 종이이다. 한
데 뭉쳐지면 단단하지만 존중하지 않으면 찢어지기 때문이다.’ 등 학생들이 인권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
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정리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 헌법의 의미 알기

‘내 손안에 헌법(이오덕)’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다 읽을 수 없어서 수업마다
조금씩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 1조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1조를 비교
하며 살펴보았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고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켰으며 유대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독일은 인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헌법 1조를 수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 이외에도 프랑스, 일본, 중국의
헌법 1조를 살펴보면 각 나라에서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탐색하였습니다.



| 바이마르공화국/독일



| 일본

다.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

학생들의 공감을 위해 5.18 동화인 ‘이름 도둑’이라는 동화를 함께 읽었습니다. 5.18과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공통점과 운동 사례에서 인권이 손상된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헌법이 있음에도 인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의 역할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화 1987의 일부를 보고 대통령이 ‘헌법 보호(호헌)’를 선언하였는데, 시민들이 ‘호헌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났습니다. 헌법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헌법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으므로 시민이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라.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이오덕 작가가 쓴 ‘우리말로 쉽게 읽는 내 손안에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부분을 찾아 함께 읽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과서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미리 읽어 오도록 하여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 터라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가 함께 있는 이유를 알아보고 기본권과 권리 다지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급 회의를 통해 우리가 학급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의무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 단원 정리학습, 사회참여 계획 수립하기

단원 정리학습을 하며 인권·평화·생태 등과 관련한 사회참여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로서 인권과 평화를 위해 미얀마 민주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국어과와 연계하여 함께 읽은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책을 마무리하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기후 위기는 국어과와 관련하여 토의 토론 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 마지막 주 두 주간 캠페인 활동하기, 영상 만들기 등의 활동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며 전면 원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인권과 평화 관련 미얀마 관련 활동과 기후 위기 관련 사회참여 활동을 진행된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상이 일상이 되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합의된 민주시민의 상을 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민주시민인가?’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우리의 교육 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에 있습니다. 살아오며 스스로를 이미 성숙한 시민, 교사로서 성실하게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생각했던 민주시민은 개인적인 인성이 좋은,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순응하는 ‘소극적인 민주시민’ 상이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공부하고, 지향해야 할 시민상을 꿈꾸고 교실 안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실에서 함께 활동을 하며, 같은 활동이라도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전개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극적인 시민상을 지향하고 있었을 때는 학생들과 개인적인 인성, 약속을 지키는 것, 타인에 대한 배려 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상을 지향하고 있는 지금은 개인적인 인성보다는 ‘공공의 합의로 만들어가는 것, 함께 만든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의 가치, 타인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존중,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학급은 집단입니다. 개인이 모인 집단이지만 그 에너지와 역동은 단순히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집단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교사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상을 갖고 지향하며 실천해 나가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다면, 교실에서 학급의 문화(삶)와 수업(삶)으로 민주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입시가 교육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우리 교육에서, 초등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일 뿐 아니라 삶의 양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생활교육뿐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을 지도하므로 교과 재구성을 통해 깊이와 의미를 더해 아이들과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수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교육이나 수업 방식 등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배움을 삶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업무’, ‘진도 부담’ 등 실천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의 모든 활동의 기준은 ‘학생의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존중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성으로 함께 만들고 지켜나가는 민주시민교육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소속감과 자존감을 심어 줍니다. 의미 있는 곳에 소속되어 기여하는 경험,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했더니 나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오는 경험 등 아이들의 성장에 자양분이 되며 실천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03 인천예송초등학교

● 김세왕

질문으로 돌아보는 '민주학교' 3년의 기록

■ 민주학교 3년의 흐름

- ↳ 교육과정(동아리), 학생자치(학생회), 학교문화(교육공동체 자치)
- ↳ 배움과 참여 활동, 연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 민주학교 운영 비전

- ↳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속의 시민 기르기 · 만나기 · 성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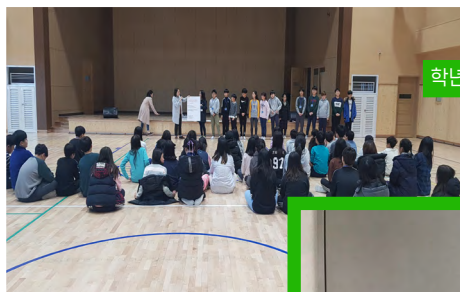
■ 민주학교 활동 내용

- ↳ 교육과정 속 민주시민교육(온작품, 토의토론, 예술-미술, 연극, 음악 등)
- ↳ 학생참여활동 및 동아리(봉사, 논쟁, 사회 참여)
- ↳ 학생자치(학급, 학생회)
- ↳ 교사자치(각종 위원회, 의견수렴, 교직원 회의 규정 만들기 등)
- ↳ 학부모자치(학부모회 구성, 행사계획 및 진행, 선물 나눔 등)
- ↳ 교육공동체회의(온라인 협의, 설문조사를 활용한 계획 수립 및 평가, 아이디어 모집, 다큐프라임 시민의 탄생-교육과정 속 운영)

【 민주학교 3년의 기억 】

1년차

교육과정 재구성(온작품, 예술 활용-미술/연극 등), 학생자치활동(학년약속, 놀이터 약속), 사회참여활동(봉사동아리 연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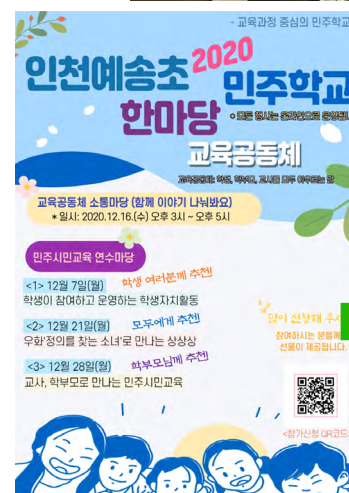


학년약속 정하기

우리 학교에서 하는 사회참여활동 (화장실 에티켓)



우리 학교에서 하는 사회참여활동 (화장실 에티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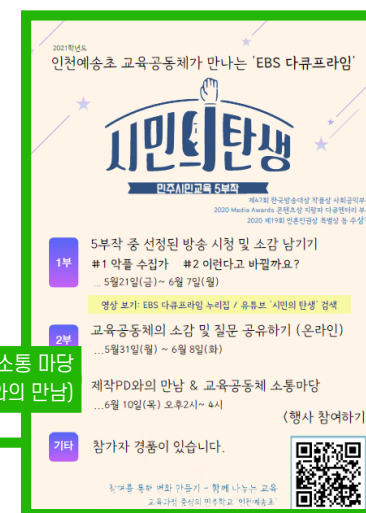
2년차

교육과정 재구성(활동중심), 교육공동체 마당(참여, 교육, 소통)

2020 예송초 민주학교 한마당

3년차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교육공동체 소통 포함), 학생자치활동(캠페인, 회장단 공약 등)



교육공동체 소통 마당 (다큐프라임 PD와의 만남)

교육공동체 소통마당 3년차 기록

- 책 소개 마당
- 학교 운동장 개방
- 간이 도서관 및 컴퓨터 만들기
- 견기 프로그램 운영
- 음악수업 및 예술 수업 활성화
- 나, 너, 우리 (6학년 -> 1학년 학생 지원: 형남반)

- 웰컴벨(출석 알리미)
- 학부모 독서동아리 운영
- 방송실 사연함 설치
- 직업 체험 교실 운영
- 민속놀이 체험교실 운영
- 학습준비물 수시 구매
- 전교학생회장 선거일 변경

학교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

📖 돌아보기

민주학교는 존중을 바탕으로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이라는 시민성을 담아 교육 광장(학교)에서 교육 주체(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나고 성장하며 시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참여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주권자로서 평화와 인권 등의 주제를 교육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배운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덧붙여 교육 주체별로 모임이 활성화되어 함께 공부하면 좋을 주제들을 선정하여 교육공동체 회의로 소통하고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하고 나름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고, 공동체의 참여도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육과정 운영은 교사들의 역할이기에 교사별, 학급별, 학년별로 이미 여러 주제가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지만, 수업에 대한 결과와 고민을 함께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업무에 서투르고 아직 아는 게(경험과 지식) 많이 없어서, 혹은 민주학교가 처음이라, 아니면 코로나 때문일지 변명을 해보지만 아쉬움이 큼니다.

💚 질문으로 돌아보는 민주학교

교육과정이 특별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문화가 민주적인가? 민주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위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민주학교를 경험하였더니 멋진 시민이 되었는가? 모두가 동의하는 평가 기준이 있고, 지금 바로 측정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말하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학부모는 민주학교 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었는가? 학교의 존재 이유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사회에서 시민됨이 될 경험과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교사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하면 잘살게 되는가? ‘잘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그전의 모른 척하던 자신의 삶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경험이 진로계획에 영향을 주거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민주학교’는 시도하고 질문하는 학교입니다.

본교는 행복배움학교가 아닙니다. 행복배움학교를 혁신적인 학교라는 설명으로 대체한다면 본교는 일반적인 학교입니다. 하지만 교육과정 속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제나 활동을 하는 것이 색다른입니다. 주권자 교육, 평화-역사교육, 인권교육 등을 위해 자료를 구입하고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덧붙여 다양한 방식의 교육공동체 회의를 시도하고 교직원 회의 규정 제정, 사회참여활동과 논쟁 수업 동아리를 봉사활동과 연계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것만으로 ‘민주학교’로서의 특별함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복배움학교 혹은 다양한 협의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일상화된 학교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민주학교’라는 말은 학교 내 운영하는 교육주체의 특별함, 교육청 배부 예산 지원, 소속된 교직원들에게 ‘민주적이어야 한다.’라는 교육의 지향점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방법 모두 민주적이라는 것,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는 점, 요구와 요청에서 변화를 위한 시도를 내가 먼저 해본다는 것을 담고 있는 저 타이틀이 어떻게 3년 동안 학교와 함께 변화를 만들었지, 그리고 중심과 주변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업무담당자’의 분주함과 교사들의 고민이 보입니다. ‘민주학교’라는 말을 다른 사업들이 그랬듯이 짧은 기간의 이벤트로 판단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님의 다양한 연수와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활동,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생각이나 활동 차이가 느껴집니다. 부담감과 함께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업무로 허덕이는 교사들도 눈에 띕니다. 말은 거창했지만 실제 교육활동에서 큰 차이가 없는, 오히려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수업 방식과 태도가 보입니다. 한편으로 학교에는 민주시민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들립니다.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기왕이면 홍보를 열심히 하여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좋을

텐데 하는 조언도 들립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알면서도 실행하기 어려웠던 당연한 말에 고민하는 담당자가 보입니다.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눈에 띕니다. 소통게시판, 학생참여 자치계획수립, 칭찬릴레이와 환경사랑 걷기 캠페인, 감사 편지쓰기와 지구와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급식 예절 이벤트 등이 보입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부모회가 보입니다. 어린이날, 개교기념일, 크리스마스 등에 진행한 이벤트와 모임이 준비한 선물이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희망하는 부모님의 열정이 보입니다. 반면 냉소 섞인 교육과정 설문 평가 응답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고민과 질문을 한없이 던져주는 전화, 학생들의 갈등과 그 너머에 보이는 부모님의 걱정도 보입니다. 교육활동을 법대로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평가자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도 보입니다.

현재 인권 및 학교자치 관련 조례, 여러 포럼과 연구 결과 등으로 민주시민교육 성과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학교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금, 저는 민주학교란 무엇이었는지 돌아봅니다. 학교는 어떻게 변화하고 앞으로 교육은 또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 하는 질문도 해봅니다. 민주학교는 해보는 학교, 파일럿(pilot), 즉, 더 많이 도전하고 실패하여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길을 만드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 해봄’이라는 말로 민주학교를 정리해 봅니다.

💚 민주시민교육의 희망(교육 - 연대 - 사회)

교사는 시민으로서, 교육의 전문가로서 주제와 내용, 방법, 교육과정 구성에 자율성을 갖습니다. 덧붙여 큰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같습니다. 어떻게 수업할까? 평가는? 미래를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 학생성장을 위한 과정중심평가는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지? 학교업무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는 무엇이고, 어떻게 교육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어떤 성취기준을 활용하면 좋을까? 사회에서 원하는 교육의 모습과 현재의 상태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사회와 함께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교육을 위해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할까 등입니다.

사람 사이에 연대가 필요하듯 사회, 법, 시민,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과정, 공간 등도 연대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고, 함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도하며, 개성과 자율성을 잃지 않는 건강한 개인,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만든 희망적인 공동체를 상상합니다. 교육을 통하여 평생에 걸쳐 만들어 가는 역사의 시간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사회, 인간에 대해 더 알아야 함을, 아는 대로 사는 게 쉽지 않고 사회가 내 마음 같지도 않음을, 겸손해야 할 까닭을 시간은 알려주었습니다. 때로 삶이 조금 불편해진 듯한 때도 있지만 호기심과 생각들이 연대하는 동료를 이어주었고 함께 배우면서 민주시민교육이 참 해

봄직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영향으로 현재의 좋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면 보답해야 할, 연결자로서 역할이 작지 않습니다. 민주학교 3년 동안의 경험과 배움들이 누군가의 민주시민교육에 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매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자리와 인연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저와 만나는 누군가, 혹은 저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이 모여 역사적인 흐름은 안 되더라도 미풍처럼 적당히 시원한, 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04

인천석정 초등학교

인천주원초등학교(2022)

● 박원석

우리가 마을지킴이!

학생들에게 주권자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오랜 시간 고민해 왔습니다. 고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단어인 민주시민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주시민이란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의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주권자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면 주권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여를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특정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직접 학생들이 녹아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끝에 3가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문제는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해결 과정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은 문제 해결에 흥미를 느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극성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문제는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감하고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해결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여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익숙하게 느낄 수 있고, 이미 불편함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매우 큼니다. 셋째, 문제는 학생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때 학생들이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문제가 어디에 많을지 고민하다가 생각한 활동이 ‘우리가 마을지킴이’ 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마을의 문제는 구체적이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1모둠 】

해결과정	■ 창체 (자율) 학급 자치 활동 ■ 소요기간 : 6월 1주 ~ 7월 3주 ■ 6-1-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문제확인	□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너무 더러웠고, 이상한 냄새도 났다. □ 위험한 시설물이 있다.
원인 및 상황파악	□ 누군가 한번 버리기 시작하니 계속 버려서 쓰레기가 쌓인다. □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데 한쪽이 깨져 있고 날카로워 많이 위험한 상황이다. □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이다.
해결방안 탐색	□ 청소가 필요하다. ↳ 양이 많아 우리가 청소 어렵다. ↳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도움을 요청한다. □ 위험한 시설 철거를 구청에 요청한다. □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실천과정	- ○○구청 종합민원실에 민원 신청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결과 및 향후 계획	■ ○○구청으로부터 홈페이지 답변을 받았다. 1.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주신 ○○로○번길 ○○기업 앞 이면도로 청소 건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앞 유리거울은 2019. 9. 20. 정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사항이 있으시면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담당(☎○○○-○○○○)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의 거울 철거 및 청소 상태 확인하고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캠페인을 월 1회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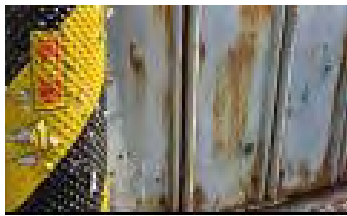
| 문제 확인하기



| 깨진 거울



| 무단투기 쓰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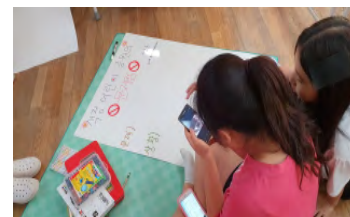


| 해결 사진

TIP 학생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때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시나리오에는 전화한 목적을 분명하게 넣었고, 담당자분에 대한 예의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 연습을 진행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청에 처음 전화를 하기 때문인지 평소 말하기를 잘하는 학생도 많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연습을 하고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 2모둠 】

해결과정	■ 창체 (자율) 학급 자치 활동 ■ 소요기간 : 6월 1주 ~ 7월 3주 ■ 6-1-1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문제확인	□ ○○어린이 공원의 놀이시설이 안전하지 않다.
원인 및 상황파악	□ 놀이터 시설이 보기에 낡고 오래되어 보인다. □ 볼트가 빠져나온 곳도 관찰된다. □ 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해결방안 탐색	□ 놀이터 시설에 표시 되어 있는 ○○구청 공원 녹지과에 전화로 문의한다.
실천과정	□ ○○구청 직원분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 답변 :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그 쪽으로 민원 배정을 해놓을 것입니다. □ 학생들 이틀 후 확인 전화를 하였는데 담당자분 전달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 학생들 당황하였지만 바로 홈페이지로 민원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민원 신청 하였다.
결과 및 향후 계획	■ ○○구청으로부터 홈페이지 답변을 받았다. 1. 귀하의 민원(신청번호 1○○-19○○-352○○○)과 관련하여 노후 시설물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검사는 지난 19.06.27.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합격증 사본은 19.07.02(화) 부착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은 월 1회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현장의 시설물 정비 및 점검표시 부착을 확인하였고, 지속적으로 놀이시설을 관찰 하겠다.



| 문제상황판 작성



| 문제상황



| 합격증 없는 놀이터



| 해결 사진

TIP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있는 문제상황판을 작성했습니다. 실천의 과정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과정이 적혀 있어 반성 및 평가 시 도움이 됐고 학생들의 성취감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스스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이 세상의 소중한 존재로 그 역할을 자각한 우리 학생들이 매우 대견스럽고 기뻐했습니다. 학생들의 힘으로 직접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점점 더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교사인 저도, 이번 활동을 통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으로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문제를 찾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습니다. 평상시 연습하거나 익숙한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낯설어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혹 이해했다 치더라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목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실제 생활에서의 불편함에 집중해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학교 주변 마을을 다 함께 돌아다니며 문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했습니다. 더불어 초등학생들이 구청에 민원을 신청하여 해결한 사례를 담은 뉴스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학생들이 실생활의 문제에 접근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탐색했습니다.

둘째, 자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참여이고, 이는 반드시 자율성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적절한 균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자율성에 치중하면 프로젝트의 방향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고, 교사의 개입이 지나치면 자율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자율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 접근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제된 방향 제시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참여하지 않거나 활동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교사의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편이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실천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른들의 편견 및 비협조가 학생들의 활동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무시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부분 해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넷째,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참여의 기쁨, 효용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이끌어 낸 여러 가지 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더 발전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의 참여로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그것으로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지닌 엄청난 힘을 새삼스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민주적으로, 역동적으로, 포용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이 바로 주권자로서의 자발적 참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실제 활동을 경험한 소감으로 이야기 몇 개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들 활동소감】

- 구청에 전화를 처음 해봐서 몹시 긴장되고 떨렸다. 하지만 몇 번 연습하니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 우리 마을의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민원을 올릴 때 어른들만 올릴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우리들도 올릴 수 있도록 바뀔면 좋겠다.
- 우리가 찾은 문제점이 해결되어 있을 때 너무 신기했다.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05

인천도화초등학교

● 서정래

커뮤니티 맵핑을 활용한 학교 문제 해결하기

평소 학생들을 생활지도 하면서 느낀 점은 생활지도는 생활교육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활지도의 방식이 일방적이고 교사의 문제가 아닌 학생만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지시하고 학생은 따르는 방식의 연속이 그동안의 생활지도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고민도 없습니다. 교사의 신념만 있을 뿐입니다. 동 학년 교사의 신념이 모이면 동 학년 전체에게 지시되고 학생들은 따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어떤 배움도 없습니다. 지시를 따르는 학생은 모범학생 또는 착한 학생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유를 묻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사 또한 관리자나, 선배 교사의 지시에 따르기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생활지도 이야기는 학생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전달하기만 합니다. 그 어떤 이유나 문제에 대한 토론 과정 없이 일방적인 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전달받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선배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배 교사에게도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을 교사의 학생 시절로 돌아가 보면 교사는 한 번도 생활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그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행하거나 하는 척하거나 둘 중 하나였을 뿐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학업을 마친 교사는 당연히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배운 방식 그대로 생활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어느 누구도 생활지도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되물어보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 학년 단톡방에 ‘학급에서 한 번 잔소리하자’는 후배 교사의 멘트와 함께 학교 스탠드에 쓰레기가 널려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의 생활지도 방식으로 보면 방과후의 학교 쓰레기 문제는 교사의 잔소리로 해결될 수 있다는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동 학년 교사 어느 누구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학교 주변이 쓰레기로 더러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잔소리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학년 부장인 저 또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런 패턴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교사의 잔소리(생활지도)가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으로, 학생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과정을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은 교사와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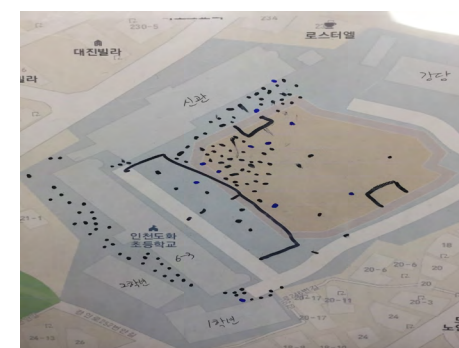
먼저 학생들과 동 학년 선생님이 단톡방에 올린 문제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본 소감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의 잘못인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버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버린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학교, 가게, 마을, 회사, 국회 등은 잘못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왜 그런 걸 물어보냐는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모둠별로 조금이라도 잘못

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기관을 최대한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둠별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왜 그 사람들의 잘못이 있는지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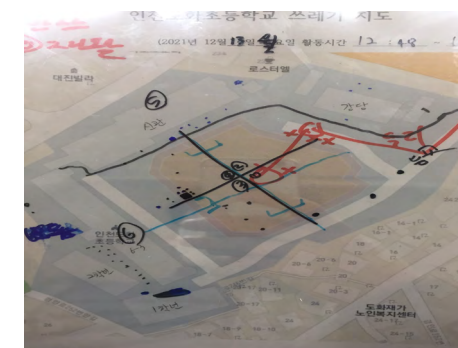
다시 전체의 의견을 모아 칠판에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둠에서 찾은 잘못된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순서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둠별로 다시 토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어떤 모둠은 선생님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교장선생님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모둠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학생들이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은 교장 선생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둠은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모둠도 있었습니다. 방관자로서 아이들의 모습을 못 본 척하고 스스로 버린 적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배움터 지킴이의 잘못을 지적한 모둠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이들과 여러 번 토의 후에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는 잘못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교장선생님을 지목한 모둠은 지금 당장 면담을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면담 질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는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쓰레기가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지 어디에서 어떤 쓰레기가 나오는지 조사해 보면 좋을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했던 모둠은 스스로 봉사동아리를 조직해서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자 학생들은 봉사동아리를 조직하고 참가 희망을 받아 당장 오후에 남아서 쓰레기를 직접 줍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봉사동아리에 아무도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의 물음에 아이들은 자기 모둠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으니 신청자가 없으면 자신들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봉사동아리의 활동이 즐기만 하는 것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아이들은 다시 모둠으로 돌아가 토의한 뒤 캠페인도 동시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 맵핑을 활용한 쓰레기 지도 1



| 맵핑을 활용한 쓰레기 지도 2

교장선생님에게 면담하러 가겠다는 모둠과 자기 스스로 치우겠다고 한 모둠에 ‘쓰레기 지도’를 만들어보라고 했습니다. 학교 지도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여 그 위에 OHP 필름을 씌우고 학생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서로 영역을 나누고 일주일간 쓰레기를 주운 곳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쓰레기 지도 만들기 활동을 3일째 할 무렵, 다른 모둠에 속하던 아이들이 남아서 자기들도 쓰레기 지도 만들기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의 반 이상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지도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활동을 하며 학교에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쓰레기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아이들에게 버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잘 듣지 않는다는 것에 속상했습니다. 속상해 하는 학생들을 위로하며 저는 학생들에게 다른 전략을 사용해 보길 권유했습니다. 우리 반에는 제가 얻어온 물통이 많아서 그것을 캠페인에 동참하는 아이들에게 나눠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물통에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그려서 캠페인에 동참하겠다고 서명하는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직접 나눠주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이름만 적고 나중에 교실로 배달하였습니다. 복지사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복지실에 물통을 두어 아이들이 복지실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 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활동 사진



| 캠페인 참가자 선물(캐릭터 물병)

처음 이 활동을 할 때의 걱정은 마음씨 착한 소수의 학생이 책임감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는지 걱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반에서 존재감을 잘 드러내지 않는 착하고 조용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적극적인 쓰레기 지도 만들기 활동은 제 걱정과는 다르게 학급에 많은 친구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수의 학생이 다수의 학생에게 영향을 준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활동에 흥미를

가지지 못한 친구들까지도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하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외면받았던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곳곳에 붙이는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홍보 포스터가 새로운 쓰레기가 되는 문제와 홍보 문구가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 왔던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다시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는 성숙한 시민의 본보기로 발전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06

인천양도
초등학교

대월초등학교(2022)

● 장형진

학교자치를 열어나가는
우리 학교로 어서오시겨!

♥ 어서오시겨! 양도초등학교

‘어서오시겨’는 강화도 지역의 방언으로, 보통 옛날 강화도 지역에서는 말 끝부분에 ~‘겨’를 붙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위주로 사용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강화도의 지역 특색을 드러내고자 할 때 종종 표현됩니다. 본교는 강화도 양도면 위치한 6학급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2021학년도 전교생 72명으로 ‘자연의 친구, 양도’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 운영

강화도 지역의 여타 학교에서 많이 운영되는 계절학교를 본교에서는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에 맞추어 4회 운영합니다. 1년에 4번, 각 1주일 기간 동안 계절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3월 학년 시작 후 학생들이 수업에 익숙해질 무렵인 4월 중순부터 봄 계절학교 준비를 시작으로 5월 풀빛 계절학교, 6월 말 물빛, 10월 하늘빛, 12월 눈빛 계절학교를 운영합니다.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본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위탁교육 형태로 신청을 받아서 함께 참여했다고 하니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야 했고,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지지도 중요하며, 본교 교직원들 사이의 협의도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코로나 이후로 교육 현장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듯이 본교의 교육과정 운영도 이전과 다른 내용과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라 모든 학생이 매일 출석 등교할 수 있었기에 점차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가. 지역사회↔학교. 지역사회 톺아보기

‘톺아보다’는 ‘더듬어 가며 살살이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입니다. 매년 계절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편의상 거의 같은 체험 장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방역 수칙상 전교생이 한 번에 모두 같은 장소를 방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장소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화도 지역의 새로운 장소나 인물의 탐방과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 화문석/도예/숯/모내기 체험으로 명칭은 유사했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색다른 체험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나. 교육과정↔학생. 동아시아 시민교육과의 연계 강화

강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학생, 학부모님의 우리 마을, 고장에 대한 관심은 남다릅니다. 마을과 고장,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확장하여 인천, 대한민국,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바로 ‘동아시아 시민교육’입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 다모임 활동을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시작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 음식, 놀이, 언어 등을 주제로 학생 두레별로 탐구하고 체험해보는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마. 다모임 일정 및 주요 활동 내용		주요 활동 내용
순번	일 시	
1	3.4.목	학급 규칙 만들기. 다모임 조직 및 다모임 운영 방법 협의
2	4.8.목	『생각, 토의』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 우리는 동아시아 시민- 동아시아 시민교육 이해, 동아시아 각 나라 이해, 동아시아 각 나라의 특징 찾아보기, 조깅/보조장 선출, 구호 정하기
3	5.6.목	『생각, 토의』 동아시아의 사람들은 어떻게 여가시간을 보낼까?~ 동요, 놀이, 동아시아 국가의 '동요' 백워보기-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가사와 어울리는 율동 만들어 볼러보기, 동아시아 전통 놀이 알아보기, 놀이 기구 만들기, 전통 놀이 체험하기
4	6.3.목	『생각, 토의』 우리 고장의 자연생태 둘러보기, 친환경 생태도시 우리 고장의 미래 모습 상상하기 우리 고장 둘러보기, 우리 고장의 산, 강, 바다, 나무, 꽃 등 살펴보기. 환경, 문화와 생태, 자연, 생태화하기, 동아시아 대표 생태도시가 되기 위한 이해

| 동아시아 시민교육 연계 학생 자치 계획

| 월별 학생 다모임 동아시아 토의 주제

다. 교직원↔교직원. 교직원 다모임 활성화

외부 체험활동이나 강사 활용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 보려는 노력도 하게 되었습니다. 본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교직원 다모임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교장, 교감 관리자를 포함하여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데 이전에 이루어진 계절학교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이김치 담그기, 천연 비누 만들기, 쥐불놀이, 메주 띄우기 등의 활동을 교직원 모두의 협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라. 학부모↔학교. 디지털기기,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

본교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였지만 각 교실 무선 와이파이 연결 완비, 학생 1인 1패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HW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발표하는 등 여러 교육활동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디지털교과서의 실감형 콘텐츠(VR, AR, 360°영상)를 활용하여 가상 체험을 할 수 있었고, 교육활동 결과물(활동 모습 사진 등)을 위두랑 등의 플랫폼에 올려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교육활동 모습을 학부모님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었고, e알리미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았기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부모님의 지속
적인 관심과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 학생↔학생. 대표자 회의를 통한 소통

코로나 이전에는 모든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함께 다모임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교생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 다모임 활동은 두레별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두레별 두레장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취합하였습니다. 결정해야 할 사항은 먼저 각 두레장이 두레원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았고,
이후 전교 회장단과 함께 최종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소개 내문내답 이벤트, 나
눔장터 운영 등을 두레장과 전교 학생 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운영했습니다.

♥ 우리가 함께 만드는 동아시아 문화- 내문내답 이벤트 활동 실시

1학기 매월 1회 학생 다모임 활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지리, 환경, 음식, 언어 등 문화를 이
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학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동아시아
와 관련하여 문제를 만들고 서로 풀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두레별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했고,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 소개, 내
문내답 이벤트’ 활동을 운영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문화 소개, 내문내답 이벤트’는 동아시아
각 지역, 나라에 대해 자신이 배우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만들고, 대표적인 문제를
서로 돌아가며 풀어보는 활동입니다.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즐겁게 활동하고 배움과
관련하여 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작은 학교의 큰 사랑 나누기- 나눔장터 운영

본교에는 운동장 일부분을 텃밭으로 활용하여 계절별 절기에 맞게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등의 작물을 재배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해당 식물을 심고 학년별, 두레별로 돌아가며 정성껏
재배하고 수확까지 합니다. 수확한 작물은 서로 균등하게 배부하고 나누어 가집니다.

가을에는 마지막으로 배추와 무를 심고 수확하게 되는데 수확한 작물을 조금 더 뜻깊게 사
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수확한 배추와 무를 판매하여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 전교 학생회 협의회- 장터 이름 정하기



| 학생 두레별 대표 협의회- 최종 가격 결정



| 학생 나눔장터 판매 모습



|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참여 모습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두레별 의견 모으기, 전교 회장단 회의를 통
해 나눔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전교 학생회 협의회, 두레별 대표 협의회 등을 거치면서 장터의 이름과 작물의 가격을 정했
으며, 판매 홍보 방법과 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결정하였습니다. 나눔장터 운영은 본교
교직원, 학생들 주도로 계획되었지만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가정통신문과 e알리미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였고, 나눔장터 당일 많은 학부
모님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눔장터에서 얻은 수
익금 전액은 학생들이 결정한 대로 ‘Save the Children’ 단체에 기부하였습니다.

♥ 학교자치로 여는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뚜렷하지 않고 막역하게 다가옵니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대비되어 정치적 개념으로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학생, 학부모도 민
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뿐 그것을 우리 생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막역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학교에서 추진되었던 대다수의 교육 활동들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님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토대로 구체화, 상세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
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민주적 학교문화 풍토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거나 구체화, 상세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 교환과 경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활동을 왜 추진하게 되었고, 어떻게 운영하여 마무리할지 등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일은 의미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교육활동이 시작되
는 초기 계획부터 참여하게 한다면 더욱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나눔장터를 포함한 본
교의 많은 교육활동 시작은 학생들의 아이디어였고, 교직원들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 되었으
며, 학부모님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학교 교육과정 목표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7

인천소래
초등학교

● 정고은

‘스스로 학급’으로 열어나가는
우리 교실 프로젝트

♥ 3, 4학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스스로 학급

학급 단위의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스스로 학급’ 공모 공문을 보았을 때는 6학년 담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스로 학급이라는 이름도 참 좋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학급자치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매력적이었지만 업무에 떠밀려 공모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다음 해 4학년 담임이 되었을 때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치’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반, ‘아이들과 함께 ‘자치’라니 재미있겠다!’ 기대 반으로 첫 번째 스스로 학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은 기우였습니다. 용기가 생겨서 2년 뒤에는 3학년 아이들과도 스스로 학급을 꾸렸습니다. 3, 4학년 아이들과 2번의 스스로 학급을 운영하면서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친구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스스로 학급이 화려하진 않더라도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 과정과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 모두가 행복한 1년을 위한 ‘첫 만남 프로젝트’

해마다 3월 첫 주면 새 학년을 여는 활동을 합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 맺기 활동을 하면서 우리 반의 주춧돌을 쌓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우리 반 모두가 1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학급다모임 시간을 넣어서 <첫 만남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스스로 학급 첫해는 코로나 이전이라 아이들과 교실 책상을 모두 밀고 둥글게 앉아서 학급의 가치 찾기부터 약속 정하기까지 이틀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아이들 덕분에 이틀 동안 열정적인 다모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강당에 가서 온종일 신나게 공동체 놀이를 하면서 <첫 만남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스스로 학급 둘째 해의 <첫 만남 프로젝트>는 코로나 때문에 등교수업을 하지 못할 때라 원격으로 운영했습니다. 등교수업에서처럼 직접 포스트잇을 붙이는 활동 대신 멘티미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급의 가치를 나누고 우리 반 약속을 정했습니다. 원격수업의 특성상 활발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각자 진지하게 고민하고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놀이를 함께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이들과 우리 반 약속을 정할 때마다 놀라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그대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도에서 뛰지 않기, 친구한테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기, 친구가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기… ‘아이들도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

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첫 만남 프로젝트>에서 정해진 약속을 늘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복도에서 뛰기도 하지만 “어! 우리 반 약속이 뭐였지?” 하면 일단 멈춤!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교사의 잔소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에서 나온 약속들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학급자치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학급의 학급다모임은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광장이 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다모임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교사가 존중하고 우리 반이 함께 지켜나갈 때 학급자치의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역할 모둠 중심의 자치활동

우리 반은 1인 1역 대신 ‘역할모둠’이 있습니다. 모둠 자리 그대로 역할 모둠이 되는데 청소를 담당하는 모둠, 교실에 있는 학습준비물을 관리하는 모둠, 수업 시간에 준비물을 챙기고 전담시간의 숙제를 전달하는 모둠, 일주일에 한 번 학급행사를 준비하는 모둠, 뒷게시판을 꾸미고 교실 환경을 정리하는 모둠, 학급 도서를 담당하는 모둠, 복습공책과 숙제를 검사하는 모둠이 되어 1주일 동안 역할을 하고, 다음 주가 되면 한 칸씩 이동해서 다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학습과 생활을 함께하는 작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학급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3월부터 시작한 역할모듬활동이 끝나고 6주간 지냈던 이야기를 나누는 학급다모임을 열었습니다. 모듬역할을 좀 정리해주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잔소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서클 안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6주 동안 지내보니 어땠어요?”라는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김○○ : 환경모듬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다른 모듬이랑 합치는 게 좋겠어요.

권◇◇ : 어디랑 합쳐?

김□□ : 청소모듬이랑 합치면 되지 않을까?

황○○ : 그러면 청소모듬이 2개가 되는 거야?

나 : 그럼 청소는 2개 모듬이 같이 할까?

아이들 : 그건 안 돼요. 공평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넘기면서 토의했고 결국 합의점을 찾아서 3주짜리 역할모듬 체제로 새로운 3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일 년 동안 이런 과정이 3번 정도 반복되었습니다. 학년 초 제가 구상한 역할 모듬과 완전 다른 모습의 역할 모듬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학급은 교사가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꾸려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들이 쌓이면 공동

체에 관심을 갖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 학급회의를 만들어지는 ‘우리 교실 프로젝트’

스스로 학급을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 사실은 선생님이 돈이 좀 있어.

아이들 : 무슨 돈이요?

나 :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돈!

아이들 : 우와! 진짜요? 얼마요?

무엇이든 하고 싶은 열정이 넘치는 3, 4학년 아이들인데 예산까지 뒷받침되니 맘껏 해보라는 말에 눈이 동그라졌습니다. 원래도 열정이 넘치는 학급다모임이 더 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반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며칠 동안 회의하면서 결정한 주제는 ‘따뜻하고 재미있는 교실 공간 꾸미기’였습니다. 두 번의 스스로 학급을 운영하면서 두 번 모두 교실 공간 혁신이 주제로 결정되었던 것을 보면 온종일 생활하는 교실을 자신들이 좋아하는 공간,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설계도 공모도 하고, 아이들이 직접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도 검색하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자신의 계획서를 관철하기 위해 친구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국어교과서, 사회교과서를 펼치지 않아도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다수결, 대화와 타협, 소수 의견 존중 등)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지닌다.’를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학급에서는 ‘쉬는 시간에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만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빈백, 이젤보드, 놀리카펫, 인디언텐트 등을 설치해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있는 상상력 가득한 공간을 만들었고, 수업 시간에는 협동학습 공간으로도 활용했습니다. 새로 생긴 놀이 공간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아이들이 나누어 맡아서 일 년 동안 행복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스스로 학급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교실 만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맘껏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웠던지 예쁜 포스트잇과 낙서판을 만들어서 쪽지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자는 의견이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낸 아이들



| 공간 혁신 준비 과정



| 따뜻하고 재미있는 놀이 공간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교실 만들기



| 녹색 교실 만들기

이 기특하기도 하고 잔하기도 했습니다. 물을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생수를 준비해두자는 아이디어도 참 멋졌습니다.

또 하나의 공간은 창가 식물과 마리모를 키우는 녹색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아이들이 키우고 싶은 식물을 정하고 정성껏 화분에 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녹색식물이 가득하니, 교실이 따뜻하고 생기 있어졌습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될 때라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때에는 돌봄교실에 오는 친구들이 역할을 맡아서 식물을 돌보아주었고, 원격수업에서 만나면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서로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바꾼다고 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교실에 인디언 텐트가 생기고 창가에 식물이 생긴 것이 전부이지만 그 공간을 만들어 가는 과정,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아이들은 주체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를 찾는 교육, 민주시민교육

우리는 없고 나만 있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 시야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삶 속에서 협력해서 전체의 문제를 해결해 볼 경험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기적인 아이들을 야단치기만 했지, 아이들과 함께 바꾸어보려고 노력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은 소통과 협력과 공동체 정신이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시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민주시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짜인 민주시민교육의 틀 속에서 작은 관심과 실천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결국 자신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공동체 역량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자라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스스로 학급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저의 고민을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해결해나간 그 시간이 아이들에게도 ‘공동체’라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인권의 눈으로 기후생태위기 들여다보기

기후 위기와 인권을 연결 맺기

■ 왜, 기후 문제를 인권의 눈으로 들여다보아야 할까?

환경 실천가로 대중에게 알려진 한 배우가 밝힌 일화입니다. 그녀가 일회용품 근절 메시지를 설파하던 와중에 한 소녀의 눈물 섞인 호소를 듣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인즉슨, 소녀의 부모님이 종이컵을 제조하는 영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는 환경 운동이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뒤통수를 핑 얻어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환경을 위해 당연한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삶의 최전선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다른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사회를 천명한 대한민국에서 그 책임은 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과학·환경의 패러다임으로만 접근하던 기후 문제를 사회적 차원으로, 인류세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인권의 문제로 바라볼 때, 편견에 갇혀 있던 프레임을 깨며 새로운 통찰을 던져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북극곰의 문제가 자신과는 무관한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 문제와 인권의 연결 고리를 이어야 합니다.

■ 기후 문제를 교육활동으로 잇기

인권의 렌즈로 기후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종이컵이, 생수통이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그레타 툰베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의식적으로 자제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의 문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뻔한 말씀 감사합니다’ 식의 생태환경교육이 아니라, 손에 잡히지도 않는 북극곰이나 아마존의 문제, 미래 세대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자 친구의 일로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인권의 눈으로 기후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민주 시민교육의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부득이 학급 담임을 맡지 않았고 특별한 동아리 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기에 담당한 교과목의 수업 활동 안에서 녹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및 교육과정 분석 → 관련 단위 탐색 및 재구성 → 차시별 활동 구상 → 수업 적용’의 과정으로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We should save the 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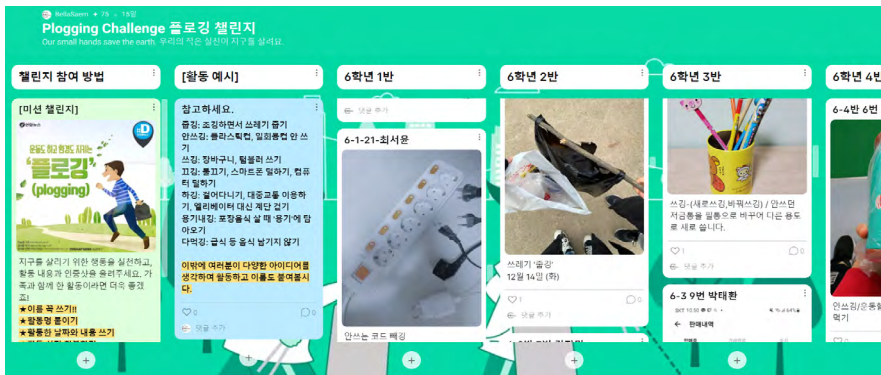
■ 교과서 및 교육과정 분석

대상	6학년
교과	영어
단원	11. We should save the earth.
의도	지속 가능사회를 위한 생태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되고 확대됨에 따라 각 교과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영어과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중요한 교과이므로 세계 문화를 가르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시민성 교육에 적절한 내용이 많다. 검인정 교과서를 채택하는 영어는 모든 출판사를 통틀어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를 적시한 단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단원의 핵심적인 성취기준을 수업의 목표에 포함하되, 기후 문제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의 요소까지 수업 활동에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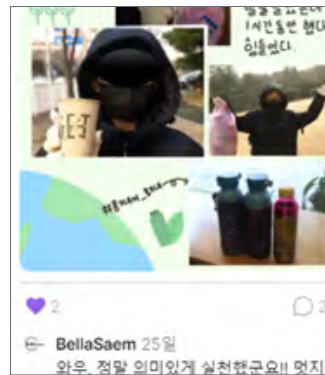
■ 단원의 재구성 및 차시별 활동 내용

※ 단원을 재구성함으로써, 아래에는 단원의 성취기준을 배제하고 수업자가 해당 수업 사례를 통해 의도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과 가치가 담긴 내용만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차시	단계	주제	활동 내용
1	동기 유발	기후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연결하기	•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투발루’ 장관의 연설 모습(바닷물 연설)을 동영상으로 제시하기 • 토의 및 토론하기
2	핵심 표현	“We should ~.”	• [그림책] Who can save the earth?(by Sunny Barnett) •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3	세계 시민 교육	[시민적 가치] 연대	• [Song] Heal the World(by Michael Jackson) • 세계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5		[시민적 역량] 사회적 공감 및 참여 역량	• 지구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
6			• 지구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실천하고 나누기



| 지구환경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 실천하기 (패들렛 활용)



| 플로깅 실천 사례 학생 나눔

♥ 수업 활동을 성찰하며

▣ 다음 걸음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본 수업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째, 장기 프로젝트로 이어나가지 못한 것은 가장 큰 한계였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시민성을 체화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 분석과 재구성이 지체되었고 이를 실제 수업 활동에 적용하기까지 단기간에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일회적인 프로젝트로 수업을 운영하다 보니 아이들은 하나의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심도 있는 인권교육의 하나로 연결하여 지속성 있는 수업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특정 교과나 한 명의 교사가 운영하다 보니 연결성이 부족했습니다. 연간 프로젝트로 다른 교과나 동료 교사와 함께 운영한다면 깊이 있는 인권교육 및 생태시민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 수업 활동을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환경의 문제로만 인식하던 기후 문제를 인권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가 우리 삶을 위협하는 중요한 의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회성의 실천 프로젝트로 아이들의 후속 활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생활 속에서 습관화해야 하는 작은 일들을 스스로 찾고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도 미래의 지속 가능한 동기 부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명시하였듯이, 이제 기후 문제, 탄소 중립 실천은 민주시민으로서 아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좀 더 확대하여 학년 및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 에필로그

2022년의 여름 날씨는 어떨까요? 예년처럼 30도를 웃도는 대낮의 더위가 이어지고 수일 내내 이어지는 비로 폭우주의보가 내려질 것입니다. 봄·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졌다는 말은 이제 진부할 정도입니다. 이전보다 더 더워질 것으로 전망하는 뉴스도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후텁지근하고 끈끈한 날씨에 실내 에어컨 가동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를 원망하면서도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막을 겉옷을 덧입고 에어컨은 끄지 않습니다.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 가정의 모습이 TV에 비추어집니다. 한 칸짜리 가건물에 사는 일곱 명의 가족은 여름이 되면 컨테이너가 찜질방처럼 뜨겁게 데워진다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 초기에는 주로 ‘공감’이나 ‘소통’ 등의 개별 요소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는 결국 이러한 역량이 결집해야 하는 종점이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의 연대라는 데에 교육적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념을 우리와는 괴리된 제삼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아이디어로 접근해야 명현 반응을 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 문제를 환경을 넘어선 인권의 렌즈로 바라보는 시선이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본 수업 사례에서는 일련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이러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동아리나 학급의 프로젝트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선행 작업이 되었음에 위안을 가져봅니다.

모두가 ‘툰베리’일 수도, 그 감낭을 가질 수도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으로 할 수 있는 ‘기후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다는 또 다른 희망을 새겨보려 합니다. 사건과 현상들을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결 고리를 때로는 아래에서, 때로는 위에서, 그리고 어떨 때는 안팎에서 바라보는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인권과 사태를 바라보는 상상력과 인문학적 관점이야말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기후 위기 이전으로 회귀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이지만, 사회학적 렌즈로 현재를 객관화하는 눈, 합리적인 대응을 강구하는 머리, 정의감을 가진 심장, 연대와 행동력으로 나아가는 손과 발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희망을 실천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09

인천송원
초등학교

● 최찬혁

보이텔스바흐 토론수업을 통한
동아시아 국제교류

♥ 학생수업 공감 토크를 통해 알게 된 코로나19 시대에 학생들의 고충

코로나19를 맞으면서 학생체험 중심의 수업이 제한되었고, 단편적인 수업이 진행되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모둠별로 의논하고 탐구하며 자기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는 기회가 매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식 중심의 지루한 학습 또는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수업이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갔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다. 우연히 인천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21 학생수업 공감 토크에 우리 반 학생들과 참여하게 되면서 원격수업을 받으면서 느꼈던 학생들의 솔직한 심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많은 학교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조롭게 변해버린 수업에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었으며 특히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에 강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시대에 의미 있는 수업에 대한 고민

그렇게 학생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시대에 학생들과 의미 있는 원격수업 또는 학생 중심의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의 고민을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인 보이텔스바흐 수업 연구회 선생님들과 나누다가 줌을 통해 동아시아 국제교류를 하면 어떨겠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문적학습공동체에는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원장님이 함께 계시니 원장님의 협조를 받아 이중언어 강사를 섭외하여 실시간으로 통역하면서, 동아시아에 있는 학생들과 다양한 주제로 보이텔스바흐 토론수업을 해보자는 의견으로 구체화 되었습니다. 다행히 원장님도 우리의 의견에 화답하여 몽골과의 국제교류를 연결해 주셨고 이중언어 강사에 의한 통역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은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원인 선생님들과 줌 회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중언어 강사님의 도움으로 몽골에 계신 국제학교 선생님과 줌을 통한 사전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몽골) 국제교류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사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아시아(몽골) 국제교류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원장님의 도움으로 이중언어 강사님이 섭외되면서 국제교류를 어떻게 운영 해야 될지에 관한 첫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개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연

합동아리를 통해 국제교류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업은 보이텔스바흐 토론수업을 통해 2개의 토론 주제를 나누기로 하였고, 보이텔스바흐 토론수업의 진행 절차를 이중언어 강사님을 통해 몽골 국제학교 선생님들에게 미리 안내하기로 약속을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몽골 국제학교 선생님과 줌을 통해 미팅을 하였고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토론하게 되면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될 수 있기에 토론 주제는 주로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개의 주제로 4번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기로 하였는데 보이텔스바흐 토론수업에 익숙한 한국 교사가 첫 번째 주제로 2번의 교류를 진행하고, 몽골 교사가 두 번째 주제로 2번의 교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 내에 있는 국어, 과학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고, 시간은 한국 시각으로 11시 5분부터 11시 40분까지(4교시) 줌을 통해 교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이텔스바흐 토론수업에 관해 몽골 선생님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경쟁식 토론으로 토론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학생들이 신념을 선택해 삶에서 실천해내는 것까지가 수업 활동이라는 점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렇게 토론수업을 운영하는 배경에는 민주시민 교육과 연계된 여러 가지 교육철학이 담겨 있다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몽골 선생님들이 토론 진행 절차에 대해 생각보다 금방 이해하셨고 토론방식에 대해 크게 불편한 감정 없이 논의한 대로 진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몽골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도 한국과의 국제교류를 매우 환영해주셨고, 줌을 통한 국제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통신 기술적인 운영지원을 잘 마련해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보이텔스바흐 토론수업을 통한 동아시아(몽골) 국제교류

짧았지만 최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여 사전 미팅을 마치고 드디어 몽골 학생들과 줌으로 첫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태블릿을 통해 개별적으로 줌에 접속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속한 우리 학생들과 달리 몽골 학생들은 학급 전체가 한 개의 화면으로 접속하였고 첫날이라 그런지 몽골학교 교장 선생님도 접속해 주셨습니다. 교사 및 학급 대표 학생들의 소개 및 인사를 간단히 나누는데 우리 반 학생들과 달리 몽골학교 학생들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영어를 사용하기로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반 학생들과 이중언어 강사님을 통해 교류하는 것보다 직접 소통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건지 영어로 말을 하여 약간 당황하였습니다. 토론 주제를 정하기 위한 몇 가지 영상을 함께 시청하였는데 총 3개의 영상이었습니다. 동물원 운영에 관한 주제와 플라스틱 사용금지, 탄소중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3가지의 영상을 보고 각각의 나라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 2개를 토론 주제로 잡아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반 학생들은 동물원 6명, 플라스틱 사용금지 8명, 탄소중립 5명으로 플라스틱 사용금지에 관한 주제가 채택되었고 몽골 학생들은 동물원 4명, 플라스틱 사용금지 4명, 탄소중립 7명으로 탄소중립에 관한 주제가 선정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첫 번째 교류에 대한 서로의 소감을 들어보았는데 두 나라 학생들 모두 코로나19 시대에 외국을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zoom 통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것에 매우 즐거워했고, 특히 다른 나라 학생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교류가 끝나고 우리 반 학생들과 정해진 주제에 관해 찬반 의견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후 두 번째 교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류 때와 달리 조금은 가깝게 느껴져서 그런지 진행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금지에 관해 찬성하는 한국, 몽골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그 후 반대하는 한국, 몽골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찬성하는 쪽 학생들은 대부분 환경오염을 근거로 들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였고 반대하는 쪽 학생들은 플라스틱을 잘 활용하자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대다수 플라스틱을 사용을 금지하자는 의견이었는데, 몽골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중언어 강사를 통해 알아 보니 몽골은 그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주제에서도 양국이 서로의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류부터는 몽골 선생님이 몽골 학생들이 정한 탄소중립에 관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특별히 이때에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때마침 교생실습을 하러 온 경인고 대 3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을 보여줄 수 있냐고 부탁하셔서 조금은 긴장되었습니다. 학생들과 미리 조사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몽골 학생들과 찬성, 반대 의견을 나누었는데 치열하게 의견을 나눌 것이라는 제 생각과 달리 몽골에 있는 모든 학생이 탄소중립에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조금은 싱겁게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탄소중립에 들어있는 서구 선진국들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느낌이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의 순수한 모습은 세계 어느 곳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어른인 제가 너무 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illegible]

| 토론수업 지도안

[illegible]

| 토론수업 학습지

2021 동아시아지역교육 정책 연구보고서

동아시아(중국)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발표일	발표주요내용요약	발표일자	발표처
-----	----------	------	-----

1. 요약

- 1. 동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의 정책, 교육내용을 전달 시도는 물론, 활용, 적용, 교육
- 2.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동아시아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대를 지향

2. 명칭

- 1. 명칭: 동아시아(중국)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 2. 명칭: 동아시아(중국)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 3. 명칭: 동아시아(중국)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3. 주요 추진 계획

- 1. 기간: 2021년 3월 30일(수) ~ 3월 31일(목)까지 2일간 (총 6시간 40분)

대안	주요내용	발표일	발표주요내용	발표일자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1. 동아시아(중국)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3월 30일	1. 동아시아(중국)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3월 30일
	2. 동아시아(중국)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3월 31일	2. 동아시아(중국)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3월 31일
	3. 동아시아(중국)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3월 31일	3. 동아시아(중국)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3월 31일
	4. 동아시아(중국)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3월 31일	4. 동아시아(중국)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3월 31일
	5. 동아시아(중국)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3월 31일	5. 동아시아(중국) 비대면(중국) 교육 운영계획	3월 31일

- 7 -

| 동아시아(몽골) 국제교류 운영계획

[illegible]

| 몽골 교사와 사전 미팅을 통한 내용 요약

네 번째 교류는 그동안 다뤘던 주제에 자신의 신념대로 생활한 모습을 발표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페트병을 물주는 분무기로 활용한다든지 플라스틱 일회용 숟가락을 쓰지 않고 쇠나 나무로 된 숟가락을 쓰는 간단한 실천 사례를 발표했는데 몽골 학생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인 발명품 및 건축물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발표에 감탄하며 듣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을 고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 매우 아쉬워하면서 그간의 교류했던 소감을 들어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 매우 즐거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zoom 토크를 통한 4번의 국제교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코로나19 시대에 학교의 수업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양질의 수업의 이루어지지 못해 힘들어하고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발달한 통신 기술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아시아 국가인 몽골과 국제교류를 하면서 편협했던 시각을 좀 더 넓힐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더 흥미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나라에 있는 학생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모습을 알 수 있었고, 오히려 같은 나라 학생들보다 다른 나라의 학생들이 더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수업의 모습은 이러한 국제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통신 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달할 것이고 세계 여러 나라의 심리적 국경의 거리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동아시아 시민의 관점에서 더 활발히 교류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태도를 형성하는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욱 성숙하고 다양한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02

중학교

인천가현중학교	49
강화중학교	52
인천안남중학교	57
제물포여자중학교	62
명현중학교	66
선학중학교	71
북인천중학교	76
북인천여자중학교(인천이음중학교2022)	80
만수중학교(인천남동중학교2022)	84
동암중학교	88
인천공항중학교(강화고등학교2022)	93
강화중학교	96

01 인천가현 중학교

● 김미영

학생 주권자가 만들어가는 ‘학교 플랜트 존’

몇 해 전 ‘학생들의 사회참여’라는 주제에 이끌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수에 참여하고 학생 동아리를 구성하여 교내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교육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행했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비정부기구 단체에 기부하는 활동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동아리 학생들에게도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동아시아시민교육과의 2021 주권자교육 프로그램 안내 메시지를 보면서 사회과 교사로서, 학생자치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으로서 학생자치회를 현재보다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존의 관행과 타성에 젖어 있는 학생자치회 임원들에게 주권자 교육을 통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학교 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주권자 교육 동아리를 구성하고, 이론 교육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학생자치회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플랜트 존 조성’을 구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둡고 칙칙한 교육 환경을 ‘쾌적한 생태 환경을 위한 플랜트 존 조성’을 통해 우리 손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교육 환경으로 변화시켜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학생자치회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 부회장의 공약 사항이었던 교실 ‘플랜트 존 조성’을 위해 각 교실마다 화분을 2개씩 비치하고 학생회 대의원인 학급 회장과 부회장이 정기적으로 물을 주며 관리하면서 교실 분위기가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화분 관리는 각 학년 선생님들의 지원을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학생자치회 임원들은 교실을 순회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학기 초부터 운영하고 있던 기후 생태 환경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이동식 텃밭과 교내 화단을 관리하던 중 그늘지고 염분이 많아 황폐화된 구름다리 밑 화단을 살아있는 꽃밭으로 변화시키면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두가 놀랐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름다리 이동 통로 내부에도 생태 환경을 조성하면 생기 있는 곳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구름다리 통로에 이동식 나무 화분을 설치하고 실내에서 시들어가는 화분을 내어와 다시 살리고, 도자기 화분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자치회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화분과 기후생태동아리 학생들이 만든 미니 화분을 비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다행히 양면이 유리창으로 구성된 구름다리 통로는 햇볕이 잘 들어 화초가 잘 자랐고, 삭막하기만 하던 2, 3, 4층의 이동 통로가 학생자치회 동아리 학생들의 활동으로 화사하게 생기가 넘치는 구름다리가 되어, 교과 수업 시간에 활동했던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전시하는 멋진 공간

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창가에 기대어 소곤소곤 또래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업무에 지친 교사들이 잠깐 휴식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7월에 실시한 입법 교육은 학생자치회 임원들에게 매우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경인 교대 입법학 센터 교수님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교육이 어려워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ZOOM으로 실시한 비대면 수업은 기초적인 입법 과정에서 시작되어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자치회 규칙 제정에 관한 내용으로 심화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선거 교육은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시기와 가까운 2학기에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강의를 의뢰했습니다. 선관위 초빙 교수님의 강의는 선거 교육을 비롯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하나 되는 리더’라는 주제로 리더의 역할, 리더십,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 및 리더로서의 다짐을 발표하는 자리가 되어 참여했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교육에 열심히 참여했던 2학년 학생회 임원은 “입법 교육 강의를 들으면서 복잡하면서도 재미있는 법의 세계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 볼 수 있었으며 법이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주변 어디든지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교육은 내가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자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강사님과 질의응답 및 수업 활동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랜트 존 조성’ 활동을 통해 화분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도자기 장인들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플랜트 존 조성’에 관한 공약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찼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아쉬기는 했지만 학생자치회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알게 된 ‘입법 교육’, 대면 교육으로 질의응답 및 발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선거 교육’, 학생자치회 출범 당시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었던 ‘교내 플랜트 존 조성’ 등 주권자 교육 활동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사회참여가 이루어져 학생들 스스로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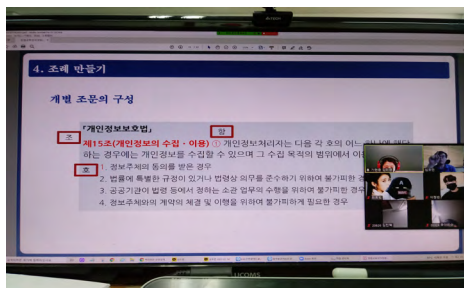
또한 주권자 교육이라는 주제 안에 교사와 학생들이 선택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장려한 교육청의 프로그램 운영 정책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융통성이 있었기에 교내에서 주권자로서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활동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획일적이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수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학교 현장, 더 나아가 사회에서 문제 해결력을 지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실과 구름다리 플랜트 존 조성



| 도예 화분 만들기



| 입법교육 온라인 강의



| 선거 교육

02

강화중학교

● 김위선

‘역사 바로 알기’로 여는 평화교육

♡ 평화교육을 하게 된 계기

2019년에 강화평화 교사연구회 회장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강화 연합 평화 리더 자율동아리를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평화 감수성을 키워 유라시아 시대의 평화 리더를 꿈꾸자’라는 모토로 만들어진 동아리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북한과 중립 수역을 사이로 마주하고 하고 있어 평화가 절실한 생존권이었는데도 무감각한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알려주고 평화의 메신저가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평화 리더 동아리의 큰 대외적인 행사는 4월 27일 강화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화의 손잡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것입니다. 연미정이란 곳에서 평화의 염원을 담은 200여 명의 학생들이 손에 손을 맞잡으며 평화의 춤사위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중립 수역에 ‘평화의 배 띄우기’에도 참가하였습니다. 2019년의 평화와 관련한 행사에 참여는 이후 많은 반성을 하게 하였습니다. 한 사례로 행사 후 학생들에게 소감을 물어보았는데 행사는 재미있었지만 왜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학생들의 답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을 보내고 평화란? 평화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평화는 ‘평화가 절실하다.’ 혹은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단순히 외부에서 알아주는 것 이외에 과연 학생들이 피부로 와닿는 방법일까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평화교육을 진행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먼저 평화와 평화를 지 못한 상태를 대별해서 전쟁과 평화로 단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지역을 한정하여 강화도의 전쟁과 평화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를 공부해야 평화가 왜 절실한지, 우리 지역에서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2020년부터 평화 리더 동아리는 ‘역사 바로 알기를 통해 평화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역사는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바탕이 되기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역의 역사 공부는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2020년 역사 바로 알기를 통한 평화교육 -강화도의 전쟁과 평화

‘강화도의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를 논하기 위해 답사 중심으로 매달 1회씩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관련된 책을 읽고, 저자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며 답사를 진행했기에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적지에서 해설을 들었기에 생생한 역사 공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교과서에 행간에 숨어있는 백성

들의 고통을 느끼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강화도와 관련된 대표적 전쟁은 고려 시대 몽골의 침입, 조선 시대 병인양요, 신미양요, 의병운동, 한국전쟁 등입니다.

강화도는 해류가 세고 빠르며, 조수간만의 차이도 크며 갯벌도 드넓게 형성되어 있기에 천혜의 요새지와 같아 외부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고려 시대 몽골군의 침입으로 고전하던 무신 정권의 실권자인 최우는 1232년 강화로의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후 몽골군에 항복해 개경으로 한도한 1270년까지 70여 년간 고려의 수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평화롭게 살던 강화에는 삼십여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궁궐도 세워지고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내성 중성 외성까지 쌓아 철옹성이 되었습니다.

무신 정권의 강화 천도는 몽골에 대한 항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신 정권의 안위를 위한 것일까요? 이 답사를 통해 몽골에 대한 항전, 삼별초의 항쟁 등으로 배워온 저의 과거의 역사 공부에 물음표가 찍히게 되었습니다. 천도로 인해 강화도에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은 부역과 세금에 시달려 죽을 만큼 힘들었다 합니다. 삼별초 항쟁으로 인한 진도, 제주도 원주민들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강화도 전등사에서 병인양요의 흔적을 양헌수 장군 승전비와 전등사 대웅전에 새긴 평범한 병사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승전과 패전의 관점이 아니라 참가한 병사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광성보에서 두꺼운 목면 갑옷을 입고 미국의 신식 포탄에 맞아 훨훨 불이 탄 채, 바다로 떨어져 순국한 이름 없는 병사들의 무덤 순의총을 보고 전쟁의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고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또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 2020년 4·3항쟁 유적지 답사, 제주도 향몽 유적지, 일제 식민지 유적지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전 학년 원격수업, 또 2/3 등교수업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11월이지만 2박 3일 제주도 답사를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다들 걱정을 하였습니다. 학부모도 학생도 함께 인솔하는 선생님도 말입니다. 실제 프로그램에 동행했던 학생은 8명이었지만 준비 단계에서 사전 안전 교육을 하고 또 하고, 공항에서는 절대 마스크 못 벗게 하느라 눈을 크게 부릅뜨고 학생들을 감시하였습니다. 다행히 학교와 부모님들께서 믿고 지지해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7시 제주발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저녁 9시 서울행 비행기를 탔기에 딱 찬 1박 2일 동안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함께 인솔한 선생님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제주도가 고향이지만 4·3항쟁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몰랐던 저였지만 최근 4·3사건이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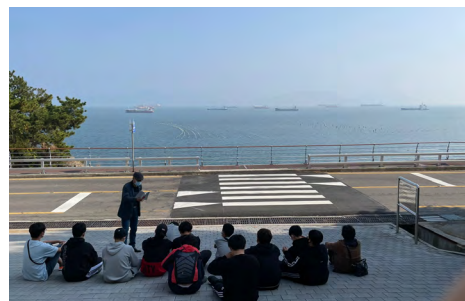
항쟁으로 바뀌게 된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어머니께서 너의 외삼촌도 4·3사건의 피해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주도민의 1/10이 피해자이며 같은 마을에 4·3일이 제사인 집이 여러 가구가 된다는 제주도의 현실을 학생들에게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4·3 평화공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역사적 배경을 해설 강사 선생님께 들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대사가 이러한 사실을 목소리 높여 말하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친일 경찰이 다시 미 군정하에 군정 경찰로 변신, 분단과 미 군정 찬탁과 반탁과 그 과정에서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대립 등의 상황에서 1948년 11월부터 1954년여까지 한라산 중산간 마을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3만여 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학살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흘리 목시굴, 북촌리 너분송이 무덤, 화북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등에서 이러한 유적지 답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답사 체험을 기획한 저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느끼기를 원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답사에 참가한 1학년 이**학생의 소감문으로 그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날!... (중략) 제주도 하면 삼다도라 불리고 가족여행 가기 좋은 곳, 내가 좋아하는 굴, 한라봉 유명한 곳, 흑돼지가 맛있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명분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 인권을 유린하고 수많은 민간인들을 누구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억울한 피눈물을 흘린 땅이라는 것이다.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하여 내가 먼저 인권의 가치를 세우고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스러운 이때 타인을 위하고, 평화를 위하여 온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둘째 날 처음 간 장소는 화북 곤을동(4.3 잃어버린 마을)이다. 멸치잡이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곤을동 마을에 좌익세력들을 없앴다고 토벌대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총살하고 이로 인해 마을은 모두 전소되었다. 그날 제주도는 곤을동을 잃어버렸다. 지금은 마을이 있던 자리에 집을 지키던 돌담만이 남아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잃어버린 마을은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장소로 변모했고 피눈물의 역사를 통해 다크 투어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한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전쟁도 아니고 마을 전체를 이렇게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인다는 게 정말 놀라웠다. ... (중략) 그렇게 다크 투어는 끝났다. 수많은 학살과 억울함 속에서도 제주도민은 자주독립을 위해 마을마다 학교를 세우고 치안활동을 하고 마을 행정을 주도하고 지금의 제주도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배우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나라 국민을 죽이는데 눈을 감고 모른 채했던 정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아쉬움. 4·3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당시 희생됐던 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제주도를 살아가고 우리가 그날의 역사를 알고 있는 한 진행형이 될 것이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더라도 역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제주 4.3 평화공원 위패봉안실 앞에서



| 여수 만성리 학살지에서서

2021년 여수 순천 항쟁 답사

2020년에 제주 4.3항쟁 지를 답사하고 이와 관련한 여수 순천 사건(20년 당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2021년 6월 여수 10.19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답사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제주 때도 그랬지만 과거의 역사를 알고 그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정신을 학생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평화 감수성이란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느끼는 고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평화 감수성을 가진다면 앞으로 맞닥뜨리는 사회에서 평화를 지향하게 되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2021년에도 코로나가 여전했지만 우리 평화통일 리더동아리는 3년 차 동아리로 학부모님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고 1학년 때부터 활동해온 선배 2, 3학년이 있었기에 2박 3일의 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물론 유적지 답사뿐 아니라 지역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순천만 국가 정원도 들리고, AR 트릭아트 뮤지엄도 방문하여서 학생들이 수학여행 같았다고도 하였다. 학생 답사 소감문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알 수 있었다.

3학년 최** 학생 소감문

“여수와 순천에서 수많은 장소를 다니며 항쟁에 참여한 인물과 무고하게 학살된 사람들의 슬픔과 한을 느낄 수 있었다.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14연대 군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리산에 올라갔을지를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고 여수의 초등학교에 모여 단지 머리가 짧다고, 군용 팬티를 입었다고, 외국 운동화를 신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람들을 두 갈래로 구분하고 사형시킨 사람들을 보며 어이가 없고 분노하기도 하였다. 이번 답사는 나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역사 관련한 직업을 갖는 것이 꿈이라 그동안 많은 내용을 공부했다. 하지만 그동안 현대사와 여수 항쟁, 5.18 민주화운동, 동학농민운동 같은 하층민, 국민들의 저항 부분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대부분 권력자 중심의 역사를 많이 알고 있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나는 좀 더 우리 역사를 이끈 진정한 주인은 국민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 권력자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여수 항쟁 같은 아직도 해결되고 알려지지 않은 비 권력자들을 투쟁의 역사에 대해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3학년 박** 학생 소감문

“14연대가 명령을 듣지 않고 항쟁을 한 이유, 사건의 발단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이 시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권력욕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었다. 이후 여수 항쟁의 진행 과정이 드러나는 인구부 전투 유적지, 인민대회장 등을 답사했다. 여수 항쟁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학살지인 만성리 학살지에 갔을 때는 참 가슴이 아팠다.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탄압을 받았고, 1945년 광복이 된 후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 알던 사람들이 내 나라 국민을 지켜주는 군인한테 무참히 학살당한 아픈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엔 없는 이러한 일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좋았고 우리의 좋은 역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역사도 기억하여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겠다는 것과 여수 사건은 좌익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항쟁임을 꼭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중략) 평화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남북통일을 위해 힘써 노력하며 후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의식이 없는 평화 감수성은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갈등과 분쟁 상처가 없는 이상적 평화만을 추구할 수 있기에 때문입니다. 상처라는 것은 갈등이라는 원인이 있었기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한다면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현대사가 과거형이 아니라 그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쳐 이념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입니다. 4·3항쟁과 여순 항쟁의 당사자를 전문 강사로부터 해설을 들으며 든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는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빨갱이라 말할까 봐 피해 사실을 외면하며 숨죽이면 살아왔던 분들이 이렇게도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죽어서도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쳐 연좌제에 주변의 냉담한 시선에 고개 숙여 아니라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학살된 많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러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파헤치는 일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아니라 상처는 숨기면 끓지만 드러내서 약을 바르면 낫는다는 평범한 사실처럼 갈등 역시 같은 원리로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평화 감수성이 교사들부터 학생들에게도 배움이 전달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통합되지 않을까요?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아쉬웠던 것은 이러한 ‘역사 바로 알기를 통한 평화교육’에 함께할 수 있는 동료 교사가 적었다는 점입니다. 시간을 내고 함께해 준다면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을 터이고 더 의미 있는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텐데 늘 아쉬운 점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없다면 현재의 평화도 지킬 수 없을지 모릅니다. 역사 공부를 교과서만이 아니고 체험 중심 답사 중심으로 진행하는 활동 중심 수업이 교실 내에서 진행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텐데 이를 위해서는 교과와 연관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듯합니다. 그러나 작은 노력이지만 저의 이러한 활동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 혹 생각만 하고 있는 동료 선생님들께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분된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가 인권이 중시되고 갈등과 분쟁과 상처가 치유되도록,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보듬어가도록, 법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속으로 끌어 나와 치유할 수 있도록 교육이 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픈 역사적 현장을 찾아 평화 감수성을 키우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사명이라 여깁니다.

03 인천안남 중학교

● 김일중

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서부 학생자치네트워크 ‘다우리’

학교에서 규칙과 규율 준수의 의무만 강조되는 학생은 아직 시민이 아닌 존재이다. 학생에게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어야 한다. 학생자치는 시민으로서 학생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하며 가장 확실한 경험이다. 학교를 위한 학생자치가 아닌 학생이 학생을 시민으로 인식하며 주체로 삼는 학생자치야말로 민주시민교육의 마중물이다.

-임정훈, 『학생자치, 민주시민교육의 마중물』, 우리 교육, 2021. -

수기를 써보자 하는 마음을 먹은 후 그런 생각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된 걸까? 나는 왜 아이들과 활동하려 하는가? 질문들의 공통점은 ‘활동’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니 저를 멈추게 했던,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과 고민을 이어보니 현재의 활동들에 대한 하나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졌고 이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교에선 참 많은 간식이 오갑니다. 이것은 행위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고, 행위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제 아이들도 종종 받아오는데 먹는 모습을 부모로서 바라볼 때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에게는 사주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는 사주는 모습. 부모로선 안 되지만 교사로서는 행해지는 모순된 모습에 대해 고민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많이 들었던 “선생님~ 이거 하면 뭐 줘요?” 그리고 “이거 하면 뭐 줄게...” 아이들이 길든 것은 아닐까? 내가 아이들을 길들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이러한 반응을 내가 스스로 만든 건 아닐까? 나를 위한 일종의 방어적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반성은 아이들의 자발성을 어떻게 깨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교실에 가보면 급식 안 먹는 아이들이 종종 보이고 급식실 순회지도 하다 보면 조금만 먹고 버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맛없다는 아이들도 있고, 배부르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학교의 돈을 잘 쓸 수 없을까? 먹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없을까 하는 고민... 참고로 『플랜 드로다운』(2019)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 3위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양은 14,314톤이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8,000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회 수업 시간에 전쟁의 직간접 피해로 인한 만 5세 이하 사망자 수를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천 4백만 명 정도 사망한다고 하며, 이는 경기도와 인천시 인구를 합친 수치로, 한 주에 인천시 계양구 거주민이 사라질 수 있는 값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거 시험에 나오냐고, 큰 회의감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나와 그들을 나누지 않고 우리가 될 수 없을까? 지켜져야 할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는 어떤 식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이들에게 세상을 좀 더 가깝게 데려갈 수 없을까? 등등 사회교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던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사회과 수업을 하면서 세상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많다.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문제점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다양한 단체와 NGO의 활동들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에 한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어른들이 하는 일 아니냐고, 회비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 돈 생기면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 왜 자신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아이들이 알기만 하면 실천은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의 교육은 하는데, 참여하고 행동하는 기회들은 얼마나 제공했었는가? 이런 고민이 추가되었습니다.

수동적인 행동,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잊혀가는 보편적 가치….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제 자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세상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으면 좋겠고, 이를 토대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주변을 살피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방법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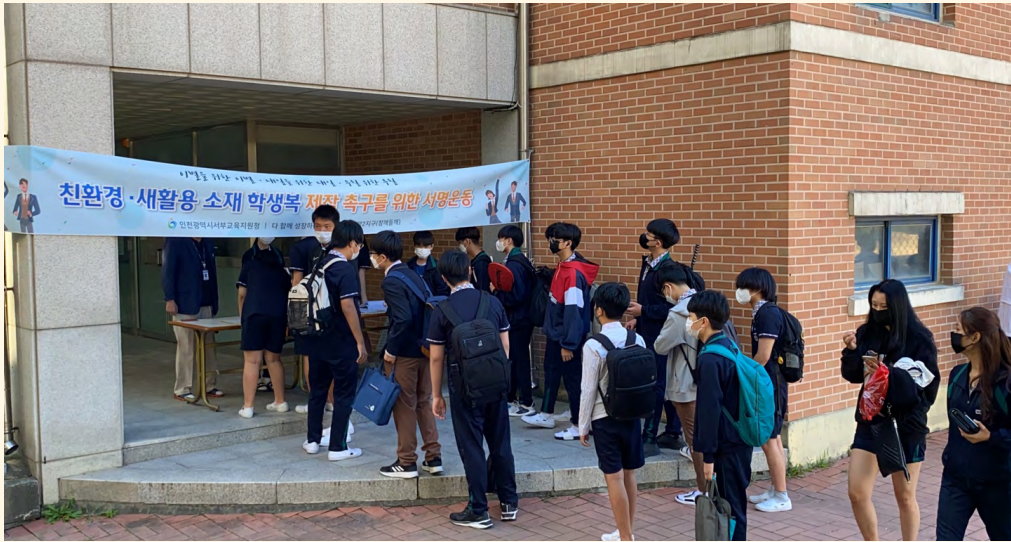
시작은 2018년도였고, 저는 당시 중학교 2학년 남학생 학급담임이었습니다.

이것저것 해서 학급비가 20만 원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10월 하순쯤에 알게 되었습니다. 학급비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피자, 고기뷔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했지만 소중한 세금을 먹는 걸로 쓰고 싶진 않아서 축산업으로 인한 문제, 전쟁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기부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급비로 팔찌 제작 키트를 구입하여(당시 한 세트에 2,400원) 아이들과 만들었고, 이를 12월에 모금행사를 통해 하나에 천 원씩 판매하였습니다. 당시 이십몇만 원을 모금했는데 학생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 많이 못 벌었다고 투덜댔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체험했다는 데에 가치가 있었지 않았나 하니 대다수의 학생도 수긍했습니다. 판매금액 전액은 한국 소아암재단에 기부하였고 기부증서를 학생 수만큼 받아 한 장 한 장 코팅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대체로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았고, 무엇보다 학부모님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학급자치를 통한 사회 환원 활동은, 2019년 해안가 폐기물 업사이클 활동, 모금행사 및 기부 활동으로 이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업사이클 활동은 진행하였으나 모금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서부교육청 초중등 자치 네트워크 ‘다 함께성장하는우리’(이하 다우리) 계양 2지구를 담당하게 되어 총 6개 학교 13명의 학생대표자들과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모임명은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참깨 들깨’로 지었는데 이는 ‘참다운 깨달음을 추구하는 들 깨달은 아이들’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 계산여중, 효성중, 안남중 학생들이 열정을 갖고 참여하여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시	일시	주제 / 내용	강사	비고
1	2021. 7. 3.(토)	주제 : 법률교육	경인교육대학 입법학 센터	서부교육지원청 다우리 계양2지구 학생대표모임
		내용 : 법률 제작 과정 이해		
2	2021. 7. 3.(토)	주제 : 선거교육	서부교육지원청 다우리 계양2지구 담당교사	
		내용 : 학생 대표 선거 관련 갈등 사례 공유 및 문제점 토의		
3	코로나19 4단계로 2021.7.10.(토)가 2021.10.9.(토)로 변경됨.	주제 : 해안폐기물 적재에 따른 환경문제 심각성 공유 체험 내용 : 시민들과 함께 해안쓰레기 수거, 업사이클 활동(해안가에 버려진 유리조각으로 목걸이 만들기) 및 친환경 소재 함유 교복 제작 촉구 서명운동	서부교육지원청 다우리 계양2지구 담당교사	인천시 중구 영종역사관 해안일대
4	2021. 11. 1(월) ~ 12.1(수)	주제 : 온라인 서명 운동 내용 : 학생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제작 시 친환경 및 업사이클 제품 사용량 확대를 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인천은 소통e가득’에 시민 청원 운동 진행		
5	2021.11.13.(토)	주제 : 대중교통 이용 감사 캠페인 내용 :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캠페인 진행	서부교육지원청 다우리 계양2지구 담당교사	인천시 계양구 계산역 일대
6	2021.11.13.(토)	주제 : 길거리 서명 운동 내용 : 학생복(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제작 시 친환경 및 업사이클 제품 사용량 확대를 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길거리 대면 서명 운동 전개	서부교육지원청 다우리 계양2지구 담당교사	인천시 계양구 계산역 일대
7	2021. 12. 2(목)	주제 : 청원명부 전달하기 온·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 결과물을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시 교육위원회,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서부교육청에 송부		※인천시 답변 (12.24) ※ 시의회 답변 (12.30)



교실과 구름다리 플랜트 존 조성



영종도 업사이클링



길거리 서명운동



청원 명부 보내기 활동

다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기사 검색 중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플라스틱 및 의류 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친환경 제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섬유(폴리에스터)’ 기술이 개발되어 우리 사회의 ‘자원순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학생 교복 섬유 혼용률 중 폴리에스터 성분 비율이 꽤 높음을 발견하고,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의 제작에 있어 기존 폴리에스터를 재생폴리 섬유 소재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학생들 및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안내지로 제작하여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표현에 따르면 시민분들에게 다가가 홍보를 하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았고, 시민분들도 면이 아닌 플라스틱 소재가 괜찮은 것이 맞냐며 의심하거나 개인정보유출을 걱정해 서명운동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모습에 속도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시민분들에게도 직접 입은 플라스틱 소재의 옷들을 보여드리며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참 대견했습니다.

또한 ‘환경을 지키자는 설득을 하였을 때 시민분들이 웃으며 환경보호에 동참하겠다고 해주시면 우리가 왜 서명운동을 하는지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제일 뿌듯한 순간이었다.’, ‘계획했던 활동을 실천 단계로 옮기니 계획만 했을 때보다 활동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활동에서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다음 활동 때 더 보완해 분발해야겠다.’라는 학생들의 소감문을 보면서 아이들의 성장에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였습니다. 11월 한 달간 ‘인천은 소통 e 가득’ 게시판에 관련 내용에 대한 청원을 진행하였고, 온·오프라인의 결과물을 취합하여 인천시의회 및 관계 기관에 우편 송부하여 인천시 및 시의회의 답변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학생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답변을 받았을 때의 환호와 답변 내용을 읽어가면서 분노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행사에 대해 피드백을 해보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교사 스스로 성공보다는 성장에 목표를 두는 마음가짐을 갖기,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주제 선정을 통해 아이들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그리고 그에 따른 활동 과제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학생들과 함께 찾아보고 교사로서 지원하기, 더불어 아이들 스스로 참여와 실천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거나 자존감이 향상된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등이 떠오릅니다.

학생들이 묻기도 합니다. ‘다음엔 뭐해요?’ 이에 대해 ‘다음에 뭐할까?’라는 저의 질문에 ‘이다음엔 뭐해요!’라며 자발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를 제안하는 대화 상황을 상상해봅니다. 물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행동하려는 의지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로드로 민주시민교육하기

♡ 민주로드로 민주시민교육하기

수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아이들이 ‘민주적’이라는 말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삶 속에 녹아들어 당연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에 대해 배우길 바랬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 준 많은 용기있는 시민들을 기억하길 바랬습니다. 민주로드는 아주 적합한 교육활동이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이룩해 간 시민들의 투쟁의 역사를 배우는 것과 더불어 그 자리 에 나오길 결심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심하고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에 공감한다면 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민주로드는 학생들에게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결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역사적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행동한걸까?’, ‘역사적 현장을 기억의 공간으로 만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행동한걸까?’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 생각의 실마리 만들기_학습 자료 제작 및 사전 활동

‘어떤 공간에서 무엇을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할까?’를 스스로에게 물으며 답사 준비를 했습니다. 민주로드 답사 코스인 ‘주안 5·3항쟁터(구 시민회관) - 동인천 답동성당 - 부평 강제징용노동자상’에 대해 문화재청 및 인천관광공사,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자료와 각종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①답사지의 현재 기능, ②우리 학교 기준으로 답사지까지의 거리, ③답사지의 과거 기능, ④관련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답사지의 건축적·역사적·문화적 요소를 분석하여 ⑤답사 포인트와 ⑥질문을 포함한 학습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관련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선 교육청에서 배포한 민주로드 웹툰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 ①~⑥의 내용으로 구성된 학습자료 |

교무부장님, 수업계 선생님과 협의하여 민주로드 당일 오전 한 시간을 사전공부 시간으로 확보했고, 동교과 선생님 두 분을 섭외하여 답사지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함께하자고 부탁드렸습니다.

7명씩 3팀으로 나누어 부스를 이동하며 답사지에 대해 학습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팀이 A교사와 5·3항쟁터에 대해 학습할 동안 두 번째 팀은 B교사와 인천답동성당을, 세 번째 팀은 C교사와 부평 강제징용노동자상에 대해 학습하고 20분 후 부스를 이동하며 모든 답사지에 대해 학습하는 총 60분간 진행되는 형식이었습니다. 학습한 내용 중 ⑤답사 포인트와 ⑥질문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 동인천 답동성당 】

답사포인트	1. 고딕 건축 양식 및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 찾기 2. 일제강점시기 공출되었다가 해방 이후 되찾은 종을 찾기 3. 민주화운동 관련 비석을 찾고 내용을 읽어보기 4. 성당 내부에서 몸을 숨긴 시위자의 모습 상상하기 5. 성당 내부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성직자의 모습을 상상하기
질문	1. 사람들은 왜 종교적 공간에서 민주주의 시위를 하였을까?

【 주안 5·3항쟁터 】

답사포인트	1. 과거 답사지의 사진과 현재 답사지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과거와 현재의 공간적 기능의 차이를 생각해보기 2. 답사지의 민주화운동 관련 비석 3가지를 찾고 내용을 읽어보기 3. 시민공원 한복판에서 1987년 5월 3일의 현장을 상상해보기
질문	민주주의 국가에서 광장은 왜 필요할까?

【 부평 강제징용노동자상 】

답사포인트	1. 이원석 작가가 왜 이 동상의 이름을 ‘해방의 예감’이라고 지었는지 작품의 표현 방식에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기 2. 동상의 실제 모델인 지역예 할머니, 이연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동상과 마주 보고 서서 동상의 눈을 쳐다보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 느껴보기
질문	1. 역사적 공간에 표지석, 동상 등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배움을 공유하기

사전 활동을 마치고 리무진 버스에 탄 아이들은 신이 났고 답사지에 게시던 사람책을 통해 더욱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전 활동에서 배운 답사 포인트를 찾으러 다닌 친구들도 있었고, 친한 친구들과 답사지에서 셀카를 찍느라 바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주로드를 마치고 바로 다음 날 후속 활동을 위해 학생자치실에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후속 활동의 목적은 민주로드에서 경험한 것을 정리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배움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년별로 점심시간이 달라 후속 활동은 학년별로 진행하였습니다. 1학년은 강제징용노동자상, 2학년은 답동성당, 3학년은 5·3항쟁터를 맡아 A1사이즈의 화이트보드에 각 답사지에 대한 정보와 답사지에서의 경험,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 자치실 앞 복도에 전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3일 내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점심시간마다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꽤 의미 있는 답사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민주로드 배움나눔 활동



| 민주로드 배움나눔 활동

후속 활동을 통해 제 의도처럼 민주로드가 아이들에게도 민주시민교육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느낀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동네 근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5·3항쟁터의 경우 ‘민주화운동 같은 것은 너무 위대한 일이라 교과서 같은 곳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항상 지나쳤던 길에 있었다는 것이 놀랍고 ‘그동안 몰랐던 것이 죄송하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둘째, 답동성당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을 찾아다니는 것이 즐거웠다.’라는 것과 ‘성당의 웅장함과 경건함’ 그리고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황홀하고 거룩’해서 그 당시 시위하던 사람들이 이곳에 도망치듯 와 있었을 때의 심정을 떠올리니 ‘신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 강제징용노동자상에서는 ‘동상과 눈을 마주치니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라서 울컥했다.’, ‘동상의 발꿈치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 해방의 기대감이 더욱 잘 느껴져 작가가 제목에 따라 잘 표현한 것 같다.’, ‘동상 뒤 비석에 동상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는데 나도 나중에 이런 활동에 참여하여 역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부평에 강제징용 조병창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고 인천이 옛날부터 유통(?)의 중심지였다는 게 새롭게 느껴졌다.’,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면 좋지만 없어진다면 이렇게 동상이나 비석이라도 세워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것이 역사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억하지 않으면 잊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동상과 표지석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름대로 답사 장소에서 질문을 생각하며 다닌 것 같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또한 민주화의 역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과 그 일을 기억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한 것, 고마움을 느끼며 처음부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깨달은 것, 훗날의 일에 참여를 결심한 것에서 나름 만족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활발하게 된다면 민주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력자보다 다수의 결정이 수용될 수 있는 사회,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 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로드의 경험을 통해 정치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역사의 실수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민주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임을 배웠길 바랍니다.

❖ 번외_민주로드를 다시 한다면

다음에 민주로드 활동을 다시 하게 된다면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사전 조사 활동을 함께할 선생님들과 같이하면 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서로 배움으로써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사전 조사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 시선에서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사람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책에 대한 사전 공부는 일종의 친밀감을 형성해서 현장에서 사람책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고, 미시사적 접근을 통해 보다 실제적으로 역사에서의 개인의 역할, 역사적 사건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권자가 자신의 주권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주권이 침해당하는지를 학습할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05
명현
중학교

● 남궁선

‘시민과 사회정의’ 교과서와 함께 떠나는
‘정의 여행’

❤ 교실에서 만나는 주권자

“내가 가진 신념하고 다른 신념에 대해 편견 없이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70대 시민대표)

“책임감이 생깁니다.”(20대 시민대표)

“난 말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찬성이든 반대든 떠나서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30대 시민대표)

2017년 10월,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에 참가했던 시민대표들의 소감입니다. 471명의 시민대표는 33일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찬성, 반대로 투표하는 유권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왜 그래야 하는지를 학습하고 질문하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토론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힘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능동적인 주권자로 공동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할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은 주권자로서 사회문제에 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서로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돕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혹은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에서 주권자로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모두의 의견을 듣는 건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뒤따르는 시선이 나 비판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학생들도 학급 구성원 모두의 입장을 헤아리기 쉽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에 공감하기 어려워 회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쟁점에 관한 토의, 토론, 논술 활동을 불편해하고 회피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내 생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뉴미디어 환경의 확산으로 교묘하게 편견·차별·혐오를 부추기는 콘텐츠를 근거로 사고하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짧은 콘텐츠를 즐기는 쇼트(shorts) 세대로 15분 정도의 영상도 집중이 어려워 몸을 비틀며 ‘2배속’을 요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사유(-)하는 역량을 기르는 활동을 어떻게 구성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 『시민과 사회정의』, 교과서를 만나다.

작년 여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중학교 교과서 『시민과 사회정의』, 『시민과 사회참여』가 발행되고 이와 관련해 ‘중학교 민주시민 교육과정 전문가 연수’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없이 연수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한 연수를 통해 방향을 잡고 2학기에는 개인적으로 학급 활동과 수업 시간에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마침 우리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의 민주학교’를 운영 중이었기에 자유학기제 과정으로 활동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막 발행된 교과서로 정해진 차시의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까지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워 망설였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막연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판단하여 굳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시민과 사회정의』 교과서를 주 교재로 34차시로 진행하였습니다. 교과서는 우리 생활과 연관된 각종 문제를 탐구하면서 사회 정의관을 갖추고, 자기 생각을 주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율성과 다양한 정의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성 함양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인공 다정이가 이상 나라, 윤리 나라, 자유 나라, 평등 나라의 8개 마을을 방문하여 사회정의를 찾는 과정을 6개의 단원으로 나누고, 각 단원은 ‘단원 설명-생각 열기-생각 나누기-생각 넓히기-단원 마무리’로 구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각 마을에서 마을 지도자의 설명을 듣고 실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사회 정의를 경험하고 마을과 관련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과정을 다정이가 함께하였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으로서 필요한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사유(思惟)하는 역량’을 함양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며 걱정 반 기대 반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 정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가. 여행을 위한 준비

자유학기제에 <정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강 신청을 받아 24명이 모였습니다. 6개의 학급에서 3~5명씩 모인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둠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친밀감이 약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활동이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나. 여행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

<생각 열기>는 각 마을의 운영 모습과 추구하는 정의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교과서와 함께 제공된 도입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시각적인 집중에는 효과적이지만, 음성과 짧은 텍스트로 전달되는 정보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의미를 생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활동에서 얻는 정보의 양에 따라 다음 활동에 참여의 정도가 결정되기에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고민 끝에 교과서의 바탕인 『정의를 찾는 소녀』(유범상, 마북, 2020)를 읽기로 했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학생들 수만큼 도서를 구입하여 새로운 마을을 여행하기 전 해당 부분을 학생

들이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읽어야 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읽는 순서와 분량은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제안으로 시작한 빙고 게임(읽은 내용 중 9개의 단어로 빙고 만들기)은 참여를 북돋우는 재미도 있었지만,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다. 어디까지 여행해야 할까?

마을의 정의관을 학습하는 <생각 나누기>와 마을에서 주장하는 정의관을 비틀어보는 <생각 넓히기>는 각각 2~3가지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6개의 활동 중 어떤 활동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받아들이고 참여하는지 궁금하였기에 초반에는 제시된 활동을 모두 하였지만, 중복되는 활동에 흥미를 잃었고, 시간의 제약도 있어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선별해 깊이를 더하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하나 의미 없는 활동이 없지만,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도 전에 피로를 느끼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주체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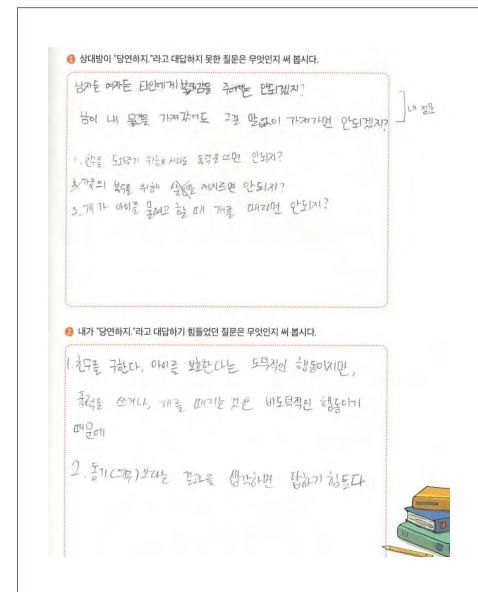
어떤 정의관은 추상적이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거나 학생들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계급으로 조화를 이루는 마을, 똑같은 모습의 평등을 강조하는 마을, 도덕 법칙을 의무로 따르는 마을의 정의관은 이해하는 것만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마을들의 주장 자체를 정의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 ‘코로나 백신 접종’과 ‘백신 패스’에 관한 견해 차이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옳음’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옳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학생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활동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업 시간 규칙 정하기(학급의 생활 규칙 정하기를 변경),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옹고 그림의 기준으로 삼는 마을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 운행 프로그램 설정을 놓고 벌인 도덕적 딜레마 토론 활동,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를 체험하는 ‘번개 장터’ 활동, 국가의 간섭이나 규제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지상주의 마을에서 ‘사물함 선택권 경매’ 활동은 자기 생각을 주체적으로 표현한 활동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에게 사물함 선택권을 주는 활동은 교사의 개입 없이 학생들 스스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사물함 분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앞서 공부한 조건의 평등과 연결 지어 찾아내고, <자유, 프리 패스>가 주장하는 자유 지상주의가 충분한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어야 하는 불평등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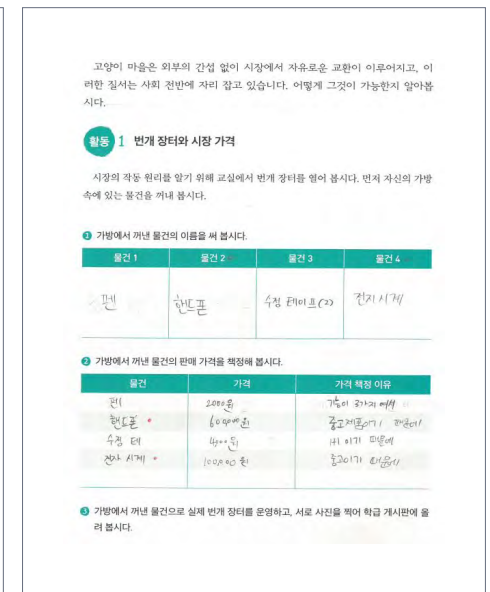
여행길, 든든한 동료와 함께 하다!

위의 사례들처럼 우리의 삶과 연결된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사전에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의미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을 연구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버거운 일입니다. 『시민과 사회정의』 수업을 디자인하는 민주시민 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중학교 민주시민 교육과정 전문가 연수’를 함께 받은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10여 명이 매주 월요일에 만나 필자의 수업 소감과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자주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의미 있는 조언들과 차시별로 수업을 디자인하고 그 결과를 항상 공유해 주셔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행의 흔적



| 도덕법칙으로 대화하기



| 번개 장터와 시장 가격

여행자들의 이야기

<정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마지막 날 학생들과 수업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행을 안내하는 교사도 힘겨웠는데 학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두가 초행인 여행을 끝까지 함께해 주어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여행을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인지’, ‘여행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행을 힘들게 한 것은	여행에서 얻은 것은
■ 내용이 어렵다 ■ 모르는 단어가 많다 ■ 의견을 말하는 게 힘들다 ■ 틀릴까 봐 말하기 두려웠다 ■ 2시간 연속 수업이 힘들었다	■ 사회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 『시민과 사회정의』 교과서를 처음으로 공부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 내가 아닌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 정의를 알게 되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시작한 수업이었습니다. 방향을 잃기도 하고 준비한 활동을 절반도 못 하거나 예상 못 한 반응을 보면서 자신을 탓하며 좌절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교단에 처음 서는 신규 교사의 마음으로 교과서를 연구하고 자료를 찾았습니다. 막막할 때는 함께 방법을 찾고 조금씩을 누르고 기다리면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주아리는 그의 저서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에서 “투표를 하는 나라에서 시민 개인은 사유하고, 토론하고, 읽고, 분석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의미 없는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정의관을 탐색하는 짧은 여행을 통해 서투르지만 자신의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누구의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질문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06 선학 중학교

● 도현정

하루를 여는 ‘아침 15분 학급회의’

학급회의에 대한 고민

학급회의 시간이 되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결국은 그동안 시간이 없어 못 한 잔소리와 각종 설문조사, 수합해야 할 가정통신문 등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곤 합니다. 다행히 학급회의를 해 보겠다고 마음먹고 교실에 들어가더라도 학급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일상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 아이들의 침묵과 교사나 진행자의 진땀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학생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합니다. 자율성과 자발성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가장 큰 역량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키워내는 한 축에 학급회의가 있습니다. 책 속에 담긴 모범 정답과 같은 긴 글을 외우게 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당면한 문제 혹은 성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면, 그 해결 과정에 참여한 경험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하며 균형 있는 공동체의 삶을 이끌 수 있게 합니다.

이렇듯 교사로서 그 중요함을 이해하지만 안타깝게도 학급회의 시간은 교사의 고민과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보다 학생들의 참여 기회가 보장된 선학중학교에서도 학급회의 시간에 대한 어려움과 고민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실천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아침 15분 학급회의’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학급 학생들과 학급회의 시간의 어려움을 물었을 때, 그 첫 번째가 ‘무엇을 이야기 나눌 것인가?’입니다. 학급회의 시간이 되면 선생님들은 교실을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뭐 하지?’하며 걱정되는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간혹 있는 이 시간이 선생님들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학급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지 물었을 때, 그간의 일들에 대해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생각이 나지 않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생자치부에서는 학생회 회의를 통해 자치 시간에 나눌 안건을 준비해 학급회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학생회에서 학급 친구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급회의 시간을 통해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학급회의 시간은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학생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일상적인 학급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때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 형태를 개선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았습니다. 일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급회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소수의 발언이 전체 의견으로 보

인천광역시교육청 73

던 아이 중 교장 선생님의 연수를 다시 듣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시작하고 나니 어려움도 있고 책임감도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첫 회의가 끝나고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실제 겪은 어려움을 나누며 재교육이 있었습니다. 성장을 위한 서로의 경험과 생각이 다음 회의에 보태져 학급회의는 점점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달 정도 회의를 지켜본 선생님들께서는 전달이나 일방적인 지도가 아닌 학급 구성원 스스로 학급 운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매주 지난 시간의 약속들이 잘 지켜졌는지 혹은 지난 시간 학급 친구들이 준비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며, 어려운 부분을 돕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학급회의를 통해 학급 학생들 간의 유대관계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친한 친구들을 제외하면 학급 안에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는데, 말 한 번 나누지 못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15분으로 회의가 될 수 있을지 걱정했던 부분도 기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15분 동안 아이들은 통제나 지도가 특별히 필요 없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 더 집중해서 친구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매주 수요일 조회 시간은 학급회의를 합니다. 물론 매번 안전지가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친구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묻기도 하고, 딱히 그럴 것도 없다면 감사 나누기, 또는 감정이나 기대 등을 표현하는 서클로 학급회의 시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학급 칠판에는 그 주에 나온 안전에 대한 의견을 일주일 동안 게시하며, 문제 행동이 보이면 스스로 문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읽어보기도 하고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의견이 모두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언제가 수업에 들어갔던 교실의 칠판에 '나쁜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00선생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자.'라는 의견을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회의 초반에는 응보적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 말해 혼내 달라고 한다.', '지각하면 벌금을 내게 한다.' 등 회의 중간에 '지도해야 하나?'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급회의보다 조회가 낫겠다 싶을 정도의 순간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 민주적 소통방식, 학급회의

교장 선생님과 학급회의를 매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공감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교무실을 다니시며 어려운 점을 물어보시기에 다른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지도하지만, 나아지지도 않고 잘못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생활지도가 힘들다며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지도가 반복되면 아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보다 나만 혼난다며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도하면 효과적일지 이야기 나누다 교장 선생님께서 학급회의를 통해 친구



| '아침 15분 학급회의'를 진행하는 학생들

들의 말로 들려주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성적보다 관계를 중시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친구의 말이 더 의미 있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학급 운영의 어려움을 교사 혼자 책임지기보다 학급 안에서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급회의를 잘 운영한다면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꼭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학급회의는 오랜 시간부터 교육과정 안에 중요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학급회의는 어렵고 불편할까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쩌다 간혹 있는 학급회의는 권위적이며 수직적이었습니다. 덕분에 경직되고,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문제를 논의하기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질서나 학생다움을 강조하는 제안에 대해 일방적인 약속을 요구하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볼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공동체와 함께 자기 삶을 돌볼 힘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선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민주적 소통방식인 학급회의는 갈등을 넘어서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민주시민의 힘이 될 것입니다.

07

북인천
중학교

● 안민영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연대하는
사회참여활동

♡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는 감각을 키우는 역사 공부

은유의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을 읽으며 밑줄을 긋다가 잠시 생각이 멈췄던 문장이 있습니다.

싸울 때마다 질문은 탄생했다. 집안일부터 세상일까지 나의 울컥은 생의 질문이 되었다. 끝도 없고 두서없는 물음의 연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었다. 내가 구상하는 좋은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는 세상이다. 혹서기나 혹한기도 예외 없이 캐리어 위에 방석 하나 깔고 앉아 칸 마을을 파는 할머니의 다 닳아 빠진 엄지손톱을 보면서 그의 삶을 가만히 헤아리는 일이다. 2014년 4월 16일보다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이다.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고 존재가 존재를 닦달하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가능할까.

과거의 수많은 사건을 담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가르치며, 학생들이 세상에 대한 질문이 많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고통 없는 세상을 꿈꾸기’ 앞서, ‘고통을 알아보는 감각’ 그리고 더 나아가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얀마 유학생 헤이만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미얀마인의 눈물을 보다.

2021년 2월, 뉴스에서 동남아시아 건너의 나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월 개학 이후, 학생들과 뉴스를 함께 보고는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해야 할지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사인 저에게도 미얀마는 상대적으로 낯선 나라였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고, 학생들과 본격적인 주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책무감은 있었으나 정작 교사인 저부터도 정서적 공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교사 모임 특강을 통해,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와 있는 미얀마 출신의 헤이만 헤인 씨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감정적으로 건드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헤이만 씨는 자국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미얀마의 평화 회복을 위해 언론 인터뷰, 외교부 면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과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강의 자료로 전하던 그는 북받치는 감정을 꺾꺾 누르고 있었습니다. 헤이만 씨가 자국의 억압적 상황을 전하기 위해, 신분 노출의 부담을 무릅쓰고 외교적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본격적으로 미얀마 민주화운동 관련한 수업을 고민하고 진행하였습니다.

♡ 국가 폭력의 문제를 수업에 다룰 때 유의해야 할 것들

미얀마 군부는 저항하는 시민을 향해 폭력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전달해야 할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어떠한 방향과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군부 세력과 같은 집단이 시민을 향해 자행하는 폭력 문제를 수업으로 다룰 때, 유의해야 할 부분부터 고민해보았습니다. 수업을 설계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대응을 통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이해하게 하면서도, 군부의 폭력적 행위 장면만이 대표적 이미지로 기억되지 않도록 이미지 선정에서 주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미얀마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으로 상대를 대상화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타자화를 시키는 방식은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왜 우리가 미얀마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 스스로 마음이 발화되도록 방향을 잡아 이와 더불어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본질적 의미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연대의 행위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자고 생각했습니다.

♡ 발화된 연대의 마음을 실천 활동으로 이어가기

몇 차시의 수업을 통해 미얀마인들에 대한 공감의 감정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서 활동을 통해 예열된 마음을 실천으로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세력에 대해 평화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우리가 연대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라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동참할 수 없는 만큼, SNS를 통해 응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패들렛 창에다가 각자의 의견을 적어갔습니다. ‘응원 영상 제작하기’, ‘응원 문구를 들고 사진 찍기’, ‘손가락 세 개 들고 사진 찍기’, ‘미얀마어로 응원 문구 적기’ 등의 다양한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반별로 투표를 진행하니, 대부분 학급에서 ‘미얀마어와 한국어를 병행해서 응원의 문구와 그림 그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제시된 문구의 미얀마어를 따라서 썼고, 저항의 의미를 상징하는 세 손가락과 미얀마 국기 등을 함께 그렸습니다.



| 학생들이 그린 응원 문구와 그림 |

미얀마 수업을 진행하며 교사 모임 온라인 특강 때 깊은 인상을 주었던 헤이만 씨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예열이 된 상태라 이제 강연으로 만나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헤이만 씨에게 강연 섭외하는 메일을 띄우면서 학생들이 제작한 미얀마 응원 그림들 일부를 첨부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이만 씨는 며칠 후, ‘미얀마 사람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헤이만 씨는 학생들의 그림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 게시글은 3,000여 개의 ‘좋아요’ 버튼을 받았으며, 3,000여 회가 넘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해 간 이들의 SNS에 들어가니 미얀마 시민들이 그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옮겨가며 짧은 감상 글들을 남겨 두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학생들이 서툴게 미얀마어로 쓴 ‘힘내라 미얀마’라는 말에 감응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헤이만 선생님의 설명글 때문인지, 사회 현상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가 전한 메시지에 ‘세상은 완전히 우리 편이다.’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Aye Nyein Swe 2일 · 🌐 버마어 ▶ 한국어 ကလေးတွေကအဝ အမတ်တွေအဆုံး အိမ်နီးချင်းကောင်း အပီသဆုံးနိုင်ငံပါပဲ 🙏🏻 아이들은 시작과 끝이다. 좋은 이웃이 최고의 나라다 🙏🏻	Poant 2일 · 🌐 너무 행복해서 울었 어 😭 감사합니다 🙏🏻💖
Htoo Aung Rayzo 2일 · 🌐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림 ❤️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い あお 2일 · 🌐 버마어 ▶ 한국어 ကမ္ဘာကြီးက ငါတို့ဘက်မှာ အပြည့်အဝရှိနေတယ် 세상은 완전히 우리 편이다
Honey Berry 2일 · 🌐 버마어 ▶ 한국어 သူတို့ ေလးေတြရဲ့ပုံစံအရမူးကု်ေကု်ေ ကြနူးတယူ။ 그들의 마음은 너무 좋아.	Bhone Myat Maung 2일 · 🌐 버마어 ▶ 한국어 သူတို့education system ကိုအားကျသလို respectလည်းဖြစ်မိတယ် 😊.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 학생들의 그림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SNS 반응 |

📍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 헤이만 씨와의 만남

드디어 헤이만 씨와 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헤이만 씨는 불의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는 강연 자료 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에 머물면서 조국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헤이만 씨 역시 ‘용감한 미얀마인’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미국 국립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제노사이드 교육 원칙 중에는 제노사이드에 직면했을 때 위협에 맞선 시민의 용기를 보여준 이들의 행동과 선택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헤이만 씨를 만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헤이만 선생님에게 듣는 미얀마 민주화운동 이야기



한편, 학생들의 소감에는 ‘헤이만 선생님은 소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였습니다. 헤이만 씨는 자신을 소개하는 첫 마디에 본인이 무척 내성적인 사람이라, 늘 조용히 있는 성향인데, 올해 2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본인의 성격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론에서 당당하게 인터뷰하던 헤이만 씨의 영상을 봤던 아이들은 이 지점에서 역사 속의 ‘영웅’으로 평가받는 이들이 어찌하면 당시에는 망설이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결국 ‘외면하지 않아서’ 그런 실천을 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텍스트에는 담기지 않는 당사자의 표정, 말과 말 사이에 이어지는 긴 침묵이 때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헤이만 씨의 강연이 그랬습니다. 헤이만 씨는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꼭꼭 눌러야 했고, 가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방과후 학교의 고요한 적막 속에 학생들도 저도 함께 훌쩍거렸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활동에서 미얀마를 응원하는 문구를 정해 응원 메시지를 제작하였고, 이는 헤이만 씨를 통해 SNS상에 3,000회 이상 공유되면서, 미얀마 현지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교실에서도 국경 너머의 연대 활동이 가능하며, 개인의 관심과 응원이 실제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의 작은 날갯짓이 다른 이에게 커다란 연대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감각을 기억하며, 사회 문제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문제에서도 관심과 실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사인 저 역시도, 아이들과 함께 세상과 맞닿는 접점을 만들었던 경험을 새기고 또 새기고자 합니다.

08

북인천 여자중학교

인천이음중학교(2022)

● 이주관

성실, 정의, 책임, 배려로 만드는 ‘민주학교’

북인천여자중학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민주학교’로 선정되어 3년째 민주학교 사업을 운영하면서, 성실, 정의, 책임, 배려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북인천여중에서 민주학교 업무를 담당하면서 진행한 민주시민교육 이야기와 제가 느낀 생각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 중학교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시민과 사회 참여』, 『시민과 사회 정의』 자유학기제 및 3학년 수업 적용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운영
- 다양한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주권자 교육, 인권 교육 등)
- 정기적인 학급회의(월 1회) 및 대의원회 개최(학교장과의 대화 연계)
- 학생대의원회 리더십 캠프 운영 등

| 제 1회 학생대의원회



| 2021 리더십 캠프



|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 교육 3주체 대토론회

위와 같은 교육 외에도 북인천여자중학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과 해당 분야 수업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긴 고민은 학생 또는 지도교사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덕목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고 그 자체 속에 이성적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덕도 정신의 이러한 구별을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즉 우리는 덕 가운데 어떤 것을 지적인 덕이라 부르며, 다른 어떤 것을 도덕적인 덕이라고 부른다. 철학적 지혜나 이해력이나 실제적 지혜는 지적인 덕이고, 관후라든가 절제는 도덕적인 덕이다. 어떤 사람의 성격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가 현명하다거나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고, 성품이 온화하다거나 절제를 잘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현명한 사람의 정신 상태에 관해서도 칭찬한다.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정신 상태를 덕이라 부른다.”

-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최명관 옮김(2009), 『니코마코스 윤리학』, 도서출판 창.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언급하면서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을 정의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플라톤 역시 4주덕(지혜, 용기, 절제, 정의)을 이야기하며 각자 자신이 가진 덕목에 맞는 위치를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민주시민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덕목을 갖춘 성숙한 인격체이며, 그런 사람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목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는 민주주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인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 어떤 교육을 해야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민주시민의 자질과 덕목을 갖출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공리주의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 많은 사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활동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다수결로 안건을 채택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편의(general expediency)만 생각한 경우 학교의 교칙과 어긋나는 의견을 선택하거나 교육 목적에서 어긋나는 안건을 회의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선택한 안건이 다음 사항을 위배하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지(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각자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지 등등.)
- 공익성을 해치는 의견은 아닌지
- 학교의 교육 목표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 외에도 많은 법칙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법칙들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학생 구성원이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덕목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기본을 가르치는 입장’이라는 전제하에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생들은 민주시민교육을 받는 주체라는 것’을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모든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교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가 교육적 목적과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 3주체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서로 협력해야 할 관계입니다. 하지만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고, 구성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는 모든 구성원을 의견을 수용하고 3주체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주체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지 못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공익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민주시민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복인천여자중학교에서는 담당부장님과 관리자님을 꺼서 이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셔서 제가 기준을 잡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 앞장서시고 학생, 학부모 또는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후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이처럼 책임감과 의지 있는 관리자의 협조는 민주학교에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학교 지도교사는 학생들에게는 민주시민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학부모와 동료 교사 및 관리자에게는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훌륭한 중재자로서 민주시민교육 담당자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 해 봅니다.

1. 선생님들과 민주시민교육을 하면서 고충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정기적인 공유회 운영 강화

이것도 이미 하는 내용인데 저는 정기적인 공유회 운영에서 다양한 학교를 사례를 접했고 이로 인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서 공유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 강화

물론 이 부분도 이미 교육청에서 주관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민주시민의 정의와 역사 배경 등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연수가 강화되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4. 지속적인 토론회 주제

민주시민은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매우 바쁜 것은 공감하지만 토론회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견해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과 지속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 지속적인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준비와 수업, 담임 등 업무에 바쁘지만,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해주시는 만큼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서 더 성숙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바쁘시더라도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내면 어떨까요?

민주학교는 어느 한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받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주었던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신 많은 선생님과 외부에서 오시는 많은 강사님, 그리고 업무를 맡아 책임감을 가지시고 운영하는 관련 부장님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믿고 지지해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항상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적극적인 커뮤니티공간으로 민주학교가 형성되어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09

만수
중학교

인천남동중학교(2022)

● 이주식

학생 자치 동아리(MSG)와 함께한
학생자치 담당교사 이야기

사실 평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이나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학생자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민주시민교육, 특히 학생자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학생자치에 대해서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결론은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선 ‘학생자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학교와 자신들이 속한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학교의 문제나 행사를 학생 스스로 풀어나가는 일’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학생자치 활동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학생회로만 학생자치를 운영하면, 학생자치 활동을 운영하고 생각을 나누기가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자치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로 조직하여 운영하면 훨씬 재미있고 학생들에게도 뜻깊은 학생자치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학생자치 동아리 이름을 학교의 이름을 따, ManSuGenius로 정하고, 학년 초에 바로 모집을 하였습니다. 학생회와 학생자치 동아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 학교를 위해서 바꿔보거나 활동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화장실에 냄새가 너무 나서 화장실 냄새를 없애기 위한 방향제를 설치하고 싶다.’, ‘우리들이 기획하는 게임 e-스포츠 리그를 열고 싶다.’, ‘우리 학교 급식 메뉴가 너무 별로다. 학교 급식을 바꿔보고 싶다. 우리가 식단을 만들어보고 싶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이런 불만이나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저 역시 업무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업무뿐만 아니라, 학부에서 대학생 시절 학생회장을 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일까요, 아이들과 함께 한번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서 해볼 수 있는 만큼 아이들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자치와 관련하여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는 첫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바로 실천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생자치 활동에 있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화장실에 냄새가 나서 아이들은 방향제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화장실 냄새를 없애기 위한 방향제를 곧바로 설치하였습니다. 학생회 그리고 학생자치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어떤 방향제를 살지, 그리고 인터넷 쇼핑물을 함께 보면서 어떤 향기가 좋을지 의견을 나눈 끝에 방향제를 구입하고, 설치하였습니다. 사실 방향제를 사서 화장실에 놓았을 뿐인데, 아이들의 만족도는 정말 높았습니다. 화장실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정말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를 듣고 학생자치 동아리 아이들도 나름 뿌듯해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자치를 운영할 때 모둠별로 운영해 보는 방법이 나름 효과적이었다는 점입니다. e-스포츠 리그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1학기와 2학기 나눠 진행하였습니다. 1학기에는 사실 처음 학생회가 기획하고 운영해 보는 것이어서 그런지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고, 리그 대진표, 운영 방식, 상품 정하기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였습니다. 지도 교사가 활동을 돕기 위해 중간중간 개입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이게 과연 학생자치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학생자치라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행사나 활동을 기획하고 회의하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00% 학생 스스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생자치를 접근하고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도 교사도 쉽게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이 스스로 모든 것을 운영하면 좋겠지만, 중학교에서 그것도 남자 중학교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때 새롭게 접근한 방법은 처음부터 아이들이 모든 것을 해내리라는 생각보다는 조금씩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지도하면서 권한을 이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담당 교사인 저 역시, 권위적이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 아닌, 아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도 제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교사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지만 점차 담당 교사가 빠져도 학생들 스스로가 움직이고 운영하는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생자치와 관련하여 여러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회와 학생자치 동아리 학생들 전원이 움직이다 보니 책임감도 조금씩 떨어지고, 활동에 빠지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진행하긴 하였지만, 학생자치에 있어서 책임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생회와 학생자치 동아리 학생들을 활동을 중심의 팀별 운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식단 팀, 우산대여 팀, e스포츠 팀, 홍보 팀으로 나누어 각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팀을 선택하고, 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학생자치를 담당하는 교사도 훨씬 수월하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었으며, 아이들도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팀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책임 의식도 강화되었습니다.



| 학생자치 자율동아리 MSG 모집 포스터



| 학생회 및 학생자치 동아리 주관 e-스포츠 리그 결승전 중계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2학기 e-스포츠 리그에서는 학생회와 학생자치 동아리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2학기 동안 학생들이 원하고, 학생들을 위한 e-스포츠팀을 따로 조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학기에 비해 확실히 아이들 스스로 기획하고 상품도 정하고 운영 방식을 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학생자치에는 반드시 비용을 들여서만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물품이나 간식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큰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갠 것이 ‘학생과 함께 만드는 학생 식단의 날’을 운영한 것입니다. 학생회와 학생자치 동아리 아이들이 식단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이에 우리가 식단을 짜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와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우선 급식실의 영양사님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흔쾌히 영양사님도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처음으로 한 작업은 무작정 우리가 식단을 짜기보다는 그동안 나왔던 식단표의 급식 메뉴를 중심으로 짜보자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의 테마(중식, 일식, 양식 등)를 정하여 메뉴를 구성해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나왔던 식단표의 음식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하여 영양사님과 회의를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식단팀을 중심으로 영양사님과 함께 식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영양사님은 학교 급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학교의 급식의 단가는 얼마이며, 우리 학교가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들어 음식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다른 학교에 비해 작다는 점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학교 급식에 대해 막연하게 맛이 별로라는 불만만 가졌을 뿐, 그 이면에 있는 학교 급식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번 식단 구성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알게 되었고 아이들도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미리 준비한 메뉴를 영양사님께 보여드렸고, 칼로리 등을 함께 고민하고 조정하여 ‘학생과 함께 하는 급식의 날’ 메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월 1일은 ‘학생과 함께 하는 급식의 날’로 정하여 식단표에도 제시하였고, 홍보 팀을 중심으로 그날은 열심히 홍보하고 만족도도 조사하였습니다. 만족도는 압도적으로 만족이라는 평이 나왔고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

원 등 다른 구성원들도 만족하였습니다. 이렇듯 무언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학생들이 주도로 학교의 식단을 바꿔볼 수 있었던 점이 정말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자치 활동은 사실 쉬운 활동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의 생각의 전환과 교사의 관심, 노력을 더하면 분명 아이들의 자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올해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학생자치 업무 담당이 아니더라도 학생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나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학생이 다하리라는 생각, 혹은 교사가 계속해서 해줘야 하는 부담감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아이들에게 이양하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로 ‘학생자치’의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걸음을 내딛는 중입니다!



학생과 함께하는 식단의 날 |
식사를 한 후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



학생과 함께하는 식단 구성을 위한 학생자치동아리 |
식단팀과 영양사님의 회의

마을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학생 시민 이야기

💡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주권자로 성장하는 아이들

주권자 교육이란 헌법을 바탕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비판적 능력과 자립적 사고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기존의 주권자 교육은 헌법에 대한 소개나 입법 과정에 대한 지식만을 강조하는 교육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권자로서 갖는 의미와 역할을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대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주권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 사항에 대해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논쟁 수업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참여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바뀌어 나가는 경험을 하게 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참여는 주권자 교육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마을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적용해 보고 펼쳐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은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갈등 상황을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마을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주민 및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 주권자로 성장합니다. 이 글은 바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주권자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 우리 학교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지난해 봄, 우리 학교 주변이 무단투기 된 쓰레기로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문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이미지를 손상하고, 위생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러 학생자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 쓰레기가 많은 이유는 학교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불명예에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지만 무단투기 된 쓰레기의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열심히 학교 주변을 청소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

였고, 지역사회에 학교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반대 캠페인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우선 선생님들이 나서서 학교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조회시간에 전교생에게 보여주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고, 학생자치회에서 캠페인 문구 공모전을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공모에 당선된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가 제법 강렬한 색채와 메시지를 뽐내며 학교 담장 사방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이자 전국의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학생자치회 학생들과의 논의 끝에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우리 지역의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과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 학생들에게 물으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도 모르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리 만무하였습니다. 학교와 집, 학원만을 오가며 쫓바퀴 돌 듯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바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며 아침에 학교로 출근하여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교사들 대부분도 아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사가 접하고 이야기하는 세상은 그들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교과서와 인터넷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권자가 되려면 내가 속해 있는 곳의 문제부터 찾아보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해결하였을 때 나의 삶이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학교 주변만이 아닌 우리 마을의 쓰레기 무단투기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하고 싶다는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좋은 생각이라며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주셨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흔쾌히 만남을 수락해 주셔서 지역사회기관과 학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학생자치회 회장단, 캠페인 활동 부장과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날은 한낮에는 제법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는 여름 초입이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생각보다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장님께서 직접 나와 우리를 반겨주셨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협의회실에는 학생들을 위한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을 존중해 주시는 그분들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30분 남짓 진행된 협의를 통해 그동안 우리 마을의 행정복지센터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며 그동안 몰랐던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사인 저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과 동일선상에서 배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협약이 끝나고 우리는 그동안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해왔던 쓰레기 무단투기 반대 캠페인 ‘클린 데스크(Clean-desk)’ 활동을 함께 하는 것에 협의하였습니다. 클린 데스크(Clean-desk)란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지역을 청소한 후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책상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며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는 캠페인 활동입니다. 통장님을 비롯한 마을 주민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데, 여기에 우리 학교 학생자치회가 힘을 보태 참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주변에 널부러진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플로깅 등의 활동도 함께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의



| ‘클린 데스크(Clean-desk)’ 활동

마음과 함께하는 학생 시민, 쓰레기 무단투기 반대 캠페인 활동

드디어 클린 데스크(Clean-desk) 활동 첫날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 2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며 캠페인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학생자치회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얼마나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인지 알리는 편지를 써서 마을 곳곳에 부착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졌던 곳에 클린 데스크(Clean-desk)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주택가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자기 집 앞에 버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역 신문에도 기고하여 사람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며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돌며 플로깅을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적으면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한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한번 참여했던 친구들이 자신이 해야 하는 날이 아닌데도 다음날 자발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참여했습니다. 학생자치회에 속하지도 않았음에도 친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활동해 주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날이 아닐 경우 선배나 후배들, 선생님들, 마을 주민분들이 고생한다고 자신의 용돈으로 음료수나 빵 등을 사 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은 학생과 선생님이 고생한다고 삶은 계란

을 준비해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 클린 데스크(Clean-desk) 맞은편 편의점 사장님께서서는 좋은 일 한다면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열심히 마을의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줍고 있으면 동네 뽕튀기 장수 아저씨가 멋진 아이들이라며 뽕튀기를 무료로 주시기도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커서 크게 될 학생들이라며 아이들에게 덕담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서로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삶과 연계된 교육 과정을 실현하고 민주시민이자 주권자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시작했던 활동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인 나와 지역 주민들 모두를 하나로 연결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시민이자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동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과 함께 연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반대 캠페인 활동을 하고, 학교 주변 플로깅 활동을 하며 실제로 우리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깨끗해지는 등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활동하며 마을이 학교를 도울 줄만 알았지 학교가 마을을 돕는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니 더 큰 힘을 이루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우리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며 애쓰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니 더 큰 힘이 되어 뿌듯하고 재미있어 매일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며 학생들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마을과 연계하는 경험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지역사회 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모두를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우리 모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직접 깨닫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주권자 교육을 통해 마을과 만나 학생들 모두를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



| 신문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기

♡ 세상으로 나가는 힘, 주권자 교육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낍니다. 자기결정을 통해 얻게 된 실패와 갈등의 경험은 무엇을 할 줄 몰라 시켜주기만을 바라던 모습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으로 학생을 성장시킵니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 주권자 교육은 그동안 비교과 활동으로 치부되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교실 안에서만 중시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훔볼트는 “학교란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다양한 이상을 실험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사고하고 탐구하며 미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학교의 모습을 꿈꾸며 우리 학교는 올해 사회참여를 교육과정 안으로 들여와 2학년 학생들이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정 교과서 <시민과 사회참여>로 일주일에 한 시간씩 공부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주권자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주권자 연습이 충분히 되었을 때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주권자로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바꾸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 평화와 공존을 위해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세계에서 평화와 공존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성장할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학교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권자 교육은 바로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자, 세상으로 나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11 인천공항 중학교

강화고등학교(2022)

● 장윤희

SCIENTIFIC 사회참여, 과학교사의 사회참여 도전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동물이라고 했을 때 표범이라는 동물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표범이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과거 우리나라에도 표범이 많이 서식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표범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표범의 낮은 유전다양성이 장기적인 생존을 위협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며 과연 저는 표범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학생들과 함께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공원을 산책하면서, 책을 보면서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는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이라는 과목을 떠올렸을 때 흔히 이론과 실험, 탐구하는 것을 많이 떠올리지만 사실 과학자들은 사회참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하버라는 과학자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과학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사회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참여의 시작은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동아리의 시작은 인천공항중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참여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를 찾기 위하여 우리의 터전인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학교 주변의 세계 평화의 숲, 영마루 공원 등 다양한 곳을 다녔습니다. 우리 마을을 돌아본 후에 브레인라이팅을 하여 문제를 발견하고자 하였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교과 지식과 우리 마을의 인적 네트워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종도와 관련한 다양한 신문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우리는 영종 환경연합이라는 단체의 대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종 환경연합이라는 단체가 처음에는 생소하였지만, 영종도의 환경을 위하여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종 환경연합은 영종도에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영종도 갯벌에 서식하는 칠게의 무단 포획, 그리고 영종도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등 우리 지역의 다양한 환경 현안에 대하여 다루는 단체였습니다.

여러 현안 중에서 우리는 저어새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종도에 천연기념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신기하였습니다. 영종도에는 수하암이라는 저어새가 서식하는 곳이 있고, 현재 이곳이 개발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영종 환경연합이 이 문제를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저어새 서식지를 탐방하기로 하였습니다.



| 영종환경연합 대표과의 만남



| 저어새 서식지 탐방



| 낙서 예술가와의 만남



| 저어새 관련 그림책 사진

저어새 서식지를 탐방하고, 영종 환경연합 대표님과 만나면서 저어새에 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저어새 서식지에 가서 저어새를 보았고, 저어새 연구소와 영종 환경연합 대표님과 함께 서식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저어새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하암에 저어새 둥지를 만들어주기도 하였고, 저어새의 이동을 분석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했고, 우리가 사는 곳 주위에 저어새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영종도 수하암이라는 곳에 저어새가 산다는 것과 저어새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지역 신문사인 공향투데이와 연계하여 저어새 서식지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거부감 없이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그 결과 예술 활동과 융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낙서 예술가를 만나 함께 저어새와 관련된 굿즈를 만들었고, 나아가 인천의 행사인 생태환경 한마당에서 저어새 에코백을 그리며, 우리 마을에 저어새 알리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 내용을 만화 동아리와 협업하여 그림책으로 엮어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주위에 산재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환경운동가도 만나고, 예술가도 만나고, 신문사와도 소통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사회참여를 진행하게 된다면 또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저어새와 관련한 활동은 새로운 활동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생태 공원인 세계 평화의 숲에 있는 나무들을 조사하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나무 팻말과 나무 도감을 만드는 활동을 전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참여 활동 이후 과학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학 반응식에 대한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이 반응식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고,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자들은 사회에서 어떤 고민을 하였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서 이러한 고민을 하며,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으며, 이러한 Scientific 사회참여를 통하여 학생들, 그리고 과학교사인 저도 훌륭한 과학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사회참여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목소리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사회참여 활동을 경험한 학생의 소감

1. 저는 사회참여 활동 중에서 예술 활동과 융합하여 작품을 만들었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회참여라고 하면 딱딱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서 예술가 리오지 작가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재미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과 만남을 통하여 낙서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낙서 중에서 글씨를 낙서처럼 귀엽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너무 귀여워서 글씨 하나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낙서 예술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모두가 좋아하고 실용성이 높은 에코백에 저어새라는 글씨를 에코백에 써서 낙서 예술로 표현해 나누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사는 저어새와 저어새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였는데, 이처럼 예술과 융합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어새 에코백을 만들면서 글씨를 써 주는 동안에 기다리시는 분들과 저어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저어새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 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완성된 에코백을 보며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니 팔목은 아팠지만, 굉장히 뿌듯하여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연결되어 사회'참여 활동을 한 것이 제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인천공향중학교 조OO)

2. 찐시민 프로젝트와 같이 각 학교의 사회참여를 공유하면서 우리 활동에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어새 관련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서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활동하는 사회참여 활동을 보면서 동년배 친구들도 각자의 환경에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나니 학교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여러 사람과 함께하면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학생들이 더욱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향중학교 김OO)

12 강화 중학교

● 조우영

서로 바라보고 귀 기울이는 ‘교육공동체 회의’ 운영 방법

방학 중 시 교육청 담당 장학사로부터 학교 민주시민교육 수기 공모에 참여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장학사의 권유인지라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짧은 고민 끝에 그러겠다고 말하고선 여러 주 동안 고민하며 텅굴거리기만 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걸 쓴다고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원래 글재주가 없기도 하고 수기까지 쓸 만큼 뭘 했나 싶은 생각에 민망하기도 해서 쉽게 글을 써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혹시라도 제 글을 읽는 분들께 그저 당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글을 읽을 때면 정답지를 펼쳐놓고 보는 문제지같이 스타일이 없는 무미건조한 글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름 작년 교육공동체 회의에 대해 많은 날들을 복기해 보기도 하고, 열심히 곱씹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작은 성과지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2019년도에 경기도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주체들(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로 구성된 ‘학교 민주주의 워킹그룹’을 운영하였고, 2020년에는 인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3주체 협의회를 바탕으로 ‘공간혁신’이라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진행된 공모사업은 매우 낯설었지만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학교는 여전히 교육청과 학교, 교사가 주도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수용하는 일방적인 교육 환경이었는데, 2년의 경험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학년도 민주시민교육부를 맡게 되며 교육공동체 회의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과연 지난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문을 바탕으로 2021학년도 교육공동체 회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회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 의미 있는 협의가 되도록 한다.
- 각 주체의 입장에 대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의 협의가 되도록 한다.
- 각 주체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만남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즐거운 자리가 되도록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협의회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지난 교육공동체 회의와는 달리 일상적인 학교의 소통과 협의기구로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2020학년도 교육공동체 회의는 ‘공간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함께 해나가는 형식이어서 따로 안건을 상정하지는 않았지만 2021학년도에는 학교의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공식적인 협의체의 형식을 갖추고자 하였기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안건을 만들어 논의를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안건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발굴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안건의 조건은 3주체가 논의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각 주체의 자발적인 건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참여하는 위원들이 최대한 각 주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회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활동의 주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2년의 경험이 있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의견을 내거나 관여하는 것은 뭔가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의 교사는 교육을 하는 주체이며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회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의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각 주체별로 대표위원을 9명으로 균등하게 하여 총 2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각 주체의 인원도 균등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표성을 가지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학생: 학생회장단, 각 학년 대표, 학년 부대표/ 교사: 교장, 교감, 각 부서장/ 학부모: 학부모회장단, 운영위원장, 각 학년별 학부모회 임원) 그리고 안건은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수집하고자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경우는 학급회의를 통해, 교사들은 학교망 SNS를 통해, 학부모는 학부모회 소통방을 통해 의견을 수합하였고, 수합된 의견들을 유목화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회의에서 선택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또 교육공동체 회의가 무엇인지, 교육공동체 회의의 필요성에 대해 위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강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제1회 교육공동체 회의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교육공동체 회의를 준비하면서 위원 구성과 강연회, 회의 진행 방법 등을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6월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회의는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통해 시작하였습니다. 강연을 담당하시는 강사님께서 지리적으로 먼 곳에 계셔서 부득이 강연은 줌(ZOOM)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원래는 강사님을 직접 모시고 강연을 진행해 참여자가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며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미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갖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격으로 진행되었고, 강당에서 모여 강의를 듣다 보니 강사가 참가자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질의응답도 원활하지 않았으며 학생들과 함께 듣기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들으며 힘들어 하는 위원들을 바라보면서 담당자로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강

연이었는데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첫 관문부터 쉽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강연은 현장성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부 강연회를 마무리하고 2부 토론회에 들어갔습니다. 토론회는 사전에 3주체의 의견을 모은 것 중에서 위원들에게 각 3장의 스티커를 주어 원하는 주제에 투표하도록 했으며 가장 많은 스티커를 얻은 3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투표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이야기도 나누면서 아까와는 달리 조금씩 활발해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둠 구성은 3주체가고루 모일 수 있도록 사전에 모둠을 정하여 안내하였고 3가지 주제를 원하는 모둠에서 각각 나눠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모둠별 토론을 하면 주도적인 몇 사람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어른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얘기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클 대화법을 조금 변형한 토론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든 모둠원들은 카드로 된 발언권 3장씩을 받고 자신이 발언을 할 때 카드를 한 장씩 앞으로 내놓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발언권을 다 소진하면 더 이상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약속을 하였고, 이 방법은 생각보다 유효해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발언을 유도하였고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언어표현력이 부족한 중학교 남학생들의 입을 열게 하는 꽤 쓸만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론 순서와 제안서 양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서는 ‘주제-제안-의미-방법-한계’라는 항목을 주어 단계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안을 해야 하며 그 제안은 어떤 의미가 있고,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을 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변수,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각 주체별로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하여 서로 간의 생각과 입장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둠별로 토론 주제에 대한 제안서 발표의 시간을 가졌으며 발표 후 모둠별로 제안서에 대해 궁금하거나 보완을 해야 할 점 등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교육공동체 회의라 협의회 준비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음에 진행될 회의가 더 알차기 위해 준비과정에 서부터 3주체가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 회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학교 교육공동체 회의는 사전에 학생회장단, 학부모회장, 담당 교사가 모여 회의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토론 사례 중에 한 모둠에서 ‘교내 휴대폰 소지 허용’을 주제로 토론하였는데 역시나 학생대교사와 학부모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입장(학업스트레스 해소, 놀거리가 없는 학교, 학생인권 등)과 교사. 학부모의(휴대폰 중독, 학업 방해, 허용 휴대폰 분실, 몰가 등) 입장을 서로 이해할 수 있었고 제안서에는 아이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반별로 보드게임을 구입하여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교실에 있는 친구들도 잠시나마 놀 수 있는 것을 제공하자는 제



| 토의 주제 선정

주제	■ 학교구성원간의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 학생 수업시간이 아닌 자유로운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 선생님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기회가 많이 없다.
	■ 교사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다. 선생님의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 학부모 학부모로서 학교나 선생님에 아직 어렵다. 중학교 들어와서 아이들이랑 멀어지는것같다.
제안	■ 학생 자치회에서 안전 수칙 만들기/학급 내 선서 의식 등 진행
의미	■ 스스로 만든 수칙으로 잘 지켜질 것으로 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의 약속이 생길 수 있음/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될
방법	■ 칭찬 스티커(개인별 보상) 등 보상 체계 마련- 반별 칭찬 상점제후 반별 보상 체계 마련 ■ 안전수칙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한계	■ 적절한 보상 없이는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김 ■ 몇몇 반 혹은 학생이 지키지 않는 경우 잘 지키는 학생들도 안 지키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교사의 눈을 피해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보드게임은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중 일부를 활용하여 반별로 구입하여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1회 교육공동체 회의는 기대 이상으로 잘 마칠 수 있었고 협의된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회 교육공동체 회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강연회에 대해서는 강의식보다는 활동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회를 통해 사전 토의 주제를 위한 의견수렴 방법과 회의의 진행 방법, 결과와 실천을 통해 교육공동체 회의에 대한 매뉴얼이 기본적인 체계가 갖추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이 교육공동체 회의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교육공동체 회의가 기대되었습니다.

연간 계획에선 학기별 2회씩 총 4회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6월에 진행된 관계로 7월 진행하기로 한 교육공동체 회의는 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학기 교육공동체 회의는 9월에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2차 유행이 기세를 떨치고 있어서 회원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격회의를 제안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회 교육공동체 회의에서 합의하였던 준비 위원회가 모여 원격회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논의를 통해 준비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첫 도전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회의는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에 제약을 덜 받는 대신에 회의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상호 간에 마음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서클대화의 마음열기 형식을 빌려 참석한 위원들 간에 가벼운 인사말을 주고받았고 학생자치회에서 준비한 학교 관련 퀴즈 맞추기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본회의의 진행 방법은 전과 같았고 1회 교육공동체 회의의 결과에 대한 경과보고를 진행한 후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주제를 공유하고 모둠별로 소회의실을 활용하여 토론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첫 원격회의임에도 코로나 상황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익숙해진

까닭인지 구성원들의 거부감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등하굣길 안전 문제, 학교 생활 수칙, 교내 체육시설 개방 및 운동장 체육 기구 정비 등 지난 회의보다 다양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주제	•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만들기 위한 방안(학교시설, 교통, 구성원의 관계) • 학생 - 교내 사소한 몸싸움 발생 / 손소독제장난 등 발생/전동 킥보드타고 등교하는 3학년 학생들이 있음 • 교사 - 서로 제어해 주는 분위기가 사라짐 • 학부모 - 점심시간 계단에서 뛰는 문제, 쉬는 시간 복도 등에서 안전문제
제안	• 학생 자치회에서 안전 수칙 만들기/학급 내 선서 의식 등 진행
의미	• 스스로 만든 수칙으로 잘 지켜질 것으로 봄/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의 약속이 생길 수 있음 /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됨
방법	• 칭찬 스티커(개인별 보상) 등 보상 체계 마련- 반별 칭찬 상점제후 반별 보상 체계 마련 • 안전수칙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한계	• 적절한 보상 없이는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김 • 몇몇 반 혹은 학생이 지키지 않는 경우 잘 지키는 학생들도 안 지키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교사의 눈을 피해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3회 교육공동체 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교육공동체 회의 및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올 한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한 공동체 놀이를 했고, 학생과 교사로 구성된 밴드 공연도 진행하였습니다. 본 회의는 평가와 2022년을 준비하며 새롭게 제기된 건의 사항들에 대해 토론을 하였고,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위원들에게 상호 격려와 당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2021학년도 평가 및 2022학년도에 바라는 점

좋았던 점	• 학년별 특색있는 축제/ 맛있는 급식/ 새롭게 단장한 학교공간/ 학생중심의 축제운영/ 학급회의, 대의원회의를 통한 학생의견 반영/ 교육공동체협의회/ 선생님들의 열정/ 원활하게 진행된 실시간 온라인 수업 등
아쉬웠던 점	•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이나 행사를 못한 것/ 건의사항이 반영된 부분에 대한 홍보 부족/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부족/ 잦은 수업일정변경으로 혼란했던 일/ 마스크 착용으로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한 일 등
2022학년도 바람	• 교육과정: 전환학기 수업개선/ 다양한 동아리 개설/다양한 진로교육/ 수학여행/ 체육대회/ 남녀공학 • 생활교육: 생활 협약 정하기/ 학교생활 안내 확대/ 방역지침 준수/ 교실도난사고 예방/ 수업 외 다양한 교육활동/ 급식모니터링-월별 특식/ 아침방송/ • 시설 환경: 정자에 쓰레기통 비치/급식실 칸막이 마스크걸이/운동장 체육시설 확충/ 체육관 개방/ 교실환경개선/ 자판기 설치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생각들과 제안들이 좋은 학교를 세우는 설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과 제안을 현실화시키는 것 또한 3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본질이지도 모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교육공동체 회의를 통해 저 스스로 많

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그것이 학교 민주주의를 만드는 시작이자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2022학년도에도 역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03

고등학교

인천신현고등학교	105
부광고등학교	110
강화여자고등학교	115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119
강화여자고등학교	125
문학정보고등학교	129
인천영종고등학교	133
인천만수고등학교	136
인천영종고등학교	141

01 인천신현 고등학교

● 김성준

노동 현장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문제 푼아보기

지난 2021년 여름방학에 학교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연수 중에서 평화교육이 있었습니다. 연수 초반 강사의 물음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평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생각하는 평화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까요?”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많은 다툼이나 갈등을 주제로 다루었음에도 막상 대답하려고 하니, 몇 마디를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갈등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사회와 교육과정에서 중심적인 내용 요소이자, 교육목표와 직결되는 평화에 대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무척 창피했습니다.

연수 이후 평화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평화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평화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화 자체를 떠올리기보다 평화가 깨진 상태, 즉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존재하는 폭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웁니다. 특히 구조적 폭력의 속성이 매우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물리적 폭력)에 비해 쉽게 발견하기 어렵고,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개인이 사회 안에서 갖게 되는 다양한 지위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정됩니다.

평화에 대한 무지함에서 출발했던 노력은 2학기 수업에도 적용하려는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정치와 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5단원 사회 생활과 법 중에서 ‘근로자의 권리’ 부분이 제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노동 현장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며, 노동 현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리적 또는 구조적 폭력은 우리의 사회 문제로 끊임없이 이슈화됩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권리를 나열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왜 기본적인 것들조차 지켜지지 않는지 살펴보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말처럼 쉽게 간단하지 않음을 아이들 스스로 인식하는 수업을 펼친다면, 교사와 학생 모두 의미 있는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존재하는 구조적 폭력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주변 동료와 함께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2021년은 정치와 법 블렌디드 수업을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수업 주제에 따라 세밀하게 시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사하고, 토론하고, 결과물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기본 5차시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 그동안 계획보다 항상 시

간이 부족했던 경험을 살려 예비 시간으로 2~3시간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행히 수능을 앞두고 원격수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내용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충분한 활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룸하여 ‘노동 현장의 갈등, 분쟁, 문제 토크하기’ 수업을 위한 선행 작업이었습니다.

1차시에는 [활동 안내 및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팀 구성과 기본적인 규칙을 안내 하였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연수에서 큰 울림을 주었던 과제를 실천했습니다.

【 활동 안내 및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 】

2021 정치와 법	대단원: V 사회 생활과 법	반	번호	성명
	주제(학습 요소): 노동 현장의 갈등, 분쟁, 문제 토크하기			

■ 활동 안내 및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

차시	활동 또는 과제	결과
38	- 팀 구성하기(팀장: / 부팀장: / 팀원:) - 팀명 정하기(팀명:) - 주제 또는 영역 선정하기() - 탐구 시작하기 -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가산점을?	
39	- 자료 탐색하기(자료명, 출처 등 적기) - - - 자료 분석하고 대안 제시하기(3 ~ 5 why 활동) -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가산점을?	
40	- 자료 탐색하기 - 자료 탐색하기(자료명, 출처 등 적기) - - - 자료 분석하고 대안 제시하기(3 ~ 5 why 활동) -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가산점을?	
	- 자료 분석한 내용 팀원과 함께 공유하기 - 보충 또는 추가 자료 패들렛에 올리기	
41	- 원인분석판 만들기 -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가산점을? - 패들렛에 탑재한 보충 또는 추가 자료 출력하기(선생님 자리) 3 ~ 5 why 활동,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고 패들렛 올리기	
42	- 팀별 활동 내용 발표하기(발표자:) - 다른 팀 발표 내용 경청하기 - 질문하기(의사소통 포인트) - 투표하기(가장 인상 깊었던 두 팀에 대해)	

학습노트	패들렛 주소
■ 최다 득표 2팀 특전 ↳ 팀원 모두 의사소통 2P 추가 ↳ 소.공.연.장 “추억의 별기” 팀원 모두 1판씩 ↳ 간식 BOX 제공 노력(가용한 예산이 있다면?) ■ 역할 분배할 때 주의사항 ↳ 발표 형식 또는 구성, 발표자 선정 ↳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고 패들렛에 올리기	 https://padlet.com/koreaeagle/rirgjjm0y2eb22ne

“이번 시간부터, 토크하기 활동이 종료되기까지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면 벌칙이 있어요. 저를 지금부터 ‘용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이유는 모든 활동이 종료되고, 그다음 시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웃거나 난감하고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등 다양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어지는 수업에서 저를 부를 때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이 계속 관찰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선생님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으로 불러야 하니, 당황할 법도 하였습니다. 팀 구성이 완료되면 팀원 간 역할을 배분하고 본격적으로 주제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 예시 주제를 20여 개 넘게 첨부했습니다.

2차시에는 주제 선정이 완료된 팀은 [3~5why] 원인 분석 활동으로, 그렇지 못한 팀은 계속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3~5why] 원인 분석 활동은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단계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을 압축한 것입니다. 저는 수업 시간 종료 5분 전에 각 팀을 돌며 아이들이 1차시에 배부한 [활동 안내 및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에 표시한 결과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이 활발한 팀에 대해서는 추가 점수를 인정하는(수행평가에 반영) 도장을 찍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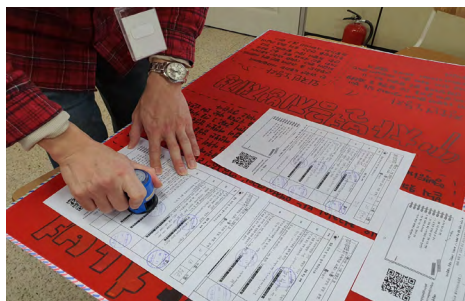
3차시에는 각자 완성한 [3~5why] 활동지를 바탕으로 발표하며 [원인 분석 공유하기]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료 탐색 과정에서 발견한 통계 자료, 시각 자료들을 [원인분석판] 제작에 활용하기 위해 팀별로 색선이 구분된 패들렛에 수시로 탑재했습니다.

4차시에는 지금까지의 활동지를 활용하거나 팀별 아이디어에 따라 자신들이 선택한 노동 현장의 갈등, 분쟁, 문제를 토크한 내용을 정리한 [원인분석판]을 제작했습니다.

5차시에는 완성한 [원인분석판]을 토대로 팀원 모두가 나와 반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 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원인분석판] 제작 중



| [활동 안내 및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 도장 찍기



| [팀별 발표 활동] 비정규직 차별 문제



| [원인분석판] 공유하기

그다음 시간에는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선생님을 ‘몽이’라고 부르도록 한 이유, 이 수업의 숨은 의도를 밝히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선생님을 몽이라고 했는지 말해볼까요?”

“선생님과 교사를 넘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불편함을 느껴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질문하려다가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몰라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선생님이 지난 여름방학 때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적용한 거예요. 교사와 학생이라는 불평등한 관계, 평가와 생활기록부 작성이라는 권력을 갖는 선생님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번 활동에서만은 지우고 싶었고, 학교라는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선생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인식은 강제되거나 정당한 것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어요. 나아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며 익숙했던 그 어떠한 것들 속에는 불평등한 관계, 권력, 특정한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노동 현장에 존재하는 갈등과 분쟁 상황에 존재하는 구조적 폭력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탐구하는 이번 활동과 연결해서요. 선생님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린 것 같네요. 조금 어렵죠?”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결석, 반별 활동 진행 속도의 차이, 교사의 격리(실시간으로 집에서 운영함) 등으로 계획했던 5차시를 넘어 7~8차시에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협업하는 모습, 저에게 수시로 질문하는 모습, 일정한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을 보며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 수업을 왜 강조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주제로 한 팀들이 많네요. 여러분! 아동 학대는 이유를 불문하고 근절해야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몽이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과연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동 학대가 교사 개인의 일탈이나 역량, 인성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탐구했으면 좋겠어요.”

“몽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마음 편히 쉴 수도, 점심을 먹을 수도 없어요. 학부모들은 낮은 저녁에도 특을 보내구요. 연장 근로를 해도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동 학대를 했다는 억울한 누명으로 자살한 교사도 있었어요.”

“몽이! 5인 미만 사업장도 회사 아닌가요? 자료를 보니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상당한데, 법 적용에서 계속 예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월급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돼요.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왜 하청 기업들이 5인 미만으로 쪼개기를 하는지도 일 것 같아요!”

“택배 기사 과로사 문제를 보니, 결국 비용의 문제네요. 그리고 특수 고용 노동자라는 용어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물품을 분류하는 일에 택배 기사 개인이 일바를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몽이가 지난 시간 택배요금 인상을 물었을 때 약간 머뭇거렸는데,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실 때 간호학과가 전망이 있다고, 입학 점수도 높다고 하셨어요. 저도 간호학과를 희망하지만, 얼마 전에도 한 대학 병원에서 태움으로 간호사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활동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육만을 전담하는 간호사 제도도 없고요. 이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간호사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결국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로기준법과 노동 3권,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등 1~2차시의 짧은 수업으로는 배우기 어려운 것들을 아이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넘겼던 문제들을 친구들과 살펴보며, 노동 현장에 존재하는 구조적 폭력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몽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느꼈으면 했던 불편함을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는 감수성 또는 민감성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고, [3~5why] 활동지를 작성하며 깊이 있는 문제 접근이 이루어지길 원했지만, 아이들이 그 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빈칸을 채우는 데 급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선정한 주제가 유치원 아동 학생 문제로 쏠렸다는 점, 팀별 [원인분석판]을 갖고 발표한 이후 활발한 토의가 이어지길 원했으나 결국 제가 질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별로 대주제 하나를 선정하고, 팀별로 소주제를 선정했다면 보다 심층적인 탐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현장의 갈등 사례를 통한 구조적 폭력 인식 → 학교에서도 존재하는 구조적 폭력 인식 →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구조적 폭력 인식-공감-연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느슨한 부분이 발생했고, 이를 제가 나서 주입하고 정리했던 부분도 아쉽습니다.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이번 경험을 살려 내년에도 역동적이고 분명한 목적이 살아 있는 수업을 위해 도전할 것입니다.

02

부광
고등학교

● 김향연

‘민주학교’, 더디더라도
함께 고민하며 한 걸음 나아가기

♥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코로나-19를 처음 만난, 당혹스러웠던 2019년. 학교 일정은 매년 흔들렸고, 학생들과 함께 할 교육 프로그램도 제대로 진행해 보지 못하고 한 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여전했지만 이대로 또 한 해를 보낸다면, 학생들과 함께 활동한 것들이 너무 적어서 아쉽기도 하고 미안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했던 ‘교육과정 중심 민주학교’가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이미 민주적인 우리 학교 법상에 손가락만 얹으면 되는 간단한 과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인 지금 돌아보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는 데에는 다양한 교사들의 협조가 필요했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할 일을 결정해가는 일, 즉 함께 이 프로그램을 꾸려가는 과정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막상 담당자인 제가 민주적인 논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에 무언가를 함께 결정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년간 교사로서 먼저 결정해버린 일을 학생들에게 투입하는 일이 익숙해져 있었고, 결정한 일을 잘 따라주는 학생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었던 저에게 시작부터 학생들과 논의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동료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학교에 활기를 찾아보자는 단순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마무리는 교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을 내려놓고 학생들과 다른 교사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인생 수업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 내가 생각하는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학기 초, 교육청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민주학교 연수를 들었습니다. 수업 준비로 주로 시간을 보내던 그 시점에, 반드시 이수해야 했던 담당자 연수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 일부만 챙겨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여러 시간에 걸친 연수에 영혼 없이 컴퓨터를 켜 놓고 앉아 있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수를 마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물음표들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민주시민교육이 뭐지? 그런 점에서 학기 초 연수는 담당자인 저에게 필요한 자극원이 되었습니다. 고민하면서 처음에 낸 추상적인 기

획안을 어떻게 현실화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제 나름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나서 그 중심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로서, 제가 정한 우리 학교 민주 학교 프로그램의 컨셉트는 ‘학생 중심’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사가 정해주고, 학생들은 따라오게 했다는 개인적인 반성에서 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학교 구성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면서도 막상 목소리를 낼 기회는 적었던 것 같다는 판단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중심이 되어 무언가를 이끌어가기에는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알고 경험해야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은, ‘학술활동 중심의 사회참여 프로젝트’, ‘토론 캠프’, ‘지식의 향연 강연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학급 사업 공모전’입니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국어과 한 학기 한 책 읽기 책을 ‘나는 세계시민입니다.’로 정하였고, 국어과, 수학과, 미술과, 기술과 수업을 기후 위기와 연계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민하고, 시민의 한 명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나름의 개념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인 수밖에 없고, 교사의 관점에 따라서 때로는 편향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꼈다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주 학교 담당자로서 한 해를 지내고 나서는 삶의 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이라고 민주시민교육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내가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주체로서 타인을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하고 - 그런 가운데서도 내 의사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할 수 있고, 지금 결정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좀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다소 장황하지만 꼭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교육이라는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던 프로그램들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실천했던 것은 학생 중심의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 회의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술 활동을 지원해 주고, 학급 자치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급 사업 공모전을 열어 학급의 자치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회의의 경우, 학생 사회자들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함께 성장한 기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학생 사회자를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자 강연회, 북토크,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 주간에 했던 브런치 콘서트 등에서 모두 학생 사회자들과 사전 준비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물론 함께 대본을 작성하며 여러 날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수고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학교 학생들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중심에 세우고,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학술 활동을 지원-관련 전문가와의 만남, 독서토론, 학술자료 읽기 활동 등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학교에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전체의 교육 활동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길러주는 일들을 지원해 주면서 학생들이 비슷한 결의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언제나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서 저의 굳어진 생각을 조금은 더 말랑말랑하게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읽으면서 ‘그래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세대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대 대표성이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는 것이지요’라는 구절을 읽고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또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지난 세대의 율령임에 이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가다



가는 우리 세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닌 지난 세대들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북토크를 진행했던 사회자 학생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목소리를 내게 하고,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일이 당연하고, 필요했던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미 학생들은 일상의 민주주의가 익숙합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불편함을 표현하고, 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지에 대해 언제든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인 내가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듣고, 목소리를 듣는 것이 소모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을 했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이미 경험해 봤고, 조금 더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고 끌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공감하지 못한 방향이라면 결정한 일을 진행할 때 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은 반대했던 일, 원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한다는 불만 속에서 일을 진행해야 하고, 또 그러려면 억지로 구성원들을 끌고 가느라 더 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자치 회의를 매달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건의 사항이 반복적이고 적극적으로 있었던 부분은 급식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은 학교에 밥 먹으러 오나’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새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오는 즐거움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강력한 요인이 바로 ‘급식’이었

| 학생 자치회의 결과 공유 팸플릿 |

1학년 회의록	2학년 회의록	3학년 회의록
(1)교실내에 분필이 없어서 힘들다 (2)교실내에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2. (1),(2) 3. 교실내에 분필을 배치 할 수 있도록 분필을 각 반마다 나누어 준다. (1)처럼 (2)번도 학교에서 각반에 거울을 배치해 주면 좋겠다. 4. 우리반 학생들에게 급식의 맛과 질 그리고 양은 문제가 되지않았지만 교내에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자판기를 배치하는 것과 급식실에서 나갈때 뒷문 말고 앞문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5.기타건의사항 (1)스포츠 용품을 대어해주었으면 좋	공간 부족 7.학교에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모름 8.온라인 시간에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확인이 안됨 9.점심 시간에 놀 공간이 부족 10.학교 시설이 많이 노후됨 11.농구 골대 부족 가장 많이나온 2가지 1.학교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설부족 2.온라인 시간에 수업에 집중X 우리가 할수있는 해결 방안 -캠이 없는 친구들은 휴대폰으로 캠 키기 -선생님 수업시간에 끼여들지 않기 질문이 있다면 끝나고 하거나 개인적으로 질문하기	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 2가지 - (1) 분리수거 문제 (2) 의자 소리 문제 3. 학급 구성원들의 행동 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학급이 노력해볼 문제 정하기 - 분리수거 담당 친구들을 배려하여 패트병과 비닐을 분리하여 제대로 버린다. 4. 급식과 관련해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 - 1. 다양한 메뉴를 요구함. (너무 닭 요리만 나눔.) - 2. 치킨이 나왔을 때 떡볶이만 주지

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 년 중 대부분의 날을 학교에서 지내니, ‘학교에서 먹는 일’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급식’과 관련한 굉장히 세심한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과 만남, 교장-교감선생님과 만남, 부장 선생님들과의 의견 공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학생들이 건의한 내용 중 급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등교하지 않는 학년의 식당을 등교하는 학년이 함께 사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되었고, 영양사 선생님과 만나 학생들의 급식 관련 건의 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 채식의 날 관련 패들렛 토론 |

채식의 날 확대해야 한다.	기존대로 운영해야 한다.	축소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육류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물을 죽여야 한다. 이런 소와 돼지 또는 양과 같은 동물들을 죽이는 데 메탄 가스가 배출이 된다 소 한마리가 하루에 공기 중으로 토해내는 메탄 가스의 양은 200리터 정도 된다. 온실가스배출량은 이산화탄소 4,000리터에 해당하는 양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로또 기후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의 주요식품인 육류의 섭취를 줄이고 채식의 날을 늘린다는 것은 너무 이론만이고, 최근 육류의 감소로 인해 콩고기같은 식품들도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분간은 채식의 날을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식 날아서 먹기 메탄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애초에 축산업에 의한 줄어드는 살, 사용되는 물 등은 축산업 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이든 사회적 필요가 아닌 금융자본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로 막히 축산업의 문제라 볼 수 없으며, 채식을 늘리면 결국 각종 채소들을 더 많이 재배하기 위해 농장을 늘리고,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육류 섭취는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 또한 채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남자고에서는 '비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학생 또한 대다수인데 채식의 날 운영은 학생들의 불만을 일으키게 되고 급식을 먹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거나 먹는 다 해도 대부분의 음식을 버리게 된다.

또한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던 VT스데이와 관련해서는 국어 수업 시간에 관련된 단원과 연계 하였습니다. 비판적 읽기 단원에 마침 동물 복지와 관련한 제재가 실려 있었는데, 이 글과 생태학적 관점, 기후 위기 등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주제였고, 기후 위기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시민의 노력으로 육류 소비를 줄이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민주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서, 좀 더 의미 있고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관련 토론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갈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학교에서 왜 VT스데이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께에서도 VT스데이에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던 콩고기와 같은 메뉴는 빼고, 좀 더 반응이 좋은 메뉴들로 구성하면서 함께 VT스데이를 무난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모적이라고 생각한 시간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차선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수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고민한 시간이 있었기에, 그 공동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움의 기회를 거치면서, 논쟁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이 갈등의 시간이 아니며 생산적인 토론의 과정이라는 교훈을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일상의 민주주의적인 태도를 학교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 또한 민주 학교 담당자로서 함께 고민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의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03 강화여자 고등학교

● 김혜연

학교를 바꾸는 즐거운 상상, 사회참여활동

배려와 경청을 배우는 이야기식 독서 토론은 제가 추구하는 독서 토론의 목표이자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토론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1~2시간씩 토론을 하고 나면 늘 현실적인 괴리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저를 만난 아이들은 자기주장에 날을 세우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찾아보며 수용하는 연습을 하지만, 정작 사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은 서로를 인신공격하고 혈투으며 이권만 추구하는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니, 같은 ‘어른’으로서 참 안타깝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진정한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해야 할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스스로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모든 걸 기획해서 추진하며 아이들은 그저 ‘참여’만 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기획단’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을 모집했습니다. 첫 활동으로 북 콘서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2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써서 외부 북 밴드를 초청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저 관람자의 역할만 했다면, 이전 50만 원만 있어도 다채로운 내용으로 북 콘서트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획단이 아닌 학생들의 참여공간도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함께하는 시민 의식’을 갖게 했을까요?

먼저,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대화 나누기입니다. 주로 ‘월드 카페 독서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 주제라도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서 모둠을 이동하며 충분히 대화를 나누게 하거나, 다양한 주제로 모둠을 나눠서 이동하며 대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모두 함께 하는 공간에서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모든 학교 행사의 준비과정은 바로 이러한 토론과 대화의 시간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정말 저 혼자 생각했을 때보다 풍성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 분야와 연결 지어서 세부 프로그램 구성하기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를 나눠서 1인 1역할을 갖고 책임감 있게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 **광고 홍보 분야** 북 콘서트 포스터, 플래카드,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
- **공연기획 분야** 전체적인 행사 기획안 작성법 논의 및 작성
- **심리 상담 분야**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황 분석 및 독서 처방전 제시

■ 문예 창작 분야	작품을 활용한 뮤지컬 공연에 사용할 시나리오 작성
■ 사회학·언론 분야	작품 속 사회 이슈를 현대사회와 연계해서 분석하고 보도자료 작성
■ 음악 분야	작품 내용을 패러디한 주제가 작사 및 노래
■ 과학 분야	‘변신’에서 다룬 ‘벌레’가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유에 대한 과학 보고서 작성
■ 유아교육 분야	작품 내용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재구성 및 캐릭터 모빌 제작
■ 교육 분야	작품을 활용한 수업 기획안 작성 및 수업 시연 영상 제작
■ 미술 분야	뮤지컬 공연팀을 돕는 무대 디자인 및 설치미술 담당
■ 헤어와 화장품 분야	뮤지컬 공연팀을 돕는 출연 배우 분장과 헤어 스타일링 담당
■ 기타분야	취미를 살려서 서예로 책 제목 전시자료 제작하기, 행사 진행자에 관심을 갖고 직접 진행 대본을 작성해서 북 콘서트 진행을 담당하기, 행사 세부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및 분석 담당하기

다양한 역할에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행사’만이 아니라 학교생활 속에서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과 함께 할 분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세 번째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안에서 우리가 참여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입니다. 한 번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행사를 진행해 보니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즉, 아이들의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머물기만 했던 교실, 복도, 운동장뿐만 아니라 교가나 표지석 등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정신적인 영향을 주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져보게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 쳐다보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느냐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북 콘서트에 참여한 건 사실, 생활기록부에 진로와 관련해서 그대로 기록이 되니까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지만, 공간이나 교가나 표지석 등은 그다지 이점을 느끼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면 참 좋죠. 고급 호텔에 머물기도 하고, 알록달록 예쁘고 편리한 펜션에 머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집에 와서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초가삼간이라도 내 집이 편하다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들이 학교를 제2의 집과 같이 생각하면 어떨까요? 잠시 머물다 가는 정류장 같은 느낌이 아니라 학교에도 우리에게 맞춤형 공간이 생기고, 우리가 이 공간을 사랑할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곳으로 바뀐다면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학습환경에 대한 만족감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교 공간으로서의 만족감까지 생기지 않을까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학교 도서관’에 대한 희망 사항을 글로 묘사해서 읽어주었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게 했고, 그 공간을 떠올려볼 때, 지금 우리 학교 도서관과 비교하면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의견도 나눠보게 했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도서관을 그저 이동 수업하는 특별교실로만 생각하던 아이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인 학교 도서관으로 애정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교실은? 급식실은? 운동장은? 그렇게 하나씩 눈을 돌려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발견해냈습니다. 바로 넓은 복도에도 자신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 시작하면서 공간혁신 프로그램으로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복도 공간 혁신에는 저 혼자만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공

간혁신 담당 부장 교사와 외부 전문가, 학교 내 TF 팀 교사들이 모두 함께한 것입니다. 게다가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가에 적힌 문구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지석 문구에 대한 의문도 말입니다. 그런 의문들이 비단 비판과 불평만으로 이어진 건 아닙니다. 시대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공모전 등을 통해 학교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순차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러한 아이들의 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동료 교사들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100%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교사들에 속하지만, 공감해 주시고, 그분들이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사회참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분들의 영향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전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학교에서의 사회참여가 얼마나 의미 있고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지 깨닫곤 합니다. 그리고 이젠 다른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도 동참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실천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민과 사회참여’라는 교과서 집필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학교와 사회참여’ 부분에 제가 경험한 사례를 담아서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중학교용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용 사회참여 교과서가 출간된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이미 출간된 중학교용 교과서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활용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너무나 기쁜 결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 시민이 된다는 건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란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저 혼자서만 아등바등했다면 늘 우울 안 개구리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열린 생각을 받아들이기능 커녕 제 고집만이 옳다는 생각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볼 수 있게 한다는 건 처음엔 참 많이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지나치게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 어쩌지, 만약 아이들이 주도한 행사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애 사로잡혀 버리면 아이들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한 번은 저와 함께 학생기획단으로 활동했던 아이들이 다른 행사의 기획단이 되어서 활동하다가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학생기획단’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행사 진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냈는데, 결국 담당 선생님 생각대로만 진행되었어요! 그러려면 저희를 왜 불렀을까요?”라고 말합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로 이 지점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맡겨두고선 미덥지 않아 자주 참견하게 됩니다. 저도 물론 처음엔 그랬습니다. 자주 걱정돼서 들여다보고, 제 생각을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것들이 좋다면 그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당연히 그다음 행사를 준비할 땐 완전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죠. 저도 그걸 한 번 경험하고 반성했습니다.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 ‘교사’만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아주 중요한 학교 시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도 되는 허용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문이 들고 걱정이 된다면 아이가 설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고, 제가 보완하고 싶은 방향을 또 설득해 보며 대화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교사를 자신보다 높은 등급의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는 상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설령 자신의 의견이 구성원들에게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충만한 대화를 통해 경험 받는 의견이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오히려 다른 의견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잘 들어주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주장할 수 있게 하면서 학생자치의 핵심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 학생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

1. 자율성 : 자기 결정권과 책임감을 갖는 것
2. 공공성 : 함께 논의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3. 연대성 : 서로의 상황과 의견에 공감하고, 우리가 속한 학교, 지역 그리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두 번째로 실천한 것은 바로 학생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 대회에 출전하는 자율동아리 학생들의 지도교사를 우연히 맡게 되면서 이런 방식도 있구나 알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제가 배우며 사회참여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고 싶은 분야에 함께 관심을 갖고 묵묵히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 담긴 성차별적 표현과 이미지 개선방안, 노인의 디지털 소외 현상 해결 방안, 아동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 방안, 공동 교육과정 수강 학생들의 유대감 형성 방안 그리고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는 교육 방안 등을 아이들과 함께 탐구하고 실천하며 사회참여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위 주제들은 모두 학생들이 서로 논의하고 정한 것들입니다. 교사는 그저 아이들의 관심사에서 의견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원을 슬쩍 제공해 주거나 아이들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행정적인 절차를 돕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학생 시민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 이런 경험을 해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미래는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학생 시민으로서의 인식을 하고 활동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도 먼저 ‘시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절실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고민했던 시민답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학생 시민으로 성장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른들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민주 시민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 시민들과 함께 저 역시 어른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04

인천여자상업 고등학교

● 나명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없는 실림이었지만 저의 어머니는 끼니때마다 늘 새로 지은 밥과 반찬으로 상을 차리셨지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게 수업에 임하는 선생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늘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 매번 새롭게 느껴지도록 강의를 준비하려는 노력. 그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소임이라고.

- 한동일, 『로마법 수업』, 문학동네, 2019-

창의력도 순발력도 없이 그저 묵묵히 수업을 준비하는 평범한 교사에게 용기를 주는 글귀입니다. 주권자 교육도 새로운 밥과 반찬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지금껏 해왔던 교육을 가능한 최선을 다해 새롭게 느껴지도록 가르치기로 임한다는 교사의 다짐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특성화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매년 줄어두고 있는 입학생 숫자가 보여주듯 특성화고 아이들은 이류학교라 오명화 되어 서열화된 질서 속에서 패배감에 젖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쉽게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를 굳이 끄집어내는 이유는 특성화고 아이들이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문계에 가지 않은 이유는 공부를 못해서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취업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이중으로 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박함이 없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누적된 학습 결핍에서 비롯된 빈곤한 지식에서 벗어날 의지도 부족한 것이 뼈아픈 현실입니다.

스스로 학급 프로그램과 사회참여활동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한계점을 주권자 교육이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지만 아이들을 보자니 다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신청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겠노라 다짐하지만 때로 일반고에 근무했다면 민주시민교육이 더 수월했을까 자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항상 결론은 아이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시선에 맞추지 못한 저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학급 프로그램이 학생자치에 초점을 두고, 사회참여활동이 실천에 바탕을 두었다면 주권자 교육은 사회교과 영역과의 연결이 가능한 점,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에게 체계적인 이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점이자 그동안의 갈증을 채워주는 지점이었습니다. 주권자 교육 연수를 통해 대략의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었지만 특성화고 아이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배움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우리 학교만의 주권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보았습니다.

주권자 교육의 시작은 성교육으로부터

가장 먼저 시급한 교육이 필요했던 부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재한 아이들이 어려움에 노

출되는 경우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학교폭력의 기저에는 늘 성과 외모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아이들조차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쉽게 자신을 내주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때 죄의식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숙제처럼 미 봉합한 후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상담 선생님과 위기관리 대상 학생들을 논하던 중 ‘성에 대한 죄책감은 권위주의를 낳는다.’(『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라는 글귀를 보며 깨달음을 얻은 기억을 떠올리며 성교육과 주권자 교육을 연결해보았습니다. 주권자로서 가장 먼저 입지를 세울 부분은 학생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매년 받아온 성교육에 무뎠진 아이들, 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접근을 해야 할지 난감하였습니다. 특별히 참신한 교육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정공법으로 돌파했습니다. 전문상담사 선생님이 학교에서 실제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이 되기를, 그리하여 주권자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확립할 뿐 아니라 자신을 더욱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성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일방적인 방송 강연으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교실에서 전문상담사 선생님과 긴 시간 대면하여 질문하며 쌍방향 수업과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코로 나로 인하여 원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아쉬운 수업으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성교육의 중요성을 확립할 수 있어 앞으로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기조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다시 성교육을 하게 된다면 전문상담사가 아닌 학생주도로 짧게 강연을 준비하고 토론 위주의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18세 정치인, 새내기 유권자 교육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출마 가능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부터 만 18세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아졌습니다.

어느 대선 후보는 “73년 동안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가로막아온 피선거권 장벽이 무너졌다”며 “이 승리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내일이 아니라 미래를 변화시킬 오늘의 주체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3 유권자에 이어 고3 정치인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마련된 것이다.

- 경향신문 2021.12.31.-

학교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출 것입니까? 적당한 스탠스를 유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던 기존의 시각과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는 달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오늘의 주체인 청소년을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며 그저 열심히 공부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한 국민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치교육으로서 선거교육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우려의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기에 사실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교육과 선거교육을 주권자 교육의 필수 영역으로 설정해 주셨지만, 끝까지 내키지 않았던 것이 부끄럽지만 저의 속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권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선거를 통해 표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에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단순한 선거교육이 선거할 때의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면, 주권자로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의 초점은 선거를 하는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에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직접 선거교육 관련 동영상과 선거 관련 영화를 보며 수업내용을 수집해보니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거리가 많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 종오나 분노에 휘둘러 선거를 한다면?
- 선거를 앞두고 정치혐오가 활개 치는 이유는?
- 우리의 선택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 나 하나쯤이야 → 나 하나가

일자리는 점점 구하기 힘들고 집값은 오르고 경제적 불평등은 점점 커져가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불평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청년들은 일바를 하며 최저임금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를 신는다. 모바일을 통해 어떤 정보든 어떤 콘텐츠든 접근할 수 있고 어떤 게임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속 모바일 세상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불평등은 점점 세련되어지고 은폐되고 의식하지 않으려 한다.

- 이창동, 『버닝 각본집』, 아를, 2021.-

세련된 불평등을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연대와 참여가 중요하며 당연히 최전선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영화 스윙보트 속 주인공이 그러했던 것처럼 유권자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해야만 사회는 더디지만 진보한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정치혐오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채워주고 싶은 소망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하면서 조금은 설렘도 느꼈습니다. 졸업을 앞둔 고 3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여 학생들이 훨씬 더 자신의 것으로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흥분되었고요.

11.3 학생의 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열정만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기에는 한정된 시간과 예산의 한계가 있었지만, 스스로 학급과 주권자 교육예산을 통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혼자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체력적인 부담과 압박감 그리고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학교생활의 이벤트는 학생들과 주변의 교사들과 함께 해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기저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고군분투했던 양적인 민주시민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젊어지고 나가야만 하는 질적인 성장을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규범적 목표는 인권교육 안에서 행하되 타인에 보이고 타인에게 평가받는 삶이 너무나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생각을 확고히 갖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건강한 마인드를 갖지 못해 결국 자신을 미워하고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많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보통의 힘듦을 겪는 아이들은 위클래스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밀도 끝도 없는 긍정을 주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보통의 아이들이 타인과 성적이란 평가에서 자유롭고 정말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교육을 앞으로는 학교에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교육으로서의 주권자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에서의 주인의식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의 목소리를 주저 없이 내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 새내기 두드림 학생들과 선생님 2021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학생의 날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역사 속 거인이었던 학생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자율동아리 친구들과 미리 구글설문지를 작성하여 학교에 대해 요구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아이들이 수행평가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답변을 해서 여전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학교 안에서의 참여와 발언권을 높여달라는 요구사항도 많아 여전히 학생자치와 학교자치를 강화할 필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문제점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회로 시야를 확장해 우리의 목소리를 100년 전 학생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번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으로서 질 좋은 취업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바람뿐 아니라 나와 부모님이 모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바뀌길 바라는 점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학생의 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작은 씨앗을 뿌려보았습니다.

아침등교맞이 행사와 포토 이벤트 등도 곁들여 소중한 존재인 학생을 대접하고 축제의 날이 되도록 주위의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학생의 날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승의 날에 아이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은 갚을 수 있었던 점과 옛날 교복을 입고 학생들과 야자타임을 하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의 수업을 해본 점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지구의 날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를 꼽자면 단연 기후변화입니다. 단지 기후변화의 위험성에서 나아가 생태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많은 것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불평등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피해는 세계 온실가스 3퍼센트만을 배출한 저위도에 사는 가난한 10억 명에게 집중된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쉽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같은 국가 안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거주 환경이 불량한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

- 조천호, 『파란하늘 빨간지구』, 동아시아, 2019.

자본주의의 불평등은 더욱 공고해지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빈민층의 기본권을 더욱 앗아가겠구나 싶어 알면 알수록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기후위기 환경교육을 강조하는 시류가 있긴 하지만 깊은 문제의식이 아직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지 않아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의심할 여지 없이 민주시민교육이 나서야 할 지점일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주권자 교육은 이러한 위기의식과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생태환경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05 강화여자 고등학교

● 박문숙

미얀마 난민 어린이를 위한 ‘희망 프로젝트’

교사로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단어를 들으면 뭔가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은 우연한 계기로 ‘학생들과 나를 교실 밖의 세상과 연결 지어 주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어느 순간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잠시 발을 담근 초짜 교사로서 부끄럽지만 제가 했던 활동이 교실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과 학생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 지어줬던 살아 숨 쉬는 교육, 가슴 설레게 하는 교육이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연히 평생교육학 교수님께서 봉사 좀 해보지 않겠냐는 말씀과 함께 건네주신 작은 책자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 교육 후원회(ADRF)에서 진행하는 동화책 번역 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찾던 활동이다!’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G.H.M.G.M(Great Hope Makes Great Miracle)이라는 이름을 걸고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래 동화책을 영어로 번역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난민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활동이 아주 매력적이어서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모아서 동화책을 번역하는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교사로서 영어를 매개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이 해외에서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 읽힌다는 생각만으로도 뭔가 뜻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학생들도 저도 매우 진지하게 활동을 했고,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DRF를 통해 미얀마 관련 캠페인을 하라는 미션이 주워졌고, 저와 동아리 학생들은 이를 계기로 민주 시민교육의 길목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이들과 미얀마 관련 캠페인으로 무엇을 할지 회의를 했고, 그 결과 아이들이 낸 아이디어가 미얀마의 쿠데타 상황에 대한 자료조사, 미얀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설문, 미얀마 아이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 캠페인이었습니다.

우선 동아리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미얀마의 현지 상황이 어떤지 자료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미얀마의 쿠데타 상황의 심각성과 SNS 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얀마에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에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어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미얀마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첫 번째 고민은 학교 아이들이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학생들이 이것을 과연 자신과 연관된 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미얀마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가였습니다. 그리하여 미얀

우리 학교와 사회가 그레타 툰베리처럼 급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인 지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선정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직시하며 VTS 데이가 생긴 이유,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학생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결과를 손피켓으로 제작하여 동영상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지구의 날 역시 작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문제를 공유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다소 어려운 조건에서 연수를 신청하여 걱정이 많았지만, 주권자 교육을 마치고 나니 조금은 선명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사회참여활동이 주권자로서 실천적인 부분에 바탕을 두었다면 주권자 교육은 더 큰 틀에서 이론을 배우고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며 학교 특성에 따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회참여활동에서 미처 배우지 못한 다양한 이론적 학습에 기반을 두어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확립, 환경 감수성의 함양, 새내기 유권자로서의 홀로서기, 다양한 민주주의 역사’ 등을 말해주셨습니다(민주로드).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한편 입법교육이나 선거교육처럼 필수 운영되는 영역보다는 지구의 날과 학생의 날 캠페인처럼 학교 내 학생자치와 연결된 체험이 가장 의미 있었기에, 생활 속에서 주권자로 자각할 수 있는 경험 위주의 교육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입학한 특성화고 아이들을 1학년 담임이자 사회교사로서 처음 만나면서, 꽃처럼 예쁜 학생들이 열등감에 젖지 않도록 밝은 에너지로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무모한 긍정이 아닌 민주적인 가치로 무장한 단단한 시민으로 이끌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교사란 딱풀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들과 아이들, 교사와 교사 사이를 연결해주며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주는 작지만 강력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정도를 구글 설문지를 통해 먼저 조사했습니다. 질문은 3가지로 구성되어 미얀마 전국에서 군부 쿠데타로 군부와 연합군 사이에 전투가 일어났으며 군부 쿠데타 항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아는지, 이런 사태로 인해 미얀마 아이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봤는지, 미얀마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관해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온라인 설문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110여 명의 응답에서 알고 있다(66%), 들어보기는 했다(20.9%). 모른다(12.7%) 순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수가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므로 캠페인 활동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모금 활동이나 응원 메시지 보내는 활동이 현실적으로 미얀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동아리 아이들은 미얀마어로 응원 메시지가 새겨진 연필과 볼펜을 굿즈로 판매하여 그 모금액을 미얀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뜻깊은 캠페인에 동아리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던 기억이 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잠재의식을 깨우고,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였을 그랬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5·18 민주화 항쟁이라는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으로서 머나먼 곳에 있는 다른 나라 민족에게서 우리가 느꼈던 감정을 느꼈기에 더 진지하게 다가왔던 캠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 희망의 메시지 캠페인



| 희망의 메시지 영상편지

캠페인을 하던 날은 너무나도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던 날로 기억이 됩니다. 급식실 앞에 준비한 피켓과 메모지, 연필을 비치하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줄지 궁금해 설 습니다. 동아리 아이들도 처음이기에 조금은 긴장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실은 교사로서 조금 걱정이 들었던 면은 이런 캠페인을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 불편하게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시던 한 선생님께서 “살아있는 교육을 하시네요!”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셨고 또 다른 선생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써주시는 것을 통해 활동 같이 동참해 주셔서 그 우려를 조금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밥을 먹고 나오면서 포스트잇에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서 건네주기 시작했고, 캠페인을 독려하는 동아리 아이들의 목소리도 용기를 내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여서 머리가 멍할 정도였지만 아이들의 참여율이 좋았기에 힘이 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메라로 영상 메시지를 받았는데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미얀마 아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시 준비에 찌든 고3 아이들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진지하게 “이 또한 다 지나갈 거니까 힘내!”라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줘서 어쩐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먼 타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 하나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니 말입니다.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인해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집에서 수업을 들었던 1학년 학생들은 영어 시간을 통해서 줌을 통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설문지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동아리 아이가 정성스레 편집을 하여 강화여고 학생들의 희망 메시지가 담긴 영상 편지를 완성하였고, 이를 받으신 ADRF 스태프분이 반드시 미얀마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미얀마 상황이 좋지 않아 답장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미얀마 현지에 전달만 되어도 정말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미얀마 현지 선생님께서 미얀마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 아이들의 편지를 보여주시고 미얀마 아이들의 영상이 담긴 영상 편지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을 받는 순간 동아리 아이들은 전율이 일었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미얀마 아이들은 속스러워하며 “I love you, Korea! 사랑해!”라고 작은 하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미얀마에 보낸 우리 아이들의 진심과 미얀마 아이들의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 영어 수업시간 희망의 메시지



| 미얀마 아이들의 영상편지 답장

이 영상 편지를 계기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우리가 같은 시민으로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 솟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동아리 아이들과 2차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때마침 미얀마 교육부 차관을 초청해서 미얀마의 교육과 쿠데타 현지 상황을 듣는 교사 연수가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미얀마 난민캠프에서 옷과 학용품 등 물자가 매우 부족하

여 국민 통합 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한국지부 스텝인 생영씨가 한국에서 구호 물품을 모집해서 미얀마 카친주와 산주로 보내신다는 홍보물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뭔가 미얀마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두 번째 희망 캠페인 활동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미얀마 난민 아이들에게 보낼 집에서 입지 않는 옷이나 학용품을 기증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캠페인 홍보물을 교실에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영어 시간에 미얀마 현지의 상황과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스텝들이 미얀마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였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도 미얀마 현지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군인들이 쏘는 총에 쓰러져 죽는 장면과 한 수녀님이 군부를 막아서고 무릎 꿇는 장면을 보고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이런 장면이 우리가 과거에 광주에서 겪었던 5·18 광주 사태와 너무나도 닮아있다고 말했다니 뭔가 맘에 더 와닿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연대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우리도 미얀마인들과 연대해서 세 손가락을 들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메시지와 연대 사진을 남기자고 했더니 아이들이 진지하게 연대 사진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집에서 옷과 학用品을 바리바리 싸 들고 학교로 와서 수줍게 기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 앞에 두고 간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물품들이 들어왔고, 동아리 아이들은 물품들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박스에 정리하였습니다. 3일 동안 아이들이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물품을 수거해 정리하고 박스를 테이핑하는 작업을 했고, 드디어 택배로 생영 씨에게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바람은 학생들의 작은 정성들이 미얀마에 있는 난민캠프까지 무사히 잘 도착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미얀마 난민캠프 옷 학用品 기부 캠페인



| 기부품들

예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캠페인 활동이었지만 제가 참여한 활동이 뭔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학생들도 교사인 저도 조금은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세상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교육이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6

문학정보 고등학교

● 박삼남

나의 노동인권교육 일지

어느새 노동인권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요즘, 저는 감사의 마음을 가득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 실업계고? 직업계고? 이제는 특성화고로 불리는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만 지낼 수 있는 전문교과 전공을 가지고 있어 특성화고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던 자존감이 높거나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기보다는 수업에 선생님과 눈 마주치기 싫어하고 말 시킬까 봐 걱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웃음기 없는 힘든 얼굴로 지내고 있는 걸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한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라포가 형성이 되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아보니 학생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용돈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학교는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잠깐 와서 쉬는 곳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으로서의 학습 권리를 잊은 채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현장에서도 주어진 권리를 지키기 보다 사용자에게 잘리지 않기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한 학생들을 수업 속으로 참여하게 하고, 옆드려 있는 학생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에 공감을 느끼고, 그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노동인권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가 만나는 학생들은 산업체에 현장실습과 취업을 연계하는 제도 속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선생님아 함께 있다는 믿음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못 받아 속상하거나 폭언 폭행으로 상처받았을 때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자고 노동인권 수업을 펼쳐나가면서 학생들은 저를 찾는 횟수가 늘어났고 수업 시간에 옆드린 학생들도 제 수업에서는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치는 놀라운 모습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노동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노동인권 감수성과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키우고 권리를 강화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본인 스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인간의 자아실현 행위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노동을 통해 인간이 자기 본성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이 미래에 직접 경험하게 될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 책임감 등을 익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 집단들과도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진행한 노동인권교육은 학생들이 경험하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미래 직업인으로서 체현할 수 있는 문제들로 접근하면



| 회계실무 교과속 급여계산하기



| 등굣길 노동존중문화 만들기 캠페인

서 실제적인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회 분위기에 적응하며 그들과 노동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미래의 노동 주체로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수업 속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펼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과목이 회계실무, 금융 일반 등 직업교육의 연장선이었고, 노동인권교육 또한 평생 직업교육 차원으로 다가가며 접근하였습니다. 즉, 교사의 의지만 있다면 노동인권교육은 펼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만나는 회계실무 교과 속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 계산해 보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최저시급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아보게 되었고, 근로기준법상에서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들이 본인이 모른다는 이유로 권리를 무시당했던 여러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학생들은 딱딱한 교과 수업이 아닌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될 때도 요즘 많이 제공되는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느낀점을 쓰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교수방법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상황을 미리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상황카드를 활용하여 역할극을 해본다거나, 보드게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학생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노동인권교육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고 교육계, 노동자 전문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기쁩니다. 교육 내용도 노동조합, 노사관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등 노동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인권교육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면서 인간적, 직업적 성숙뿐만 아니라 노동과 관련한 가치, 신념, 태도,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목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수업 속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학교 밖에서 함께 펼치는 저 스스로 보람을 느낍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상황 대처 능력은 높아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의 노동 현장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



[교원연수] 2021 함께 걷자! 인천 노동인권 직무연수



[교사연수] 노동인권수업을 시작합니다. 저자와의 만남 공개연수

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과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통해 관공과 타협의 정신, 인권존중, 참여와 배려, 책임의식 등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모두 느끼지만, 아직 일부 학교 현장 속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은 부정적인 성향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편향적인 면만 바라보면서 학생들에게 노동자(당연히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데...)로 전락시키려고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동료 교사와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는 다시 용어의 해석부터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시민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노동인권교육을 범교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담당교사가 노동과 인권, 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교사 자신의 내면에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민주시민의식이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연수를 통해 전문성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인권교육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배워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며 나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아 성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통해 민주시민의식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까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도 찾아볼 수 있으며 노동인권 주간이라고 교육과정을 계획 세워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 초등학교의 실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수의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 공통과정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셋째,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미디어 콘텐츠부터 워크북, 활동지 등 다양한 자료들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

용하는 방법을 모르니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료 개발한 내용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수방법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권교육을 넘어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지금의 사례 공유를 통하여 많은 교사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노동자를 일터에서의 물질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에서 보는 협의의 시각이 아닌 경제, 사회질서와 맞물리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광의의 노동자로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자아존중감 및 민주시민 의식을 향상하여 노동시장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07 인천영종 고등학교

● 임지혜

시민교육의 세가지 키워드, 자율(자치), 공감과 배려, 책임

💡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

2015년 인천 송도에서 세계교육포럼이 열리면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소개로 동아시아시민교육을 더욱 자주 보게 되면서, 과연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세 가지 모두에 관련해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었기에 찾아볼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는 느낌이었지만, 저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 말로 정의하는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바람직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갖추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연대할 줄 아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세계시민교육	고조선의 건국이념처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하나의 국가를 넘어 하나의 지구촌을 살아가며 나의 행동이 지구 곳곳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	세계시민의 개념을 유지하되,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을 먼저 이해하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세계로 확장해나가는 “글로벌” 교육

나름의 정의를 내린 후,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건 분명한데,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러한 개념을 제시해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급활동 계획하고 운영하기

민주시민, 세계시민, 동아시아시민 중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자율(자치)’, ‘공감과 배려’, ‘책임’ 이렇게 3가지였고, 학기 초에 ‘스스로 학급’이라는 좋은 기회로 학급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참고하고 예산까지 받아 여러 가지 학급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가. 학급 회의로 자율, 배려, 책임감 기르기

우선 ‘자율(자치)’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이고 대충 넘어가는 학급 회의가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급 회의를 만들어 가자는 목표를 세우고, 학급 아이들에게 우리는 ‘스스로 학급’이기 때문에 학급 회장과

부회장이 주도할 것이며 초반에는 선생님이 개입하겠지만 점점 너희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초반에는 내용이 산 넘어 산으로 가거나, 의견 충돌이 격한 경우,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적절히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은 후 이야기하기,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끝까지 듣고 반대 의견 제시하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말하기, 나만의 고집인지 다른 친구들도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인지 살펴보기 등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 학급 회의 시간에 교사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급의 실천 덕목으로 ‘자유와 책임’을 정하고, 급훈을 ‘책임질 수 없다면 자유를 즐길 수 없다.’라고 정해서 내심 놀라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이와 연결하여 모든 사람은 자유와 권리를 누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반드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엘리베이터 이용에 대한 안전이 나왔을 때, 내가 편하려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수많은 학생이 하나밖에 없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려고 기다리다가 오히려 늦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 분명히 노약자용이라고 쓰여있는 만큼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결론을 내는 것을 보고 굉장히 대견스러웠습니다. 이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이나 청소년기 흡연 등의 문제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배려해야 하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 세계시민교육으로 공감, 배려, 책임감 향상

‘자율(자치)’, ‘공감과 배려’,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실현하기 위해 학급특색활동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줄기는 제가 선정했지만 너무나 넓은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는 소그룹 회의 후 조장들이 의견을 모아 담임교사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운영했습니다. 첫 시간에 세계시민교육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SDGs란 무엇인지에 대해 강의를 들은 후 학생들 나름의 관심 분야에 대해 조사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크게 인권, 환경, 문화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고 각각 ‘코로나19와 인종차별 문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문화 다양성 존중과 다름을 포용하기’라는 훌륭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강의를 필요한 경우 강사님을 초청하기도 하고, 조별로 카드 뉴스나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하고, 관련 도서를 학급에 비치하여 읽고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기도 하면서 나와 지역사회, 인천과 한국, 아시아와 세계로 이어지는 연결성을 이해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영어교과 기후행동 프로젝트, 미술 교과 친환경 디자인 활동, 일본어와 중국어의 문화 다양성 발표, 사회문화 인권 존중과 비차별 탐구, 인문학교실 등 다양한 환경, 인권, 문화 관련 교내 행사에도 참여하며 학급과 교과, 학급과 학교 전체 행사가 연계되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 칭찬쪽지, 감사과데이 등 공감과 배려심을 기르는 학급활동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조회 시간에는 학급 친구들을 칭찬하는 쪽지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첫 활동 때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고, 어떻게 칭찬을 하는지도 몰라 ‘△△는 너무 웃기다.’, ‘○○는 게임을 잘한다.’, ‘□□는 잘생겼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를 정리하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여 친구들이 이런 칭찬을 해주었다고 읽어주자, 어색하면서도 칭찬을 받았다는 것에 부듯하게 느끼고, 또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감을 잡고는 두 번째 칭찬쪽지부터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쓰는 내용이 많아져서 종이를 더 달라거나, 조회 시간에 다 쓰기 힘드니 점심시간

까지 써서 제출하겠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말과 2학기 말에 가장 칭찬을 많은 받은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구체적으로 칭찬을 잘해준 학생들에게도 ‘칭찬왕’ 상장과 상품을 증정했습니다. 누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를 들으며 공감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 모습과 함께 긍정적인 행동을 지속해서 수행하려는 노력도 같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칭찬도 어색하지만, 고맙거나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10월 24일 애플데이를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과데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담은 쪽지를 쓰고 사과쪽지는 사과와 함께, 감사쪽지는 달콤한 초코바와 함께 직접 전달을 하고 인증샷을 찍는 활동이었는데,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즐거웠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뽀빠로데이에는 교과선생님들께 롤링페이퍼를 작성하여 뽀빠로와 함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세계시민교육]
SDGs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포스터 제작



[감사과데이]
감사쪽지 또는 사과쪽지와 선물 전달

앞으로의 과제

아직도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시민교육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한 혼란과 어디까지가 교사의 역할인지, 또 학급 단위가 아닌 학년과 학교 전체의 연계 방안에 대한 고민은 과제로 남아 있지만, 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영글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사 및 학생들과 소통하며 조금씩 방법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08

인천만수
고등학교

● 현경희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의 ‘사람’ 찾기

💡 달라진 인권 감수성

일 년간 학교를 쉬었다가 전근을 왔고, 새로운 학생들과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일 년의 바깥나들이는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학사 일정과 수업 방식, 학생-학부모들의 학교 출석을 대하는 태도 등에 큰 변화와 함께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정기고사를 치른 뒤 점수를 학생들에게 교과 수업 시간에 번호순으로 점수를 불러주어 일방적인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불러내어 그 학생의 점수만 보여주거나, 정오표를 오징어 다리처럼 잘라서 점수 확인을 시켜야 합니다. 학년 교무실에서는 수업이나 생활 지도 중 담당 선생님께서 심한 발언을 들었다고 어떻게 해야 하나며 답임을 찾아오는 사례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공문함을 보니 우리 학교 재학생이 인권위원회에 학교에서 학생 핸드폰을 걷는 것은 학생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질의를 하여 학교가 답변을 하라는 공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저는 내심 이런 변화들이 긍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학생들이 점점 자신의 권리를 알아가고 있구나, 학교의 기계적인 시스템이 이제 개개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구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 사회는 사람보다는 자본을, 개인보다는 집단을 앞세우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 곳곳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일터 환경으로 매일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고 있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과 같이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류 문화의 폭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해야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돌봄, 의료, 교육, 배송 등 인간이 하는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등등 ‘자연’과 ‘사람’, ‘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성찰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이중 ‘사람’과 ‘노동’이라는 키워드를 교육에 담는다면 ‘인권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빌딩 안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빌딩 뒤쪽 쪽방촌에도 사람이 있듯 메마르고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자의 존엄을 바탕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과와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들로부터 ‘사람’과 ‘노동’에 대한 관심, ‘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이끌어 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언어로 소화하여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하고 다른 생각들을 가진 이들과는 논쟁의 자리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국어 교과 수업과 정규 동아리 ‘시민기자반’은 이런 주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 국어 수업에서 우리의 권리를 얘기하자!

2020년은 코로나-19 발생 2년 차였습니다. TV에서는 물류창고 내 집단 감염과 화재 사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미안마의 민주 항쟁, 군대 부실 배식 등 다양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 국어 교과서 단원은 ‘설득하는 말하기’ 단원이었습니다. 삶의 문제와 관련된 소재를 끌어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주장을 펼친 내용을 담아 ‘설득하는 글’ 한 편을 완성하는 말하기와 쓰기를 연결하는 수업을 구상했고. 주장의 소재는 ‘인권’으로 잡았습니다.

이 수업은 인권 감수성을 키우면서도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학생 개개인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찾고 이들의 현재 상황, 그 원인,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PPT를 활용하여 3분간 말하기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찾은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 군인, 흑인, 학생, 택배 노동자, 노인, 학대받는 아동, 미안마 국민, 위구르족 등등 다양하였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진행했을 때와 달라진 점은 ‘노동자’들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한창 코로나 상황이었고, 택배 관련 사건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택배 노동자, 청소 노동자, 감정 노동자 등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지 못했던 대상들이 학생들 눈에 들어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수업 이후 그 내용을 담은 글쓰기 수업을 연이어 진행했습니다. 현상과 관점을 자신의 말과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언어의 집을 지어 국어 교과의 성취기준을 달성하면서도, 인권 감수성을 키워 인권교육 성취기준에도 함께 도달하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학기에 발표와 글쓰기 형식으로 다뤘던 인권 수업을 2학기 수업에는 ‘토론(논쟁)’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수업 목표는 ‘토론의 논제에 따라 쟁점 선정하기, 토론의 절차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하기’였습니다. 먼저 토론 논제는 모둠 토의를 거친 후 학급 전체 회의를 통해 두 가지 논제를 정하였습니다. 학급에서 정한 논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다, 방관자도 가해자이다’와 같은 가치 논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현 사회 상황과 관련한 정책 논제들이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지켜주어야 한다, 촉법소년제는 유지해야 한다, 사람의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동물실험을 유지해야 한다.’와 같은 인권과 관련되는 민감한 주제들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찬성과 반



| 배달 노동자의 인권에 관해 발표하는 학생



| 인권 관련 주제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하는 모습

대의 입론 이후 자유 토론 형식으로 30분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논제에도 관심을 가졌지만, 토론이라는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에도 무척 흥미로워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1, 2학기에 나누어 ‘인권’을 주제로 삼아 ‘발표-글쓰기-토론’이라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진행한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들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주변, 또는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인권 취약 지대의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공감하고 있으며 부조리한 현실에 분노도 함께 하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 학생들의 공감, 분노감이 높은 지점은 자신과 관련된 대상(군인, 남성, 학생 등)일 때였고, 심적 거리가 멀 때는 그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권 취약 원인 분석에 있어서도 사회나 경제 구조의 모순을 파악하는 거시적인 시선은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또한 인권 취약 대상이 ‘노동자’일 경우 불쌍한 사람, 나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 등 시혜적인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수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자칫하면 지식을 전달하거나 계도하는 수업, 교사의 관점을 강제하는 수업으로 흐를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 동아리 수업에서 노동의 가치를 얘기하자!

정규 동아리로 ‘시민기자반’을 만들었습니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이기에 신생 동아리였습니다. 동아리를 꾸린 목적은 학생이 시민의 시선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사회참여 활동이라도 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으로 온-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며 변화가 잦은 학사일정이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진행한 활동 중에서 의미 있게 마무리 지은 것은 ‘학교 내 숨은 노동 찾기’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학년 초에 인권, 노동과 관련한 몇 권의 단행본(「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 「사람답게 산다는 것」 등)을 배부해 함께 읽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후, 학교에서 일하시는



| 안전 지킴이 선생님 인터뷰하는 모습



| 인터뷰한 내용을 게시물로 만들어 학교 로비에 전시한 모습

분들 중 인터뷰를 하고 싶은 대상을 정했습니다. 동아리 회의를 거쳐 안전지킴이 선생님과 조리종사원분들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학생들은 말을 했습니다.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눠 인터뷰 할 내용을 정하고, 인터뷰 기사를 쓰는 방법에 관한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안전지킴이 선생님, 조리종사원분들의 일터를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패널 작업하여 학교 로비에 2주간 전시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되돌아 보며 동아리 학생들의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뷰에 응해주신 안전지킴이 선생님과 조리종사원분들 역시 자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어서 고맙다는 말씀도 학생들에게 전해 주셔서 훈훈함이 넘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에서 놀라웠던 점은 학교 로비에 ‘우리 학교의 숨은 노동’이라는 제목과 같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게시물을 세워두었는데도, 학교 구성원들이 크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리어 격려와 함께, 전시물 게시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다. 학교 구성원들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과 달리 ‘노동’이라는 단어에 큰 거부감이 사라진 것 같아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인성교육 차원의 활동으로 바라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던 점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 아직까지 목마른 인권 수업

2021년 봄, 진보 인사들 사이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두고 SNS에서 잠시 논쟁이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부터 노동인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단체를 두고, 한쪽에서는 ‘현재 도덕, 사회, 직업계 고교의 교과서에도 충분히 노동인권교육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구호를 외친다는 게 무슨 소리냐? 교과서라도 보고서 하는 말이나’는 입장과 ‘아직도 많이 부족하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교과 수업과 범교과 수업에서 체계를 갖춰 수업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결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반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라는 문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9 인천영종 고등학교

● 홍경아

학교의 잃어버린 주인을 찾는 ‘교육공동체 회의’

♡ 빵점 주세요!

“아, 그냥 빵점 주면 되잖아요! 저 안 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7년 전 인천영종고에는 펜을 집어 던지며 빵점을 달라고 외치는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들은 그 외침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려고만 하는 아이들, 선생님의 도움을 거부하며 감탄사처럼 자연스럽게 욕설을 내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교사들의 무력감은 깊어가고 고립된 섬과 같은 교실에서 각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빵점을 달라’는 아이들의 그 외침이, 아프다고 지르는 비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수로 평가되는 학교라는 곳에서 늘 ‘바닥’에 있어야 했던 아이들, 배움의 사다리가 끊긴 상태에서 계속 배움을 강요받아 왔던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지르는 비명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이유 없는 반항처럼 보이던 거친 행동들이 아프다는 몸부림으로 느끼게 된 것은, 교사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상처를, 매일 만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터놓고 나누면서였습니다. 교사로서의 효능감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상처와 공허한 마음을 견디며 학교를 탈출할 날만을 손꼽던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하나둘 모여 아이들이 던져주는 숙제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써낸 서술형 답안지 점수를 보며 “선생님! 저 평생 이렇게 높은 점수는 처음 받아 봐요!” 하며 뿌듯한 표정으로 환히 웃는 아이를 만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눈을 빛내던 기적 같은 작은 순간들을 체험하고 나누면서, 선생님들은 상처를 치유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성취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교사들은 교실에서의 작은 성취 경험들과 실패담, 또 다른 도전기를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만들어가며 상처를 넘어 성장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이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하나둘 늘어갔고 교사들은 나눔과 배울 곳을 찾으려 학교 밖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학교 안에도 영감과 용기를 주는 많은 동료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주었고, 우리의 교실이, 학교가 배움의 장이 되었습니다.

♡ 학교의 잃어버린 주인 찾기

인천영종고는 2015년 혁신학교 준비교를 거쳐 2016년에 인천에서는 최초의 혁신고등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교사들은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공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꿈꾸는 학교란 어떤 모습인지, 혼란스럽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그룹으로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던 작은 자발적 전문적학습공동체들이 학교 내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서서히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문화, 협력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뿌리내리

현재 교과서에도 인권이나 노동인권 관련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가치 중심으로, 사회 교과서에서는 법과 지식 중심으로, 전문계 고교 교과서에서는 노동자 권리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담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교육내용과 방식은 지식 중심이며 초·중·등의 위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의 부족, 학생 자신의 언어로 이것을 표현할 장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수업할 교사들의 관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과 노동인권의 내용을 교과 특성에 맞는 성취기준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노력들이 다음 개정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질 교과서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된 교과서가 만들어질 경우 교사 개개인의 관심이나 역량 수준을 넘어선 인권, 노동인권 교육이 가능하고 교육의 보편성과 확장성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수업과 정규 동아리 수업에서 인권, 노동인권 교육을 실천한 내용을 앞에서 잠시 소개했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일 년을 돌아보았을 때 수업을 잘 이끌거나 내용이 좋아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수행평가와 연결했기에 긴 차시로 이어지는 수업에 긴장감을 갖고 학생들이 따라와 주었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 과정에서 좀 더 흥미로운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첨가하거나 학생들의 시선을 자기중심적인 시선에서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이 가미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아쉬웠던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업을 기획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좀 더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 서로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인간적인 세상이 되도록 수업에서 학생들과 작은 씨앗을 심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협의회



| 온라인 수업 간담회



| 수학여행 대체 프로그램

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교사들이 행복해야 행복한 아이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믿고 맡겨주시는 민주적인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존중과 교사들의 '함께하기의 힘'은 무기력에 빠져 있던 학교를, 성장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고 교사들은 스스로를 학교의 변화를 견인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변화를 위해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자연스레 학생들이 단순히 수동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을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게 되었을 때, 학생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해 '온라인 수업 간담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직접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모아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운영할 시 참고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협의회를 마련해 학생의 제안을 교육활동에 반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학여행 및 수련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1학년과 2학년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는,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테마를 정하고 학생들이 직접 팀을 구성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자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체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과목의 학업 성취기준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학생들이 직접 살펴보고 성취기준을 이룰 수 있는 교육활동과 수행평가의 종류를 직접 선택하게 하는 시도를 하는 선생님들도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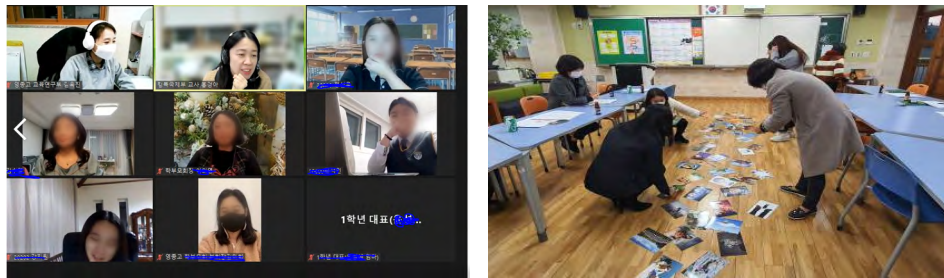
이와 같이 교사들과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의 주체로 활발하게 움직이며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동안에, 학부모는 여전히 학교의 주인이 아닌, 학교를 찾는 '손님'이나 '봉사자', 학

교의 각종 필수적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원 대상', 각종 민원의 원천으로 인식되며 학교 교육활동의 중요한 주체의 역할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개교 후 상당한 기간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육활동에 무관심했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는 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한 두 가지를 학교에서 제공하고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거나, 학교의 행사에 소수 학부모님이 봉사자로 지원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평가를 위한 설문을 통해 많은 학부모님이 우리 학교가 '행복배움학교'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학교 교육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행복배움학교 철학 복토크 운영, 학부모-교사 교육활동 평가회,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학부모 재능기부 교육 등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는 자리들을 마련했고, 그로 인해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 학부모 총회가 미뤄지는 등 1학기 내내 학부모님들에게 학교의 문이 닫히자, 특히 신입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 방역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고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통의 부재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신뢰의 고리가 약해져 있음을 느끼고, ZOOM을 통한 '행복배움 학부모 워크숍'을 시리즈로 기획하며 비대면으로라도 지속적인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훌륭한 전문 강사진을 섭외하여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부모로서 갖는 불안감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혁신학교로서의 학교 철학을 공유하며 인천영종고가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인문학적 배움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워크숍 참여 학부모님 40여 명으로 구성된 '행복배움 학부모' 오픈채팅방은 평소 학교 소식을 전달하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공유하면서 학부모님들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공간이 되었고, 덕분에 학교 교육활동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부모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단 운영 등 학부모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교육활동이 확대되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3주체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회의'

수년 전에 학교 교육활동 3주체가 모여 학교의 생활 규정 개정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함께 한 경험이 있었지만, 3주체가 지속해서 함께 모여 학교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던 차에 교육청에서 마련한 교육공동체회의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교장 선생님,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임원들로 구성된 교육공동체회의를 구성했습니다.



|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협의회

| 교육공동체회의 마음 열기 활동 장면

첫 모임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ZOOM으로 회의를 진행했는데, 3주체가 교육공동체로서 학교의 운영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학교의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학교자치를 실현해 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 주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나누었습니다. 첫 협의회가 끝날 때쯤 구성원들은 회의 전에 이러한 만남이 낯설면서도 기대되고 설 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학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알게 되어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모임은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가벼운 마음 열기 활동으로 시작해 도서『평화의 교육과정, 섬김의 리더십』을 함께 읽고, 책 내용과 연결해 ‘내가 꿈꾸는 학교, 내가 생각하는 행복배움학교란’이라는 주제와, 학교자치를 위해 주체별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딱딱한 회의가 아닌, 공동체성을 위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모임에서, 행복배움학교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 영역, 설문 문항을 함께 살펴보며 내용을 다듬었고, 교육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체별로 성찰협의회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학생자치회에서 대의원회의 안건으로 교육공동체회의에 제시한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2022학년도 올해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해 그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이루어진 학교 교육공동체회의는 횡수로는 비록 몇 번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교육의 3주체가 모여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실천을 위해 노력해본 경험은, 진정한 학교자치를 위한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한 학생은 그동안 각 주체가 자신만의 시각에 갇혀 학교를 바라보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주체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부모님은 소통 없이 각자 분절적으로 노력할 때 생길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막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결할 때 학교 발전을 위해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각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사회 임원들의 정기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현안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인천영종고 교육공동체회의 확대 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많은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학교 교육의 각 주체가 학교의 주인으로서 협력하며, 학교 밖 지역사회와도 더불어 진정한 학교자치를 만들어 가는 미래를 꿈꿔봅니다.

함께 풀어나가는 교실 속 민주시민교육 이야기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일 : 2022년 6월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032-420-8273)